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KTX

April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양평

봄 만난 양평 자전거 여행
[창간 기념] 다섯 에디터의 5개 전통시장 체험기
꽃 본 듯이, 별 빼곡한 밀양 나들이

←
파크랜드를 만나면
일상은 **여행**이 된다
→



2021 Spring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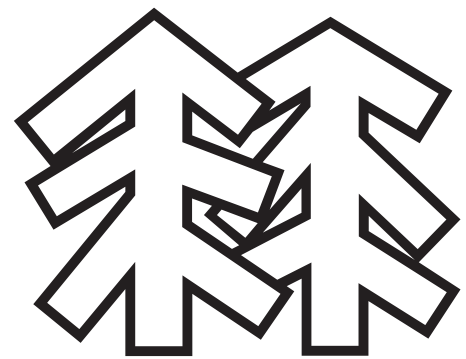
PARKLAND



우린, 다시, 어딘가에서

#somewhere

#나이트하이커



KOLON SPORT

APRIL 2021

KTX

058

▶ **테마 여행**

봄별 따라 북한강 따라, 양평 자전거 여행



양평 두물머리

사진: 신구철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 문의 02 2254 4903

Contents

026



전국 맛집 탐방 정성 가득한 음식에 풍경마저 황홀한 서울 뷰 맛집을 다녀왔다.

080



여행자의 방 경기도 양평과 가평에서 저마다 고유한 매력을 자랑하는 숙소를 찾았다.

116



슬로 여행 꽃잎에 마음이 부풀고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봄, 경남 밀양을 여행했다.

138



작가의 방 자연, 사람, 시간을 존중하는 건축가 이소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DISCOVER OUR COLLECTIONS AT SUITSUIT.CO.KR



SUITSUIT



APRIL 2021

Contents



086

에디터 자유 여행
 <KTX매거진>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다섯 에디터가 전국 전통시장을 누볐다.



BOOK IN BOOK
 KTX-이음을 타고 도착한 경북 영주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전통을 느꼈다.



100

이 계절이 여행
 산과 강이 수려한 풍경을 펼쳐는 강원도 영월의 역사와 예술은 깊었다.

COVER STORY



별이 따스한 계절에 경기도 양평 북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가며 봄날을 누렸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4 우연한 발견
 커피 석 잔도 배달하는 시대, 배달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036 생활의 지혜
 캠핑도 '장비발'이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좋은 캠핑 장비를 꼽았다.

040 잡학 사전
 처음엔 사소해 보인 각국의 철도 개통이 세계 역사를 바꿔 왔다.

042 미니 인터뷰
 데뷔 30주년을 맞은 배우 손현주가 간이역 명예 역장으로 변신했다.

044 백년가게
 전국 각지의 백년가게는 오늘도 첫날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

146 문화 돋보기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를 말하는 그림책을 모았다.

152 코레일 초대석
 열차를 지연시켜 생명을 살린 동대구역 최찬주 역무원을 만났다.

KORAIL INFORMATION

- 172 한국철도 소식
- 178 시간표
- 188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0 열차 이용 안내
- 192 비상시 행동 매뉴얼

Endless Charisma The PHARAOH



더 파라오

월 렌탈료 : 39,500원
 총 렌탈금액 : 6,460,500원
 소비자 판매가격 : 620만원

정교함의 극치, XD-Pro 마사지 모듈 '명상'에서부터 '회음부 마사지'까지 47개 안마 프로그램 오감을 마사지하다, '심상모드' 최초 적용

* 설치회수 실비(28만원)는 가입 시 면제되거나 중도해지 시 별도로 부과됩니다. * 월 렌탈료는 59개월 약정, 250만원 선납 및 제휴카드 전월 실적 100만원 이상 이용 혜택 적용 시 기준입니다.

1600-2225 www.bodyfriend.co.kr 대표번호 02-3448-8980

BODYFRIEND

QR코드를 찍어 더 다양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APRIL 2021

2021년 4월호 제18권 제4호 통권(제205호) 2021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손병석(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사진	디렉터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실장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성우에드컴 사진 디렉터	김희진 khj1@swadcom.co.kr
번역	박경리(영어)	
광고	팀장·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a_40@swadcom.co.kr
온라인 마케팅	부장	이정훈 guide@swadcom.co.kr
제휴 마케팅	(주)쏘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제작 지원	상무	박남규 blue@swadcom.co.kr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중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굿초이스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박인비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 프로 마사지사만의 따뜻한 체온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기 —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

이정은



EP-MAK1-K (블랙)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EP-MAK1-C (아이보리)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를 에어백 —

2018 LPGA 미아클렉스 우승 | 유소연

유소연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4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온열 마사지를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판매점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상담실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촌 본점 (02)542-8452 서울 서초대로 254 오우안스빌 11층 | 파나소닉 유원프라자 (02)567-8432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9 | 파나소닉 HMB프라자 (02)755-8452 서울
시흥구 남해안로 47 | 18-7 2층 | 파나소닉 잠원프라자 (02)755-8452 부산 수영구 광안로 127 | 1층 | 파나소닉 용인프라자 (031)427-3794 대구 북구 율동로 45 | 파나소닉 대
천프라자 (042)223-8452 대전 서구개천로 36 | 2층 | 파나소닉 수원프라자 (031)424-8452 대구 중구 영대로 35 | 2층 | 파나소닉 울진프라자 (051)235-0300 부산시중구
광복로 95-2 | 파나소닉 영남프라자 (051)663-8452 부산 서구 자성로 10 | 파나소닉 HD 프라자 (062)522-2000 광주 서구 남문로 24 | 파나소닉 제주 프라자 (064)757-8432 제주 서귀포
동 4월 3 2층 | 파나소닉 천안 프라자 (041)522-845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영동대로 209 2층

누구나 나가고 싶을 때

조카가 태어난 날 느낀 경이로움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카가 보고 싶어 동생 집을 제집인 양 드나들었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유모차에 태워 바깥 구경을 시키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아직 이모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은 1초도 안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의 파도 같은 애정, 그 정서가 조카의 무의식이라도 남으리라 여겼고, 사실 남지 않는다 해도 괜찮았어요. 이걸 그저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아기가 있는 집은 아기 위주로 집 안을 재정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 다칠까 뽀족한 데에는 폭신한 안전 가드를 부착해요.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조치지요. 아직 걸기 전이라도 유모차, 아기 띠, 포대기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데리고 나가 바깥 공기를 쐬어 줍니다. 아기는 혼자 못 걸으니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잡지를 만들면서 매년 꼭 기념하겠다 다짐한 날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에요. 올해는 '문화 돋보기'에 장애를 말하는 그림책을 기획했어요. 수십 권을 보고 그중 반짝거리는, 완전 소중한 책 여덟 권을 골랐습니다. 해당 기사 마지막, 그림책 이외 콘텐츠를 추천하는 지면에는 홍은전 선생의 책 <그냥, 사람>을 소개했어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오래 활동한 이분이 만난 장애인 이야기를 읽으며 무엇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렇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동안 너무 무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권. 아기는 밖에 나오게 하는 일이 당연한데 장애인의 외출은 당연함과 거리가 멀지요. 예전과 비교해 나아졌지만, 장애인이 '기분 전환할 겸 잠깐 바람 좀 쐬까' 하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지금처럼 이동하기 불편해서야, '혼자 못 걸으니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라고 사회 전체가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요.

이달 잡지에 다룬 수많은 공간은 독자에게 방문해 보시라고, 정말 좋다고 쓴 곳입니다. '누구나' 여행하길 권할 때 누구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합니다. 느려져야 한다고들 하지요. 얼마큼 늦추느냐. 휠체어의 속도만큼 느려졌으면 합니다. 더 빨리 달리기는 어려워도 더 느리게 가기는 쉽잖아요. 느림의 다른 말이 슬픔 혹은 배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약자의 속도로 가야 모두가 함께 봄날이라는 축제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

추신, 꿈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매거진 속 두고두고 보고 싶은 아름다운 사진을 엽서로 만들었습니다.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제작했으니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아 가세요!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나가는 세상

드디어 만들었어요

KTX매거진 쿷즈 드려요!



창간 17주년 이벤트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추첨을 통해 엽서를 드립니다. <KTX매거진>이 사랑한 여행지 16곳을 엽서로 만나 보세요.

기간 4월 1일~25일 인원 100명
당첨자 발표 5월 3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유튜브

참여 방법

- 1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팔로 또는 유튜브 채널 구독
- 2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팔로 또는 구독 인증



Tip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유튜브 이벤트 공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Instagram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을 팔로하세요! @ktxmagine #사진맛집 #기차안퀴즈 #이벤트 #선물드려요

YouTube KR

<KTX매거진>의 생생한 취재 현장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KTX매거진>을 검색하세요!

구독 ✕ 좋아요 ✕



FASHION



Point
마음이 편안해지는
은은한 색상

크로세 니트 & 카디건

여성 의류 브랜드 뽀렝땅에서 환절기에 입기 좋은 '크로세 니트&카디건'을 제안한다. 코튼과 리넨 혼방사를 사용해 마치 손으로 뜨개질한 듯한 질감이 특징이다. 간결한 패턴을 더해 세련된 느낌을 살렸으며, 연한 핑크 계열의 색 조합으로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린다. 봄을 닮은 화사한 민트와 베이지 색상도 준비했다. 뽀렝땅 02-460-0385, www.prendang.co.kr

BEAUTY



Point
뛰어난 보습력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게

히노비라 화이트 로즈 레이어 토너·크림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지친 피부에 활력을 선사하는 '히노비라 화이트 로즈 레이어 토너·크림'은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순한 제형이다. 보습 성분이 풍부한 원료를 함유해 메마른 피부 결을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 준다. 희귀 장미인 화이트 알바 로즈의 우아한 향을 담았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 080-996-5000, www.wellife.co.kr



이스턴 시그니처

캠핑장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코베아가 최근 출시한 '이스턴 시그니처' 텐트는 서틀버스로 주로 사용하는 29인승 버스와 맞먹는 독보적 크기를 자랑한다. 이너 텐트 역시 널찍한 데다 도어를 4등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천장에 달린 6면 창(스카이뷰)을 열면 낮에는 햇빛, 밤에는 별빛이 쏟아진다. 코베아 1588-5515, www.koveashop.co.kr



카르페니 말볼티 1868 프로세코 DOCG

영롱한 황금빛을 띠는 '카르페니 말볼티 1868 프로세코 DOCG'는 최상급 포도 품종인 글레라로만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다. 글레라는 스파클링 와인에 적합한 품종으로 산뜻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혀끝에 맴도는 산미가 긴 여운을 남긴다. 카르페니 말볼티는 1868년부터 5대째 품미 좋은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이는 이탈리아 브랜드다. (주)인터리커 02-6235-1075, www.liquorstore.co.kr

Point
본체와 기둥이
분리돼 보관 용이



파레트 파라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도 '파레트 파라솔' 하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두께감 있는 고급 원단을 직접 재단하고 재봉해 쉽게 구겨지지 않는다. 특히 특허받은 고정 핀이 원단을 탄탄하게 잡아 예쁜 모양으로 펴지고, 통풍이 잘되는 2층 구조로 설계해 공기 저항에도 강하다.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상아, 브라운. **공감** 010-8014-9614, smartstore.naver.com/gonggampaper

하루 한 병으로 아름답고 생기있게 채우는
이너뷰티 콜라겐 앰플
퍼펙트 콜라겐 5000





봄맞이 하러 기차 여행 가고 싶다.
#KTX매거진 #여행가고싶다 #화본역



인생 사진 나오는 곳! 주말에 거제도로 놀러 갔다가 놀랐다. 사람이 많아서. #KTX매거진 #근포마을땅굴 #인생사진



아이가 열차에서 울거나 소리 지를까 걱정했는데 #KTX매거진에서 나무, 꽃 등을 찾아보는 은콩이.

#KTX매거진

- #SNS에서 #찾은
-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정리. 표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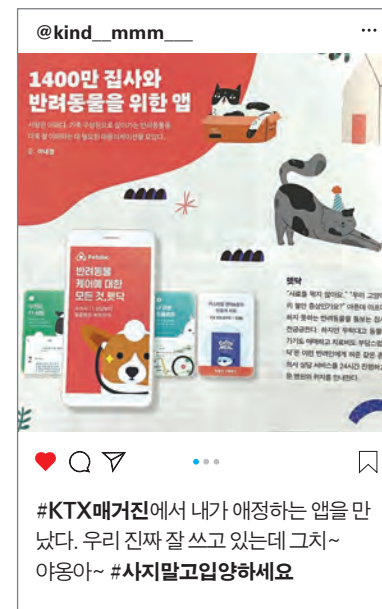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코즈메틱 브랜드 델라비에의 '셀레니티스 토탈민데 크림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KTX 기차 안 QUIZ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매거진 기사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으니 도전해 보세요.
#기차안퀴즈 #이벤트 #선물드려요



#KTX매거진 #구룡포 #대게철 지금이 대게 철이구나. 가족과 한번 먹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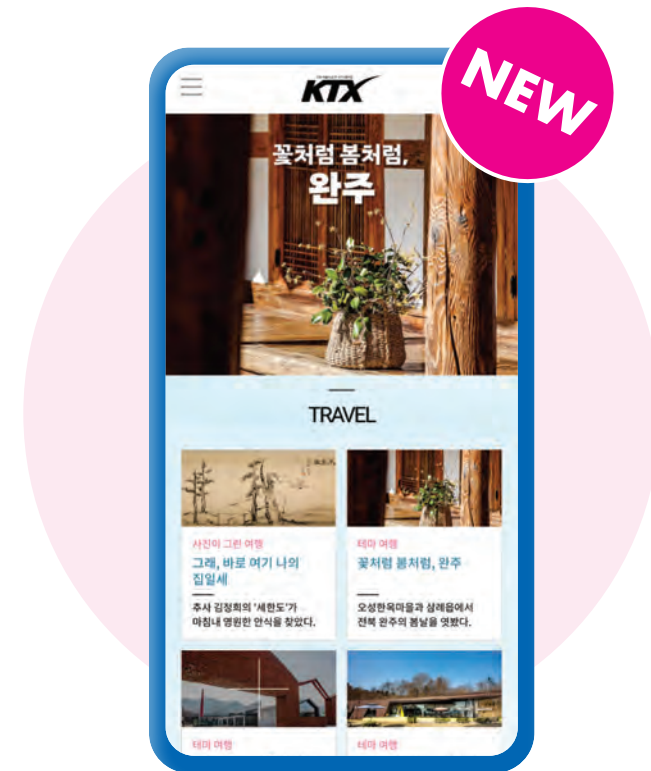
#KTX매거진에서 내가 애정하는 앱을 만났다. 우리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그치~ 야옹아~ #사지말고입양하세요

KTX매거진 앱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KTX매거진>을 E-BOOK은 물론 웹·모바일 페이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KTX매거진 NEW' 앱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KTX Magazine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 모집

- 모집 인원** 00명
- 모집 자격**
 - 영상 촬영·편집, 콘텐츠 기획이 가능한 분
 -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동이 활발히 하는 분
- 모집 기간** 2021년 4월 1일~25일
- 발표 날짜** 2021년 4월 30일 ※개별 통보

- 지원 방법** SNS 주소와 함께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KTX매거진> 공식 메일(ktx@swadcom.co.kr)로 전송
- 활동 내용** 거주하는 지역이나 타 지역 여행 콘텐츠 제작
- 활동 혜택** 콘텐츠당 소정의 비용
- 활동 기간** 2021년 연말까지





[테마여행]
이정우·최지나
양명군청 주무관

어릴 적부터 자전거를 좋아했다. 북한강 자전거길과 남한강 자전거길 교차하는 양평 지역을 취재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주제로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쉽게 생각했지만 실행은 순탄치 않았다. 그때마다 최지나 주무관님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정우 주무관님을 섭외하였고, 취재 하루 전날에는 극적으로 자전거 동호회 '위더라이더' 회원과 연결해 주셨다. 그분들 덕에 이번 호 '테마 여행' 지면을 알차게 구성했다. 다들 좋은 분이어서 촬영 막바지에는 양평에 산다면 동호회에 들고 싶다는 마음도 슬그머니 들었다. 함께 자전거 타고 양평을 누벼 즐거웠습니다. **이내경**



[이 계절 이 여행]
김대현
젊은달와이파크 경영지원팀장

취재를 준비할 때 젊은달와이파크에 전화를 걸어, 몇 날 몇 시에 갈 테니 공간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팀장님은 알겠다면 그날 보자고 했다. 그날, 팀장님과 젊은달와이파크를 빠짐없이 걸었다. 공간은 물론이고 각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나 자세하고 깊은지, "미술을 전공하셨어요?"라는 질문이 절로 튀어나왔다. "아니요. 지금처럼 설명해 드리는 일이 많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인정.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젊은달와이파크가 오픈한다는 소식에 고향 영월로 돌아왔다고. 취재가 끝난 뒤에 팀장님이 준비한 커피를 일정상 마시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또 벌일이 있을 거예요! **김규보**



[미니 인터뷰]
장민균
키아트매니지먼트본부 실장

〈순현주의 간이역〉 제작 PD를 담당해 정말 바쁘셨다. 전화할 때마다 촬영 현장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일하고 계셨다. 그런 와중에도 요청 사항에 불편한 기색 없이 상냥하게 응대해 주셨다. 실장님은 이번 호 '미니 인터뷰'에서 순현주 배우님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아 주셨다. 실장님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신 덕분에 배우님께 생생한 대답을 들 수 있었다. 8년 전 영화 〈숨바꼭질〉을 재밌게 보고 순현주 배우님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해서 즐거웠다. 배우님의 인간미와 성실함이 잔잔히 드러나는 힐링 프로그램 〈순현주의 간이역〉이 흥하길 바라요! 저도 애청할게요. **이내경**



[책속 부록]
김위정
영주 문화관광해설사

이번 '책속 부록' 취재차 다녀온 영주가 좋은 기억으로 남은 데는 김위정 문화관광해설사님의 공이 크다. 뛰어난 말솜씨와 풍부한 지식으로 영주에 대해 잘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특히 무섬마을에서는 마을의 역사뿐 아니라 여러 추억담도 들려주셨다. 학창 시절 외나무다리를 건너 이야기, 다리가 놓이지 않았을 때는 친구들과 팔짱 끼고 물살을 헤쳐 나간 기억 등 생생한 해설에 감동받았다. 부석사에서 마찬가지. 뭐 하나라도 더 말씀해 주시려는 열정,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리라. 취재하느라 고생한다며 챙겨 주신 양동맞은떡과 사과즙도 맛있었어요. 다음엔 무섬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함께 해요. **진주영**

아름다운 부산항과 부산 도심을 동시에 즐기는 라발스호텔 La Valse HOTEL



부산의 낭만적인 뷰 설레는,
라발스 여행

#라발스 디럭스 오션 룸

Spring Cation

Follow us

lavalsehotel_official

봄
캉스

객실 46% + 조식 1인 GIFT



써드레이처_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라발스호텔

봄캉스 | 블라썸 패키지 | Starry Night Sky 패키지 | 휴 패키지
코너 스윗 패키지 | 나이트 오션 피크닉 | 마이 허니 패키지 | 오후의 라발스 패키지



배달의 민족

요샌 커피 석 잔도 배달해 먹는다.
옛날엔 어땠는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찾아봤다.

글. 진주영



울릉도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 한 척, 철가방을 든 사내가 크게 외친다.
“자장면 시키신 분~!” 1997년에 방영한 한 통신사 광고로 어디서든 전화
연결이 수월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어디로든 배달해 주는 중국요리
음식점의 위력도 보여 준다. 이때만 해도 배달 음식은 자장면, 피자, 치킨
정도였다. 지금은? 안 되는 게 없다.

앞선 광고를 요즘 상황으로 재구성한다면 전화가 아닌 앱으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터. 2010년대 초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앱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어느 순간 로봇이나 드론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데 익숙해질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 또는 두 발을 이용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다시 생겼다.
여기서 ‘다시’라는 건 오래전에 이미 그런 방식이 성행했다는 뜻이다.
1920~1930년대 발행한 대중 잡지 <별건곤> 1932년 2월호에는
한 기자의 냉면 배달부 일일 체험기가 실렸다. 당시 사람들은 한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냉면을 자주 배달해 먹었다. 기자는 겨울밤 11시경
손전등을 든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냉면 그릇이 담긴 무거운
목판을 들고 자전거를 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지라 육수 절반 이상을
쏟고 만다. 베테랑 배달부는 한 번에 열 그릇도 거뜰히 운반하곤 했다.
지금과 달리 늦그릇이나 사기를 사용해 몇 배는 무거울 텐데도 묘기 부리듯
해냈다. 자전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두 발을 이용했다. 그렇다면
음식을 배달해 먹는 문화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이 남긴 일기 <이재난고>를 보면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무려
253년 전인 1768년 7월에 적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배달 관련 기록이다. 180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일화가 전한다. 조선
말기 문신 이유원은 자신의 문집 <임하필기>에 여러 신하와 달구경을 하던
순조가 “궁궐 밖에서 냉면을 사 오게 했다”라고 남겼다. 이때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 누군가가 가게로 걸어가 주문했을 것이다. 1926년에 발표한
김량운의 소설 <냉면>에는 “무얼 사 오나... 냉면이나 한 그릇 시키어
오랄까?” 하고서 동생을 심부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한다. 1980년대 전후
전화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익숙한 수순이었다.

사람 다리, 자전거에 이어 과거의 남다른 운송 방식을 하나 더 소개한다.
1800년대엔 냉면뿐 아니라 ‘효종갱’이라는 해장국도 배달 음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의 갭촌이란 곳에서는 버섯, 해삼,
전복 등을 넣고 하루 종일 푹 끓인 국을 솜으로 싸맨 다음, 소달구지에 실어
서울 사대문으로 보냈다. 약 30킬로미터 거리, 늦은 밤 출발한 소달구지는
새벽 4시경에야 임무를 완수한다. 효종갱은 밤새 술을 마신 양반들의
속을 풀어 주는 별미였다. 들인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호사스러운
배달 음식이다. 1925년에 간행한 <해동죽지>에서는 “광주 성내 사람들이
잘 끓인다. 새벽종이 울릴 무렵 재상의 집에 도착한다. 국 향아리가
그때까지 따뜻하고 해장에 더없이 좋다”라며 조선 시대 양반들의
식문화를 짚고 넘어간다.

사실 배달의 민족이란 한민족, 백의민족이란 뜻인데 이젠 이런 의미도
추가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강변이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어디라도’
‘빵, 밥, 면, 주식이 뭐든’ ‘낮이고 밤이고’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족이라고, 그 역사는 최소 250년에 달한다고 말이다. ☑



맛있는 풍경을 찾아서

음식은 물론, 풍경도 '열일'하는
서울 뷰 맛집을 모았다.

글. 진주영 사진. 장은주



QR코드를 스캔하면
서울 뷰 맛집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쉬매쉬

창덕궁 돌담 옆으로 열 걸음쯤 되려나. 앉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조선 시대 금위영이 자리했다. 왕을 호위하는 이들이 머물던 터에 몇 해 전 아담한 한옥이 들어섰다. 이곳 2층이 윈드 민지 김 셰프가 이끄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 '미쉬매쉬'다.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요리를 배우고 경력을 쌓은 김 셰프는 생소하지만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는 한식을 선보인다. 훈제 돼지고기에 흑마늘 튀레를 끼얹거나, 허브 버터와 썬을 가미해 생선을 굽는 등 익숙한 재료를 쓰되 레시피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제철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신메뉴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만난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고즈넉한 궁궐 풍경을 바라보며 트렌디한 한식을 맛보는 기분이 남다르다. 경치와 음식 모두 여유롭게 즐기도록 알찬 코스 요리로 대접한다.

mishmash

- ☞ 런치 코스 5만원
 디너 코스 8만원
-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47
- ☎ 02-6465-2211
- 📱 @mishmashkorea





더 스테이크 하우스 피어 79

잠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선상 레스토랑 '더 스테이크 하우스 피어 79'에 입장하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한강에 두 발 딛고 서 있다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커다란 유리창 너머 강물이 넘실거린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저 멀리 남산서울타워가 보인다. 한강을 둘러싼 풍경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해 본다. 그다음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등 이탈리아 음식으로 '뷰'의 풍미를 끌어올린다. 신선한 재료에 경력 20년 넘는 셰프의 손맛을 더한 요리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빌 스테이크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송아지고기 요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경치 한 입에 음식 한 입, 그래서 어두워진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빛이 모여들어 황홀한 장면을 연출한다. 소믈리에가 엄선한 30여 가지 와인 중 하나를 골라 깊어가는 밤을 만끽해도 좋겠다.

the steak house pier 79

- 🍴 본인 립아이 빌 스테이크 8만 9000원
왕새우 관자 토마토 파스타 2만 1000원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 ☎ 02-3481-2227
- 📱 @royal_steak_2020





디퍼 루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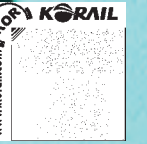
옛 철길을 품은 경의선숲길을 산책하다 보면 과거 간이역을 재현한 책거리 역을 지난다. 이 역을 내려다보면서 '피맥'을 즐기는 곳, 2017년 오픈한 '디퍼 루프탑'이다. 3층 규모 건물에 2층은 아늑한 매장, 3층은 시원한 루프톱으로 구성했다. 숲길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감상하는 이색적인 '철길 뷰'만큼 피자 맛도 훌륭하다. 400도 화덕에서 구워 낸 피자는 저온 숙성한 곡물 반죽을 사용해 고소하고, 치즈와 토핑을 아끼지 않아 풍부한 맛을 낸다. 스피니치 살라미, 마약 옥수수, 땡초 불고기 등 이곳만의 레시피로 다양한 피자를 내놓는다. 로스팅 막창 파스타, 혼합 토마토 스투 같은 메뉴도 피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음식을 골랐다면 맥주를 선택할 차례다. 한라봉 에일, 피넛 버터 포터, 로제 애플 사이더 등 30여 가지 맥주 리스트에 감동이 밀려온다. 그중 절반이 신선한 생맥주여서 더욱 감격스럽다.

deeper rooftop

- ▲ 스페셜 루프탑 피자 2만 1500원
- ▲ 케이준 양념 감자튀김 8500원
-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8길 4
- ☎ 02-338-0321
- 📱 @deeper_rooftop



신상 푸드



컬리컬리

초록색 브로콜리만 알고 계셨죠?
다양한 색의 컬리컬리도 있어요.

글. 표다정 사진. 이철

어릴 땐 브로콜리를 초고추장 맛에 먹었다만 지금은 본연의 맛을 만끽하려고 노력한다. 조금 더 수고를 들어서 데친 브로콜리와 으갠 두부에 참깨 드레싱을 곁들이면 완벽한 주말 점심이다. 연노란색, 보라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컬리컬리는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올리브유를 둘러 오븐에 굽거나 잘게 다져 볶음밥 재료로 사용하면 좋다. 색이 예뻐서 요리도, 플레이팅도 즐겁다. 컬리컬리는 맛있게 먹는 것만큼 세척이 중요한데,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담가 놓으면 송이 사이사이에 낀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송이가 큰 브로콜리는 한 송이씩 떼어내 세척한다. ☑

LASHEVAN

MOURA
27

KANE
10

SON
7

ALDERWEIRELD
4



TOTTENHAM
HOTSPUR

라쉬반 노팬티와 싸우다!



www.lashevan.com 1544-7888
판매: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 (주)에스제이트랜드

LASHEVAN
www.lashevan.com 1544-7888



한번 입으면, 안 입을 수 없어서.

비능성공

#무스타



라쉬반
노팬티와 싸우다!

내 밥을 팬티로 만들다니? ㅠㅠ



KTX
무료체험
QR 코드 인증 하시면 무료체험 드로즈 산스



텐셀™은 나무를 원료로, 환경 친화적이며, 면보다 흡습성이 뛰어나고 실크보다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으로, 천연 항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어 매우 위생적입니다.

Lenzing
Innovative by nature

Copyright © Lenzing AG 2021

LASHEVAN

www.lashevan.com 1544-7888

LASHEVAN
www.lashevan.com 1544-7888

1회용 마스크 일 78억개 지구인은 살리지만, 지구는 죽어 갑니다.



결감 초극세사 안감 인건 사용

하루종일 착용해도
아프지 않은 컷등



에어 포켓 프레임[특히]
코 눌림없이 편안하게

결감 발수 코팅
안감 스피드업 드라이 가공

30회 세탁 후에도 항균도 99% 유지합니다.
입 냄새 제거해 언제나 상쾌합니다.
트렌드한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QR코드 인증 하시고
KTX특가로 구매하세요!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캠핑 장비의 세계

캠핑도 '장비발'이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 '불멍'하러 떠나기 전 이 제품을 주목하자.

글. 이내경



티타늄 드리퍼 세트

자연 속 커피 한잔의 여유를 책임진다. '티타늄 드리퍼 세트'는 고급 티타늄으로 만들어 무게가 100그램 정도로 가벼운 데다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오래 사용해도 뒤들리지 않는다. 멋스러운 소가죽 케이스도 제공해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다. 그래서 오늘 캠핑장 커피는 제가 씁니다~ 코오롱스포츠 1588-7667



7



알피콜 T시리즈

캠핑은 자고로 먹부림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피콜 T시리즈'는 그 시작이자 끝이다. 음식 맛의 생명은 신선한 재료에 있으니까. 이 브랜드는 캠퍼 사이에서 '알피콜=냉장고'라는 공식이 통용될 정도로 유명하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 냉장·냉동 분리형과 일체형 두 종류가 있다. 키키몰 070-8098-8794

2



헬리nox 체어원

화사한 색상이 봄꽃 같다. 봄을 맞아 헬리nox가 베스트 셀러 '체어원'의 새로운 색상 세 가지 타이다이, 페이즐리 블루, 스칼렛/아이언 블록을 출시했다. 체어원은 초경량 DAC 알루미늄 합금 폴로 제작해 무게가 1킬로그램도 안 되는데, 하중 145킬로그램을 견딘다. 인쇄심이 145배나 되는 아량이 넓은 친구다. (주)헬리nox 02-730-1928

3



카셀터-엣지돔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인 시대, 캠핑도 간소화가 필요하다. '카셀터-엣지돔'은 비우는 방법을 알려 준다. 캠핑하는 기분을 내고 싶은 날엔 타프로 활용하고, 제대로 '차박'을 하고 싶은 날엔 차량과 연결해 셀터로 설치할 수 있다. 방수 원단으로 제작해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쾌적하다. (주)콜핑 1644-6899

4

5



대물파워뱅크 QC4.0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급격히 진화했다. 캠퍼는? 파워뱅크를 캠핑장에 가져가는 순간 전문 캠퍼로 거듭난다. '대물파워뱅크 QC4.0'은 효율이 좋은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하고 용량이 280암페어나 된다.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잔류 용량, 남은 시간 등을 알려 주니 캠핑하는 동안 용량을 조절해 쓰기 쉽다. 대물파워뱅크 070-4300-2401

이것도 채식이라고? 식육 왕성한 다섯 에디터가 다양한 채식 메뉴를 맛봤다.

어쩌다. 채식

정리. 진주영 사진. 이철



피자컬리 | 에그플라트 베지 피자 4.4점

김현정 세상엔 토핑에 기름이 동등 떠다니는 듯 부담스러운 피자만 있는 건 아니었다. 땀백 쫄깃 건강한 피자라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 / 김규보 어떤 재료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피자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비건 재료여도 상관없어요. 논리 같은 건 잊고 입안의 감각을 믿으세요. ★★★★★ / 이내경 콜리플라워로 만든 반죽에 할랄 인증을 받은 치즈, 국산 가지와 주키니호박까지! 건강한 피자의 바른 예. ★★★★★ / 진주영 파인애플 피자도 맛있게 먹는 저로서는 이 피자가 당연히 만족스럽고요, 핫소스 뿌리면 더 맛있었어요. ★★★★★ / 표다정 비건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서 행복합니다. 파프리카, 버섯, 주키니호박 식감을 잘 살린 피자! 두 판도 가능할 듯ㅎㅎ. 큰일 났네, 건강한 돼지 되겠어요. ★★★★★



베지푸드 | 베지프랑크 1.6점

김현정 소시지는... 적어도 소시지는... 저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응원할게요. ★ / 김규보 소시지 덕후인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기를 쓰지 않았는데 소시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심 끝에 비건 소시지를 해체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 / 이내경 소시지 맛이 나지 않아 소시지가 아니라 생각한 것이운데... 소시지의 탈을 쓴 넌 뉴규? 정체를 밝혀라! ☆☆ / 진주영 분홍 소시지가 생각나는 맛이니, 달걀을 입혀 먹으면 괜찮을랑가요? 아, 그럴 거라면 분홍 소시지를 먹는 게 낫겠지요. 형용하기 어려운 맛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앞으로 침묵이 필요할 때만 먹기로요. ★☆ / 표다정 상상도 못 한 맛! ㅇㅇ. 비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공서체). 저는 비건 할 마음도, 생각도 없으니 소시지 포기하겠습니다. ★



베지가든 | 짜장 떡볶이 3.9점

김현정 눈 질끈 감고 한 입 했다가 곧바로 눈떴다. 춘장 맛 양념과 떡이 찰떡같이 어우러져 초심자도 숙련자 같은 표정으로 먹을 수 있다. ★★★★★ / 김규보 다들 알고 계시죠? 짜장 소스는 치트키입니다. 이 떡볶이의 재료는 쌀떡이지만, 사실 쌀알이어도 맛있었을 거예요. 짜장 소스가 있으니까요. ★★★★★ / 이내경 그래, 이 맛이! 0.0 입맛에 착착 감기는 춘장 소스. 채식가는 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짝 기분이 보이네요~ ★★★★★ / 진주영 떡볶이 주재료는 떡이 아니라 어묵이잖아요? 떡만 있어 다소 아쉬워요. 비건 어묵도 넣어주세요~ 그래도 채식임을 감안하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는지. ★★☆☆ / 표다정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진짜 건강한 돼지가 될 테고요. ★★★★★



제로미트 | 베지 함박 매쉬드 포테이토 3.4점

김현정 기분이 저기압일 땐 함박 앞으로 가겠습니다. 함박웃음~ 속에 든 감자 때문에 좀 느끼하니까 김치는 꼭 준비하세요. ★★★★★ / 김규보 이번에 알았어요. 햄버그스테이크도 피자처럼,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어요. 콩 단백질이어서 건강에도 좋대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 / 이내경 무슨 맛이지? 음, 무슨 맛일까? 햄버그스테이크 하나를 다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내 머릿속 물음표. 채식주의자는 다음 생에. ★☆☆ / 진주영 한 개 먹을 땐 잘 몰라요, 이 맛의 진리를. 한 개 더 먹으면 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맛인지예요. 다만 뜨거울 때 소스 듬뿍 발라서 후다닥 먹기! ★★★★★ / 표다정 햄버그스테이크를 미리 먹은 선배들 반응이 '불호'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다. 아, 내가 말한 맛은 소스 맛. ★★★

1830

영국 United Kingdom



리버풀-맨체스터 철도 1830년 9월 15일, 기관차 '로켓'과 '플래닛'이 맨체스터에서 리버풀 사이를 처음 운행했다. 당시까지 마차와 함께 쓰던 철로를 최초로 단독 사용하고 증기 동력만으로 움직였으며, 전체 구간을 복선화한 데서 나아가 시간표에 맞게 출발하고 도착하는 기차였다. 이미 영국엔 스톡턴-달링턴 철도가 있었으나 규모와 운행 능력에서 진일보한 리버풀-맨체스터 철도는 여객 운송 시대를 열었다. 이를 기점으로 도시 간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철도를 따라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은 더 빠르게 융성해 갔다.



1855

파나마 Pan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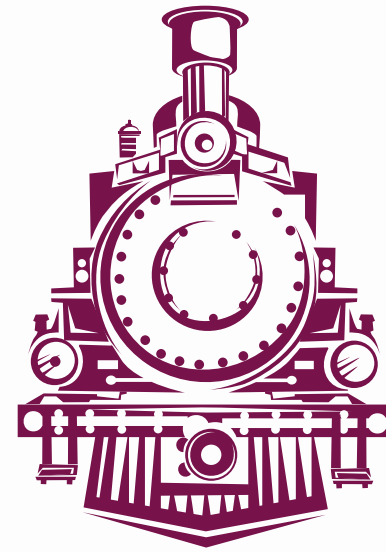
↑ **파나마 철도** 길이가 76킬로미터에 불과했으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한 세계 최초의 대륙횡단철도다. 그 시절 미국은 배송 거리가 먼 우편물을 배로 운반했는데, 파나마를 관통하는 철도를 놓아 소요 시간을 줄이려 했다. 12개월을 예상한 건설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많은 인부가 사망하기도 했지만 완공 이후 투자자가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익을 볼 만큼 대성공했다. 파나마 철도의 효율이 확인되자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도했고, 이를 이어받은 미국이 1914년에 운하를 완성했다.



영국 United Kingdom



→ **메트로폴리탄 철도** 산업화가 도시를 무서운 속도로 팽창시키던 19세기 중반, 영국인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공리하고 있었다. 그때 런던은 변호사 찰스 피어슨이 "거리와 골목은 인간의 오물로 가득하다"라고 개탄할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그는 두더지 굴에서 영감을 얻어 지하에 터널을 뚫고 기차를 운행하자 제안했다. 그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을 때,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를 연료로 달리는 기차는 지하에서 연기를 뿜는 까닭에 지옥 같은 여정을 선사했다. 그래도 이는 지하철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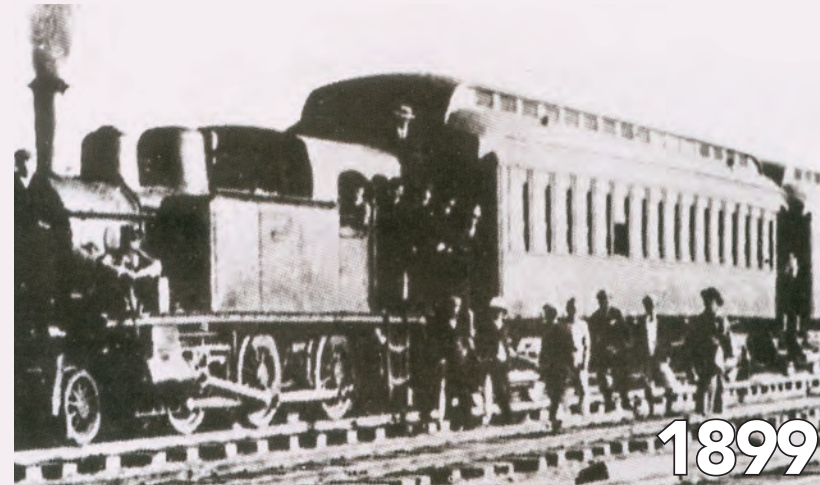
세계 역사를 바꾼 철도

시속 0킬로미터에서 출발한 KTX가 시속 300킬로미터를 넘어서듯, 처음엔 사소해 보이는 각국의 철도 개통이 세계 역사를 바꿔 왔다.

글. 김규보



1863



1899

1902

이탈리아 Italy



발텔리나 철도 19세기, 증기 다음의 기차 동력 수단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디젤과 전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중 전기 분야는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이 배터리를 장착한 기관차 '갈바니'를 발명한 게 대표적이다. 1902년에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의 발텔리나 계곡에서 세계 최초의 고압전기 철도가 건설됐다. 수 세기를 분열한 나라가 철도로 통합됐다 믿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 결실이였다. 그런 노력이 오늘날 전기기관차의 씨앗이 됐다.

폴란드 Poland



↓ **아우슈비츠 철도** 유대인을 말살하려 한 독일 나치는 1941년 폴란드의 작은 마을 아우슈비츠에 집단 처형소를 만든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철도를 이용해 유대인을 처형소로 보낸다. 철도로 수송해 독가스실에 몰아넣는 대량 학살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 나치는 이후 베우제츠, 소비보르, 마이다네크, 트레블링카에 새로운 처형소를 세운다. 나치의 철도 관리자들도 유대인을 기차 화물로 분류해 3등석 단체 요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운송비를 책정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 학살됐다.



1942

한국 Korea



← **경인선 철도** 지난 1월에 신형 고속열차 KTX-이음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처음 출발했다. 한국 기술로만 제작한 친환경 열차로 한국 철도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이런 한국 철도는 1899년 9월 한반도에서 최초 개통한 경인선 철도에서 비롯한다. 노량진역과 인천역을 오간 데 이어 1900년 7월 경성역과 인천역 사이를 완전히 연결해 근대 교통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즈음 증기기관차의 평균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한국 철도가 최고 시속 300킬로미터가 넘는 KTX를 운용하도록 초석을 다진 귀한 속도다.



1916

러시아 Russia



↑ **시베리아 횡단철도** 길이가 9400여 킬로미터로, 건설한 지 100년 넘은 현재까지 가장 긴 단일 노선이다. 19세기에 태평양 연안으로 영토를 확장한 러시아는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1891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횡단철도 공사에 착수한다. 전례가 없는 공사였기에 숱한 난관에 봉착했다. 바이칼호를 건너고자 겨울엔 공공 안 호수에 간이 철로를 설치했고, 얼음이 모두 녹는 여름엔 기차를 페리에 실어 건너편에 옮겼다. 1916년에 완공한 철도는 이듬해 러시아혁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 Japan



↘ **도카이도 철도** 더 빠르게 달리려는 도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철도다. 1964년 10월,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개통한 도카이도 철도는 일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쿄와 오사카 사이를 오간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노선으로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에서 시작해 현재는 시속 290킬로미터로 운행한다. 고속철도의 상징 중 하나인 이 철도는 초기엔 터널에서 공기 압력 변화로 승객의 고막이 찢어지거나 화장실의 오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결국 압축 공기 장치로 해결할 수 있었다.



1964

명예 역장으로 변신한 배우 손현주

데뷔 30주년을 맞은 국민배우 손현주가 TV 예능 프로그램 <손현주의 간이역>에서 간이역 역장으로 전국을 누빈다.

정리. 이내경



●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연기에 전념하다 배우님 이름을 내건 예능 프로그램 <손현주의 간이역>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 인지요?** 살면서 잊혀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속도와 편리만 추구하다가 멀어지는 것을 주목하고자 했지요. 제가 명예 역장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의 소재인 간이역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개그맨 김준현 씨, 배우 임지연 씨와 함께 전국에 자리한 간이역을 찾아다닙니다. 역에 얽힌 추억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라서 도전했습니다.

● **역무에 능숙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촬영을 앞두고 제일 먼저 방문할 역을 찾아봤어요. 그때 경북 군위 화본역에 있는 급수탑이 지은 지 80년 넘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인지 참 흥미롭더라고요. 화본역 첫 촬영 때는 궁금한 게 많아 다른 출연자보다 일찍 도착해 역장님께 역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어요. 간이역에도 참 많은 열차가 다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라면 아무래도 컴퓨터로 처리하는 업무예요. 다행히 준현 씨와 지연 씨가 능숙해, 제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줘서 참 고마워요.

● **크루 개그맨 김준현, 배우 임지연 씨와 호흡은 어떤가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정말 잘해 줘요. 준현 씨와는 친분이 있어 종종 만나는 사이인데,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해요. 지연 씨는 고객을 상냥하게 응대하고, 익숙하지 않을 텐데도 발권에 현금 영수증 발급까지 똑 부러지게 처리합니다. 성격도 좋아서 준현 씨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첫 게스트로 배우 유해진, 김상호 씨가 출연해 화본역 승강장에 의자를 만들어 준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목공예 조예가 깊은 해진 씨가 구상하고 상호 씨와 힘을 모아 만들었죠. 프로그램 출발점에서 큰 힘을 얻었어요.

조사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 간이역은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곳이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간이역을 방문하고 소개할 수 있길 바라요.

● **간이역에 대한 느낌이 촬영 전과 후로 달라지셨겠어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간이역은 만나기 힘든 곳이었어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아니면 찾아갈 이유가 없으니 말이에요. 친숙했던 비둘기호와 통일호는 철도와 기차의 발전으로 운행을 멈췄고, 보통 KTX를 타고 이동하니까요. 하지만 <손현주의 간이역>을 촬영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조사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 간이역은 추억과 역사를 간직한 곳이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간이역을 방문하고 소개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 **평상시 여행을 자주 가시나요?**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행을 즐겨 하지는 못합니다만, 드라마나 영화 촬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 촬영장이나 숙소 주변을 많이 걸어요. 걷기는 건강에 좋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이지요. 걷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미처 못 본 조형물 등 동네 구석구석을 새롭게 발견해요. 전통시장은 꼭 찾아가는 장소죠. 지역의 특색과 특산물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화음이 인상적이거든요. 여러분도 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 **올해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손현주의 간이역> 촬영은 물론이고 종종 참여해 온 다큐멘터리 내레이션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도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드라마와 영화도 준비하는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도 전국 간이역을 최선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 명예 역장이자 배우 손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INFORMATION

MBC <손현주의 간이역> 기차역은 지역과 지역을 잇고 세상을 연결한다. 소통의 상징 간이역이 문을 닫지 않도록 명예 역장 손현주와 역무원 김준현, 임지연이 순회 근무에 나선다. 우리가 잘 몰랐던 간이역의 하루와 그 속에서의 낭만과 여유를 알리며 힐링을 선사한다. 지난 2월 27일 경북 군위 화본역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백년 뒤에도 변함없을 열정, 백년가게

오늘도 첫날의 마음을 이어 나가는 전국 각지
백년가게를 소개한다.

글. 표다정·이승태 사진. 김희진·주민욱 정리. 김규보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철수테일러

한땀 한땀에 담은 양복의 품격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 '홍철수테일러'는 부산의 중심, 중앙동에 자리한다. 1977년 광복동에 처음 문을 열어 그 역사가 44년을 내다본다. 기술로 먹고살던 시대에 청년 홍철수는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던 국제시장 양복점에서 잔심부름하며 일을 시작했다. 재봉은 바지와 조끼, 상의 순서로 배우는데 기술 익히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바지 단계에서 그만두거나 평생 바지만 만드는 사람도 술하다. 최소 20년은 지나야 제대로 양복 한 벌을 지을 만큼 까다롭고 지남한 작업이다. 서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양복점을 마련했으니 기술 습득 속도와 손재주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홍 대표의 양복 제작 솜씨는 전국에 입소문이나 지금도 서울의 신사가 찾아오곤 한다. 한 사람만을 위해 혼을 담아 짓는 홍철수테일러 맞춤 정장의 품격은 공장에서 찍어 내는 기성복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옷을 인정해 주는 손님을 생각하며 지난 세월 해 온 것처럼 오늘도 가위질에 여념이 없다.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43

☎ 051-245-0131

🛍 제품마다 다름



인근 추천 여행지



시애틀리포트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킬로미터를 날며 광활한 부산 바다를 내려다본다. 바닥이 투명 강화유리인 크리스탈 크루즈를 타면 더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송

도해상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 어린 왕자 테마 존, 모먼트 캡슐, VR 스카이빙, 다이노어드벤처 같은 다채로운 테마 시설이 자리한다.

건봉국밥

진심으로 만드는 따뜻한 국밥



배순화 대표는 '찾아오는 손님을 배불리, 맛있게 먹이겠다'라는 신념으로 1987년 순천 아랫장에서 '건봉국밥'을 시작했다. 건강을 받든다는 뜻의 상호가 내포한 창업 신념처럼 원가를 따지지 않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손님상에 내놓는다. 진심을 담아 국밥을 끓인 세월이 34년. 순천은 물론 인근 지역 사람도 건봉국밥에 얽힌 추억 한 자락을 품고 산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국밥을 먹던 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일을 찾아 외지로 떠났지만, 그들에게 건봉국밥은 고향의 맛과 다름없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세를 내는 작은 공간이었으나 이후 3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지었고 직원이 11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규모만 확장되었을 뿐 배 대표는 한결같다. 5년간 간수 뺀 신안 천일염과 해남 배추로 김장을 하고, 순천만에서 잡은 새우로 젓갈을 담그며 매일 사골을 곤다. 1997년부터는 막내 아들 김광산 씨가 합류해 어머니의 진심을 잇는다. 국밥 한 그릇에 배 대표와 광산 씨의 삶이 녹아들었다.

📍 전남 순천시 장평로 65
☎ 061-752-0900
🍽 국밥류 8000원 모듬수육(대) 3만원



인근 추천 여행지



순천드라마촬영장 1960~1980년대 달동네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약 4만 제곱미터(1만 2000평) 면적에 건물 200여 동을 지어 드라마 세트장으로는 한국 최대 규모로 손꼽힌다. 교복을 빌려 입고 달동네를 누빈 뒤 극장과 대포집을 구경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드라마 <자이언트>, 영화 <마약왕> 등을 촬영했다.

© 신구철



자인떡방앗간

대구 달서시장의 찰쌀떡 달인



이른 새벽부터 환하게 불을 밝힌 '자인떡방앗간'. 떡시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을 가리며 박재홍 대표가 바쁘게 움직인다. 방금 찐 인절미를 꺼내 판에 쏟아가게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찬다. 박 대표의 부모님이 가게 문을 연 1985년 이후 매일 새벽 반복되는 풍경이다. 직장에 다니던 평범한 어느 날 부모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고, 장남인 박 대표가 방앗간을 맡게 되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두 분이 평생 하시던 일을 이으니 마음이 뿌듯하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때도 떡을 만들었으나 고추를 뺀거나 참기름을 짜는 일이 주였다. 박 대표는 떡 만드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충천연색 퓨전 떡과 행사용 대형 떡케이크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다가 찰쌀떡과 영양떡, 약밥으로 메뉴를 간소화했다. 열두 가지 견과류가 들어가는 영양떡은 재료 가짓수를 줄이자는 주변의 권유에도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며 고집하는 박 대표다. 부모님이 하던 방식대로, 어릴 때부터 봐 온 재료 배합 방법을 우직하게 지켜 나갈 뿐이다.

📍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35 달서종합상가 바동 2호
☎ 053-526-9315
🍽 찰쌀떡(한 박스) 3만 3000원 약밥 1600원

인근 추천 여행지



© 평태산나루

대구수목원 환경부가 전국 자연 생태 우수 사례지로 지정한 명소 중 하나로,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 공간으로 재생했다. 약초원, 활엽수원, 침엽수원, 야생초화원 등 21개 구역에서 총 1750종, 35만 본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야생화 사진과 식물 종자 전시실을 갖췄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다채로운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동양한지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변함없는 한지



1970년대 서울 인사동에는 종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지업사가 즐비했다. 주거 공간이 아파트로 바뀌고 실내장식에 한지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지업사는 범위를 넓혀 '장식'이라는 말을 상호에 쓰기 시작했다. 현재 인사동에 남은 한지 전문점은 서너 곳. 그중 '동양한지'는 생산뿐 아니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이다. 박석만 대표는 일제강점기에 한지를 생산하고 유통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종이와 가까이 지냈다. 그런 그가 아버지 나이를 훌쩍 넘어 이제는 아들과 함께 한지를 연구한다. 이를테면 한지의 쓰임. 1990년대에는 한지 공예, 2000년대에는 민화가 유행했는데 한지의 다음 쓰임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고려 시대 한지의 재료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조사한다. 불에 타지 않는 한지 등이 그가 연구한 결실이다. 박 대표는 크기와 색상이 각양각색인 한지, 옷칠 등 원료를 입힌 한지를 매장에 전시한다. 많은 사람이 보고, 한지에서 영감을 떠올리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길 7
☎ 02-734-1881
📦 제품마다 다름



인근 추천 여행지



창덕궁 1405년, 나라에 번고가 생겨 공식 궁궐인 경복궁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이궁으로 지어졌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좌우대칭을 엄격히 지킨 경복궁과 달리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다. 숲, 연못, 정자가 어우러지는 후원도 보존 상태가 훌륭해 왕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

용문산 산나물!

건강한 자연을 담은 양평!



제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

온라인 : 5.1토 ~ 9일 오프라인 : 5.1토 ~ 2일

용문산 관광지 일원, 온라인 플랫폼

주최 양평군

주관 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경기관광공사

03.12~07.18

<보더리스 사이트 Border-less.site>

서울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가지 색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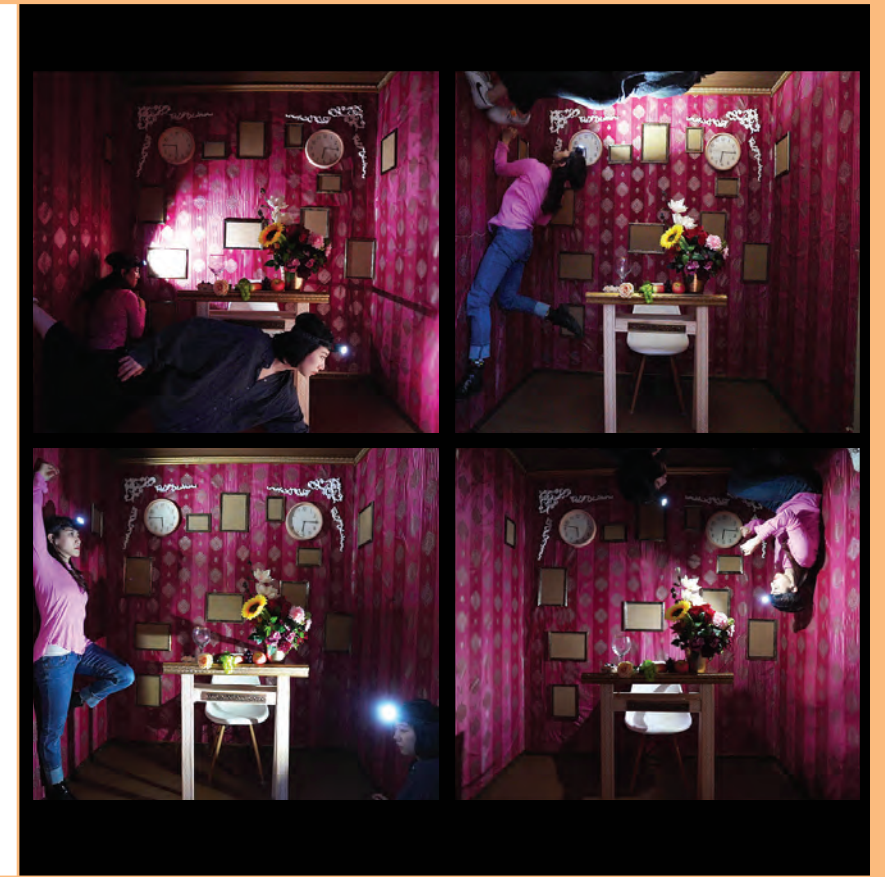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에 자리한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은 동시대 작가에게 영감을 준 20세기 작품 소개를 목표로 설립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 오픈한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 재단 미술관 컬렉션이 찾아왔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1960년대부터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여 온 독일 현대미술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다. 그를 대표하는 '4900가지 색채(4900 Colours)' 연작 중 아홉 번째 버전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공개한다. 2007년,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훼손된 독일 쾰른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디자인 작업을 의뢰받았고, 중세 때 본래 창문에 쓰인 다채로운 색채를 1만 1500장의 수공예 유리 조각으로 표현한다. 색상에 대한 오랜 고찰을 특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한 결과였다. 이 작업이 정사각형 컬러 패널 196개를 격자판으로 조합하거나 대형 패널로 완성하는 등 열한 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4900가지 색채'를 창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작품은 다채로운 컬러 스펙트럼을 통해 색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장소**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문의 02-3432-1854



© Gerhard Richter

전시

코로나19로 국가 간 경계가 공고해진 지금, 작가 18명이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 단둥 지역을 테마로 설치·영상·미디어·회화·퍼포먼스 작품을 완성했다. 임동우 작가는 중국인, 북한인, 한국인, 북한 화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언어라고 생각해 다양한 언어가 섞인 간판을 조합한 작품 '복수 간판'을 선보인다. 코우너스 작가의 설치 작품 '즐거운 여행 하세요'는 관람객을 여행자로 설정해 단둥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여행자에게 휴대용 티슈를 증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행자가 된 관람객에게 경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한다. **장소** 서울 문화역서울 284 문의 02-3407-3500



서울

03.17~05.09





전시

1980년대생 다섯 작가가 예술가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현실을 꼬집는다. 김양우 작가는 낮과밤을 각각 생계를 위한 시간과 작업을 위한 시간으로 명한다. 마우스 클릭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는 영상 '화물 운송 회사 사무직'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사무직'은 작품을 구상할 여력 없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가의 낮 일상을 뜻한다. 장소 수원 아트스페이스 광고 문의 031-228-4195



<BE 정상>



아트스페이스 광고
140000호 면적 211
2021. 5. 16. - 2021. 6. 6
www.sspace.co.kr

ARTISTS
김재민
김양우
서용찬
이재찬
정익현



진하고 깔끔한 돼지국밥은 오직 밀양에서만!

밀양 = 돼지국밥



WHAT'S UP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공모전

당신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나들이 가고 싶게 만드는 작품'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박물관 내외부 및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8월에 발표할 공모전 수상작은 올 가을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길에 전시할 예정이다. **주소** museum.dev-dnad.kr **문의** 02-2077-9000

03.01~06.30



전시



<필립 콜버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 거대한 랍스터가 출현했다.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랍스터는 명화 속을 거닐고, 신화의 주인공이 된다. 미술관, 공장, 은행을 오가는 랍스터의 일상을 담은 영상에 미소가 지어진다. 전시작 80여 점 중에는 존경하는 백남준 작가에게 헌정하는 작품도 있다. 세계 최초 공개다.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99-1000

03.13~05.02



전시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 주제인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전시·퍼포먼스·온라인 출판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다양성을 강조한 전시에는 세계 각국의 작가 69명이 참여한다. 그중 하나로 광주극장에서는 폴란드 사진작가 조피아 리데트가 촬영한 공산 정권 시절의 폴란드를 사진으로 만난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의** 062-608-4114

04.01~05.09



축제

2021 태안세계튤립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태안 대표 축제로, 2015년 태안이 세계 5대 튤립 도시로 선정되며 세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약 11만 제곱미터(3만 4000평)에 달하는 축제장에서는 레드파워, 캔디 프린스, 람바다 등 200여 가지 품종의 튤립은 물론 루핀, 마거리트 등 다른 화려한 꽃도 감상한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장소** 태안 코리아플라워파크 **문의** 041-675-5533

04.14~05.10



박람회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1

일러스트레이션 좋아하는 사람은 모여라. 그래픽디자인, 회화,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분야의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집콕' 시대, 대세 취미로 떠오른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을 모은 'K-다꾸페스타+', 작가가 진행하는 '조금은 특별한 도슨트'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장소** 서울 코엑스 **문의** 02-761-2512

04.08~1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식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기소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넬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치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련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7

건식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간 비간섭,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특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정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 광주시립미술관

2021 MDF, paints

'Moderation Toolbox & Gwangju Stool'

리암 길릭

글. 김규보

테이블과 서양식 의자인 스툴이 놓인 이곳은 미술관 로비다. 관람객은 '작품처럼 보이는' 진짜 작품에 앉아 휴식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미술관 방문의 주목적은 감상이기에 이런 순간은 얼핏 부차적 경험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로비 유리 벽을 캔버스처럼 활용한 작품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축으로서 'Moderation Toolbox & Gwangju Stool'은 전시를 새로운 시야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그런가 하면 테이블이 곡선인 까닭에 나란히 앉지 못하며, 오히려 서로 등진 채로 앉기 쉽다는 점 또한 독특하다. 작품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 설치 미술가 리암 길릭이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소개한 이후 형태와 의미를 확장해 온 벤치 시리즈 중 하나다. 사회 속 관계를 깊이 탐구해 현대미술의 '관계 미학' 탄생에 공헌한 작가는, 편히 쉬면서도 상대 방과는 긴장하게 되는 이질적 감정을 통해 관계의 이면을 드러낸다. < >

* 광주시립미술관, <워크 라이프 이펙트>전, 6월 27일까지. 문의 062-613-7100

travel

058
봄날 자전거 여행, 경기 양평

086
다섯 에디터의 전국 전통시장 나들이

100
강원도 영월에서 만난 역사와 예술



사진. 신규철

영주 무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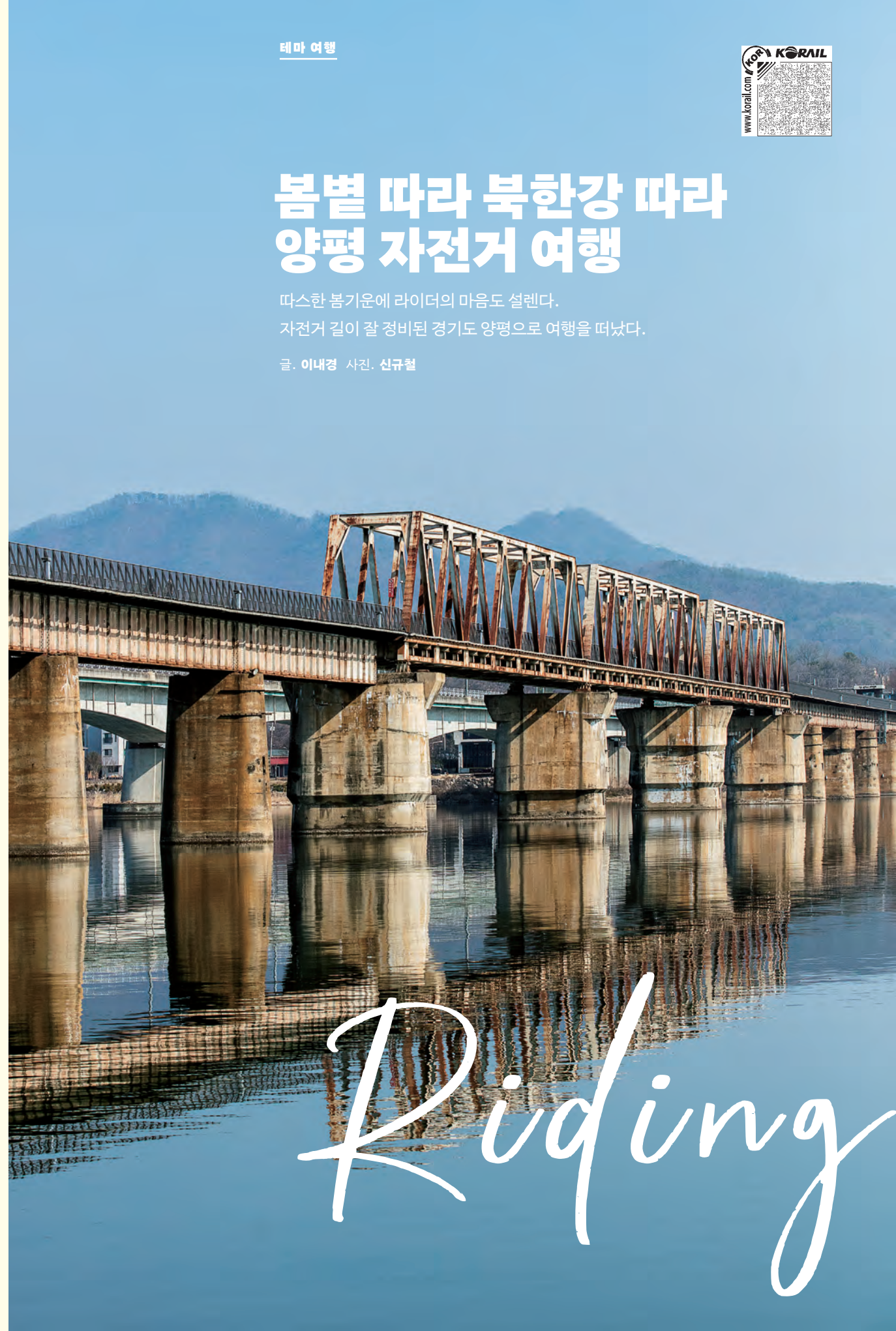
테마 여행



봄별 따라 북한강 따라 양평 자전거 여행

따스한 봄기운에 라이더의 마음도 설렌다.
자전거 길이 잘 정비된 경기도 양평으로 여행을 떠났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Riding



산뜻한 봄바람이 볼을 어루만진다. 어느새 봄의 중턱, 지나치기 아쉬운 봄별을 온몸에 머금고자 자전거 나들이를 떠난다. 이번 목적지는 전국 라이더가 사랑하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와 강원도 춘천을 잇는 북한강 자전거 길과 팔당대교에서 충주댐까지 내달리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만나는 유일한 지역을 여행했다.

A fresh spring breeze caresses my cheeks. With spring already at its finest, I set off on a cycling trip to enjoy the magic while it lasts. My destination is Yangpyeong, Gyeonggi-do Province—a favorite of cycling buffs throughout Korea. One of the highlights was Dumulmeori, the meeting point of two rivers.

새로운 생명 얻은 북한강철교

덜컹덜컹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더 이상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운행하지 않건만, 북한강철교는 여전히 덜컹거린다. 운길산역과 양수역을 연결하는 철교의 복선화 작업으로 막아 둔 철교를 2011년 자전거도로로 개방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열차만 다니던 길에 이제는 사람이 오간다. 개통 전부터 강과 어우러진 녹슨 교량의 운치가 아름답기로 입소문 난 북한강철교는 양평의 명소로 단번에 이름났다. 양평과 남양주를 오가는 다리는 보행로와 자전거 길을 나란히 두어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어 지나도 좋다.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는지라 긴장한 마음에 처음에는 끌고 가 보기로 한다. 얼마 걷지 않아 왼편으로 2008년 준공한 양수철교에서 자전거 픽토그램을 래핑한 경의중앙선 자전거 열차가 양수역을 향해 손살같이 달리며 함께하자고 유혹한다. 다시 덜컹덜컹. 장비를 갖춘 라이더가 연이어 신나게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



Bukhangang Railway Bridge Given New Life

The sound of a train chugging past rings in my ears. The Bukhangang Railway Bridge continues to rattle, even though it is no longer serviced by the Gyeongui-Jungang line. The bridge was closed for a double-track construction project, and regained its former vitality and vigor with the opening of a bicycle lane in 2011. It serves pedestrians today instead of trains. Visitors can walk across the bridge, connecting Yangpyeong and Namyangju, on the footpath while slowly admiring the scenery or ride on the bicycle lane for a two-wheeled adventure. I have not cycled for a while, and decide to push it across instead. To my left, a train adorned with a wrapping of bicycles shoots past the new Yangsu Railway Bridge, completed in 2008. It seems to be inviting me to speed up as well. The bridge

information

나들이객으로 북적이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북한강철교와 두물머리 인근에는 자전거 대여점이 많다. 일반 자전거는 물론 산악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동 킥보드, 트레일러 등을 빌려준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길이 어우러지는
두물머리는 순박한 산세와 잔잔한 강물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두물머리는 물길처럼 자전거 길도 만난다. 북한강 자전거 길과 남한강 자전거 길,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후회 없는 선택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두물머리 등암평의
주요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Trip



치자 텍의 울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심장이 쿵쾅댄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도 질주 본능이 꿈틀대는 구간이다. 조심스레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는다. 불안함은 잠시, 한 발 한 발 페달을 굴리다 보니 금세 여유가 생기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그 위에 곧게 뻗은 다리. 양평의 이미지가 새로이 새겨진다.

buzzes again. A cyclist in full gear whizzes by from behind, bringing with him a gust of wind. My heart is thumping. The desire for speed is getting hard to resist. I get back on my bicycle, and let my legs fall into the rhythm of pedaling. Soon, I feel comfortable enough to take in my surroundings.

두 물길이 만난 절경, 두물머리 여행지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두물머리로 향하는 길을 동행한다. 10여 분 거리가 짧게만 느껴진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길이 어우러져 한강으로 흘러 나가는 지점이어서 지은 순우리말 이름이다. 양수리(兩水里)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순박한 산세와 잔잔한 강물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예부터 많은 이가 찾았다. 조선 시대 화가 겸재 정선도 한양 근교와 한강 변 명승을 담은 33폭 화첩 <경교명승첩>에 두물머리를 ‘독백탄’이라는 작품으로 남겼을 정도다. 1973년 팔당댐 완공으로 일부 지역이 수몰되어 풍경은 달라졌어도 온화한 산수는 변함없다. 과거 두물머리 나루터는 남한강 수운의 마지막 나루터인 덕분에 남한강 물류의 집합지였다. 400년 넘는 느티나무 곁에 정박한 황포 돛배가 그 시대를 추억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장인이 원형 그대로 복원해 의미가 깊다. 두물머리에서 배다리로 연결되는 세미원으로 걸음을 옮긴다. 자전거는 입장할 수 없어 밖에 세워 두고



Dumulmeori, the Intersection of Two Rivers

On my way to Dumulmeori, I am accompanied by a gentle spring breeze. Dumulmeori, which literally means “the meeting of two waters,” is where Bukhangang River and Namhangang River meet. The beloved area offers a peaceful view of majestic mountains and calm waters. Gyeonggyo Myeongseungcheop, a collection of 33 paintings of scenic spots by the famous landscape painter Jeong Seon, includes a painting of Dumulmeori called “Dokbaektan.” The iconic yellow sail boat, moored near a 400-year-old zelkova tree, adds to the nostalgic ambience. From Dumulmeori, I cross a pontoon bridge to Semiwon. I have to dismount as bicycles are not allowed inside. The botanical garden attracts the most visitors in summer, when lotus flowers are in full bloom. Ten years ago, it was covered



한국 지방정원 제1호로 등록된 세미원은 홍련지, 백련지 등 6개 연못에 연꽃, 수련, 창포 등을 심어 물을 자연 정화한다. 문의 031-775-1835



Course 1

자전거 경로 3km 도보 2km





일상에 스며든 예술을 표방하는 구하우스는 집 같은 미술관을 콘셉트로 거실, 침실, 다락 등 10개 방으로 구분해 소장품을 전시한다. 문의 031-774-7460



2층 6번 방과 7번 방은 기획 전시 공간으로, 5월 9일까지 <Signed & Numbered Artworks-거장들의 에디션 작품>전을 진행한다.





들어선다. 세미원은 조성 이유가 특별하다. 지금은 여름이면 수련이 만발해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강가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상류에서 떠 내려온 쓰레기가 가득했다. 변화의 계기는 작은 실천. 주민과 환경 단체가 합심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연을 심기 시작했다. 조그마한 힘이 모여 기적을 행했다. 2004년 규제를 정비하고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을 열게 된 것이다. 아직 연꽃 필 시기는 아니어도 이곳의 가치는 충분하다. 추사 김정희의 걸작 '세한도'를 재현한 세한정, 봄꽃이 만개한 세심로 등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의미를 담은 정원이 방문한 이의 마음을 밝힌다. 두물머리로 나오는 길, 마침 자전거 동호회가 당도해 연밭을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아 나간다. 얼굴에 피어난 함박웃음에서 상쾌한 기분이 전해진다. 자전거 타기 좋은 날이다.

일상에 녹아든 예술을 보여 주는 구하우스

이제 난도를 높여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양수리를 기점으로 구하우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중미산자연휴양림, 중미산삼거리를 지나 양평역으로 향하는 코스는 체력과 기술을 겸비해야 해 숙련된 라이더가 즐겨 찾는다. 양평에서 수년간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며 현재는 동호회 '위더라이더' 회장을 맡은 신형진 씨 일행에 합류했다. 헬멧 착용은 필수. 파란 하늘처럼 푸른 북한강을 벗 삼아 회원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쪼르르 나아간다. 구하우스까지 30분 넘게 달려왔는데도 동호회원 모두 여유가 넘친다. 신형진 씨에게 라이딩에 빠진 연유를 묻자 그가 대답한다. "자전거를 한번 타 보면 바로 알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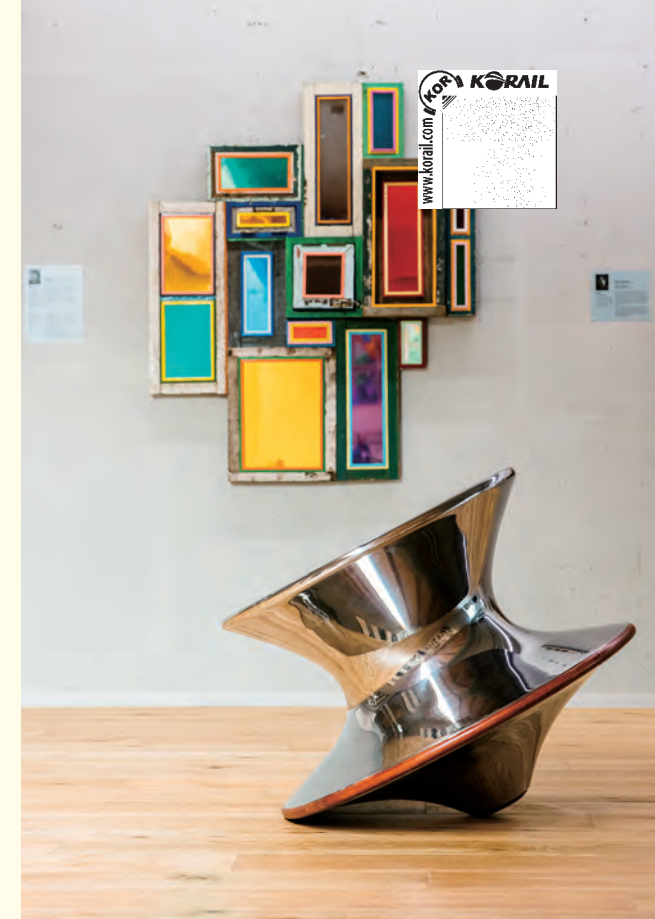
구하우스는 방 콘셉트에 맞게 작품을 선보인다. 거실은 밝은 주제의 예술품을, 다락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을 전시한다.

by garbage flowing down from the upper stream. The locals and environmental groups joined hands to collect garbage, and planted lotus to purify the polluted pond. Thanks to their dedicated efforts, Semiwon was reborn as a garden of flowers in 2004. The beautiful site is worth visiting even when it's not the lotus season.

As I head out of Semiwon, I see a group of cyclists looping around the lotus pond. I feel refreshed just by looking at their lit faces. It's definitely a good day for a ride.

Koo House, Where Art and Life Meet

The next bit of the course is a difficult uphill ride along Bukhangang River. It begins at Yangsuri, passes Koo House and Jungmisan Three-way Intersection, and ends near Yangpyeong Station. I join a group of cyclists led by Shin Hyeong-jin, who has been riding for several years. One by one, they set off at their own pace. We arrive at Koo House after riding for more than 30 minutes, but unlike me, everyone else is still looking energetic and refreshed. I ask Shin what made him fall for cycling. He replies, "You'll know once you try it. The feeling of the wind against your cheeks is simply indescribable." Entering Koo House with members of the cycling club feels like going over to a friend's place. Koo House, as its name suggests, has a homely atmosphere. Koo Jeong-sun, the director





요. 얼굴에 스치는 바람의 매력을.”

동호회원과 미술관으로 들어가니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기분이다. 구하우스는 명칭 그대로 집 같은 미술관이다. 아트 컬렉터 구정순 씨가 평생 수집한 미술품 500여 점과 디자인 오브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했다. 집을 콘셉트로 한 만큼 전시실을 10개의 방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에 맞춰 구성했다. 입구 옆 1번 방 ‘휴대품 보관소(Cloak Room)’에 헬멧을 맡기고 번호순으로 관람한다. 고객을 맞이하는 2번 방 ‘응접실(Front Room)’은 손님과 이야기를 풀어낼 소재가 가득하다. 앤디 워홀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감초사탕으로 만든 아버지의 옥스퍼드화인 ‘감초 구두(Licorice Shoes)’ 스쳐 지나면 모를 정도로 작은 민들레를 전시실에 피워 낸 토니 마텔리의 ‘잡초(Weed)’ 등 작품에 얽힌 스토리 하나하나가 풍성하다.

자고로 집의 중심은 거실. 5번 방은 천장에 난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스한 공간이다. 방에 들어서



자마자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회 사진(Pictures at an Exhibition)’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다른 시각에 여러 각도로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을 디지털 작업으로 결합해 한 장면에 담았다. 작품 앞에 놓인 의자에 앉는다. 창작물에 또 다른 시공간이 더해진다. 재밌는 사실은 화면에 작가도 있다는 것. 세기의 예술가와 함께 작품이 된다.

계단을 올라서 마주하는 6번 방과 7번 방에서는 현재 기획 전시 <Signed & Numbered Artworks-거

of Koo House and a noted collector, filled the house with a vast collection of 500 artworks and aesthetically designed objects. The ten rooms each serve as an exhibition hall. I leave my helmet at the cloak room, which is the first room next to the entrance, and begin my tour of the numbered rooms. The front room is a welcoming space that sparks interesting discussions. Each artwork has a story of its own: Licorice Shoes by Andy Yoder represents the artist’s childhood memories, while Weed by Tony Matelli symbolizes waste and life,

occupying an area so small that some might not even notice it. The fifth room is the living room, which is the main room of any house. Upon entering, my eyes fall on David Hockney’s Pictures at an Exhibition, a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eight sheets of paper. I sit on a chair in front of the work, and notice that one of the figures is the artist himself.

On the second floor, an exhibition titled Signed & Numbered Artworks is being held in the sixth and seventh rooms. In art, editions are made in batches, and are usually in the form of prints, sculptures, and photographs. The exhibition starts with Andy Warhol, who applied the concept of mass production to art.

**예술품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해야 한다는
구하우스의 철학이 공간에 녹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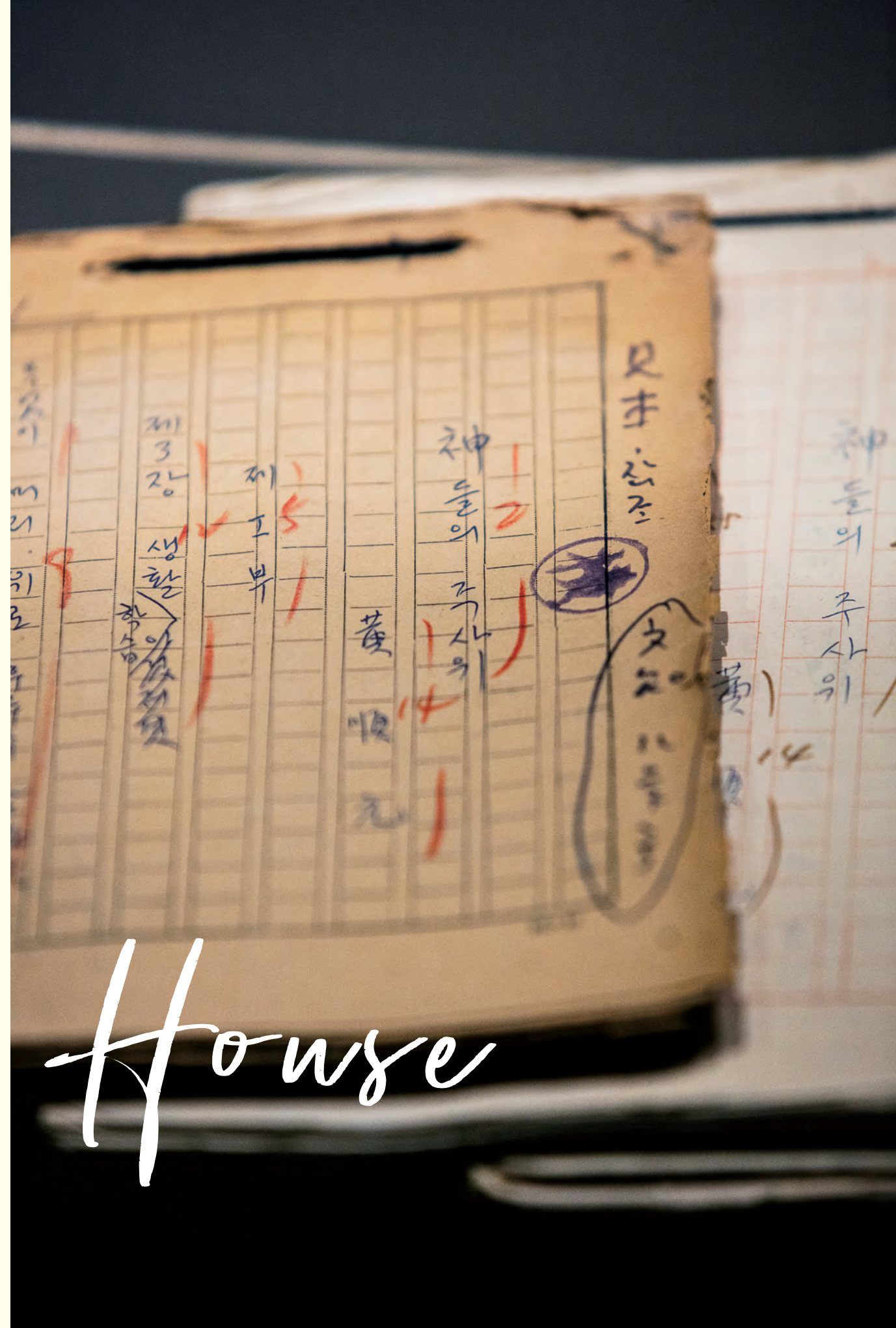


니키 드 생팔의 ‘엄마와 아이’, 조너선 보로프스키의 ‘서류 가방을 들고 날아가는 남자’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도 볼 수 있다.



극한 상황에도 인간의 존엄을
놓치지 않은 황순원은
문학사에 낭만적 휴머니스트로
기록된다.

Literary



Howse



장들의 에디션 작품>이 열리고 있다. 미술에서 에디션은 다수 제작한 작품이라는 뜻으로 판화, 조각, 사진이 대부분이다. 소수만 향유하던 작품 세계에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앤디 워홀이 전시의 막을 연다. 당시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던 캠벨 수프 통조림, 유명 배우 메릴린 먼로의 동일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이 친숙하다. 결혼식장의 이오니아식 기둥을 본뜬 최정화의 조각 '세기의 선물', 0부터 9까지 숫자에 각기 다른 색상을 부여해 탄생과 죽음을 암시한 로버트 인디애나의 팝아트 작품 등 20여 점을 만난다. 예술품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는 구하우스의 철학이 기획 전시에 녹아 '집들이'에 온 내내 즐겁다.

낭만적인 휴머니스트 황순원을 기리는 문학관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소설 '소나기'의 이 한 문장이 평안남도 대동이 고향인 황순원 작가의 문학관을 양평에 설립하게 했다. 구하우스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을 향해 자전거를 운전한다.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 길잡이다. 15분 정도 달리니 도착이다. 황순원문학관과 소나기 광장, 소나무가 우거진 수숫단 오솔길 등 야외 공간을 약 52만 900제곱미터(1만 6000여 평)부지에 조성했다. 1940년대 일제가 한글 말살 정책을 펼치자 고향 집에 틀어박혀 언제 발표할지 모를 소설을 고집스럽게 창작하던 작가의 순수한 문학 세계를 대표하는 '소나기'가 모티프다. 소나기 광장에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기억하듯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각마다 비가 내린다. 광장을 지나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수숫단을 형상화한 황순원문학관 내부로 들어간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문학관은 초판본 112권, 해외 번역본 40권 등을 간직하고 전시한다. 문의 031-773-4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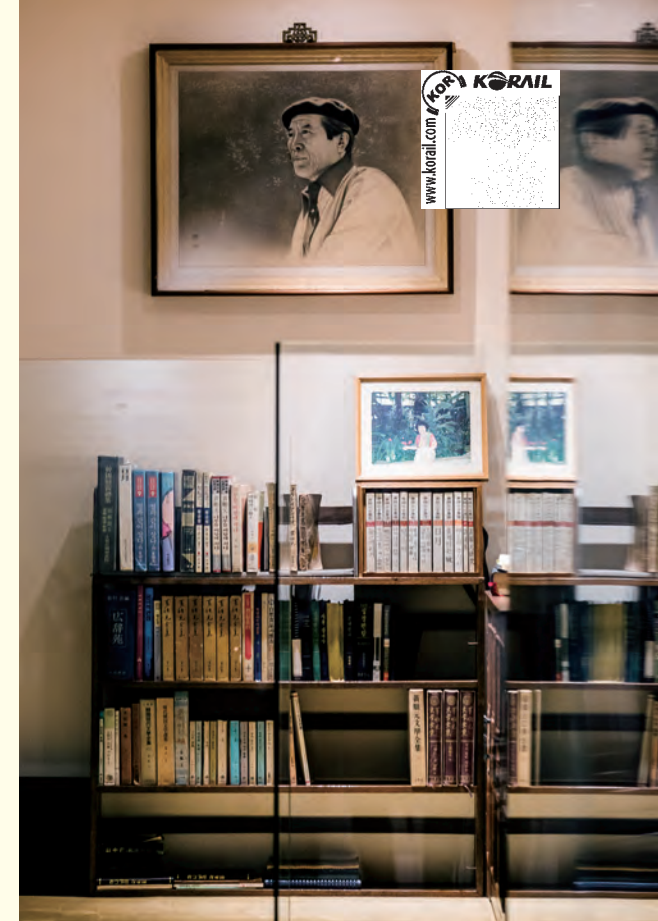


You can see familiar works like Campbell's Soup Cans, which shows canned soup varieties that Americans enjoyed eating, and Marilyn Diptych, a silkscreen painting of Marilyn Monroe. The 20 or so exhibits include Choi Jeong Hwa's The Present of Century, inspired by ionic columns in wedding halls, and Robert Indiana's Numbers 0-9, an installation of colorful numbers representing life and death. The core philosophy behind Koo House is that art is meant to be shared, not possessed. I find myself thoroughly enjoying this "housewarming."

The Legacy of Hwang Sun-won

“They say the girl’s family is moving to Yangpyeong the next day.” This sentence from the novel Rain Shower was what led to Hwang Sun-won Literary House being built in Yangpyeong. It is the same novel that served as the motif behind Sonagi Village in Hwang Sun-won Literary Village. The story was written in the 1940s, when the Japanese prohibited publishing in the Korean language. Hwang Sun-won Literary House is modeled after the small hut where the boy and girl in Rain Shower took shelter from the rain. Quotes from the book hang from the ceiling, creating the impression of falling drops of rain. The Literary House resonates with the spirit of Hwang Sun-won. The first exhibition hall showcases the author’s belongings, and gives visitors an opportunity

Course 2





제1전시실은 소장품과 유품을 통해 작가의 삶을 유추해 보는 전시관이다. 생전에 작품을 집필하던 방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선생의 문체처럼 간결한 성품을 읽고, 뽁뽁이 교정본 육필 원고에서는 치열한 작가 정신을 발견한다. 이제 작품을 체험한다. 제2전시실에서는 황순원의 대표작 중 명장면을 조형물로 시각화하거나 영상·음향 설비를 설치해 이해를 돕는다. 한국전쟁 이후 어린 시절 학을 사냥하며 어울리던 친구를 적으로 만나게 된 두 청년의 우정을 그린 소설 '학' 코너에선 음성이 흘러나와 재미난 옛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감동적인 '소나기'를 배경으로 꾸민 포토 존에선 주인공이 된 느낌이다.

시대를 직시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닥뜨린 인간의 정서를 섬세하게 파고든 황순원 선생의 작품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황순원문학관 바로 옆에는 별세한 황순원 선생과 그의 평생 벗인 양정길 여사를 함께 모신 묘역이 자리해 더욱 뜻깊다.



to reflect on his life. The recreated writing room reveals his simple character and modesty, and densely packed manuscripts reflect his meticulous, detail-oriented nature. The second exhibition hall enhances understanding of Hwang Sun-won's works by visualizing key scenes using sculptures or audiovisual media. In the Cranes section, dedicated to the story of the same title that captures the power of friendship between two childhood friends, a voice reads a passage from the book. Hwang Sun-won's works, known for their poignant and

engaging portrayal of human emotions, truly come alive in this space. The site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the tombs of Hwang Sun-won and his wife Yang Jeong-gil sit next to the Literary House.

따스한 봄날의 라이딩

해가 누엣누엣 지는 시각,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을 나선다. 워더라이더 동호회원이 다시 페달을 밟는다. 중미산자연휴양림 인근이라 오르락내리락 경사가 반복돼 숨이 가빠질지언정 노련한 라이더는 흥겹다. 중미산삼거리부터 양평 시내까지는 급내리막길로, 브레이크를 쥐는 손은 긴장해도 마지막으로 봄바람을 만끽하기 훌륭한 구간이다. 양평역이 가까워진다. 양평에서 자전거를 타고 봄날을 고볼고볼 누볐다. 다정하게 기억될 2021년 봄이다. ☑

Cycling on a Warm Spring Day

My tour of Sonagi Village ends around sunset. The members of the cycling club begin pedaling again. The course, located near Jungmisan Mountain Recreation Forest, is a stream of uphill and downhill. The challenge makes it more fulfilling for experienced riders. The steep descent from Jungmisan Three-way Intersection to downtown Yangpyeong is the best section to immerse yourself in spring.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양평역까지 50여 분이 걸린다.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면 25분, 경의중앙선을 타면 1시간 10여 분이 소요된다.

Cycling



양평의 또 다른 볼거리



서후리숲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숲을 거닌다. 약 33만 제곱미터(10만 평) 부지에 10여 년간 가꾼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의 숲을 표방해 인위적인 길은 최소화했다. 숲은 수종에 따라 잣나무 숲, 단풍나무 숲, 메타세콰이아 숲, 자작나무 숲 등으로 구분했는데, 산책 코스는 두 가지다. 출구가 하얀 나무가 이국적인 자작나무 숲을 들르는 A코스과 사시사철 푸른 풍광을 자랑하는 잣나무 숲을 지나는 B코스. 각각 1시간, 30분이 걸린다. 문의 031-774-2387



구둔역

기차는 달리지 않아도 간이역 역사는 계속 흐른다. 2012년 청량리~원주 구간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폐역이 된 구둔역은 1940년경 세운 역으로, 당시 건축재를 그대로 간직한 등록문화재 제296호다. 박공 형태의 뾰족한 갈색 지붕과 예스러운 현판, 이정표가 그대로 남아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자주 등장해 많은 여행객이 방문한다. 수령 500년 된 역 앞 나무에는 소원을 적은 카드가 매달려 풍경이 더욱 멋스럽다. 문의 031-770-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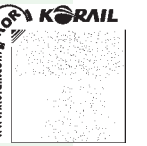


용문산관광지

양평의 진산이자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용문산이 멀리서도 웅장한 산세를 자랑한다. 197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용문산관광지는 용문산 아래 용문사,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산지구전적비 등을 아우른다. 신라 시대에 창건한 천년 고찰 용문사의 자랑은 수령 1100~1300년으로 추정하는 아름다리 은행나무. 봄과 가을이면 이곳에서 은행나무를 위한 제사를 크게 지낼 정도로 양평 주민들의 애정이 각별하다. 문의 031-773-0088

정근필양 ©

양평의 맛있는 먹거리



두물머리밥상

두물머리 경치를 눈에 담으며 식사하니 밥이 꿀맛이다. 풍경뿐 아니라 음식도 훌륭하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여기며 음식 준비하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고춧가루, 마늘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유기농 쌈 채소를 제공한다. 특히 매일 새벽 강원도 콩으로만 만든 순두부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이 찾는 것을 고려해 제육볶음 양념 베이스를 고추장에서 간장으로 바꿨더니 두루두루 세심한 맛집이다. 문의 031-774-6022



옥천전통냉면

자전거 라이더가 양평에 들르면 꼭 먹고 가는 냉면을 25년 넘게 만들어 온 집이다. 냉면 맛을 좌우하는 육수는 돼지고기를 푹 고아 진하고 향이 은은하게 감돈다. 밀가루와 전분에 메밀가루를 그날그날 적정 비율로 배합해 뽑는 면은 굵으면서도 쫄깃해 식감이 좋다. 여기에 이 집의 별미인 편육무침을 곁들여 보자. 주문과 동시에 삶은 돼지고기와 오이, 양념장을 넣고 무쳐 감칠맛이 일품이다. 문의 031-772-5614



콩리

‘콩’과 도토‘리’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30년 가까이 선보인다. 직접 농사짓는 땅에서 수확한 콩, 배추, 무, 시래기 등으로 만든 메뉴다. 두부는 매일 아침, 도토리묵은 전날 밤에 만들어 12시간가량 식혀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 남는다. 모든 요리는 주재료 맛을 돋우는 데 우선 순위를 둔다. 목탕국은 과일, 채소 등 서른 가지 재료를 6시간 정도 우린 후 살짝 열린 채수가맛의 비결. 탱글탱글한 묵의 식감을 살린다. 문의 031-771-7562



따스한 정이 깃든 여행자의 방

경기도 양평·가평에서 저마다 고유한 매력을 지닌 숙소를 찾았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한국관광 품질인증 KOREA QUALITY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KOREA QUALITY



한국관광 품질인증

나눔의 미학이 만개한 숙소 한옥마을황토편선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낮은 돌담 너머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음악에 이끌려 문짝이 없는 솟을대문을 지난다. 깜깜한 밤에도 착했기에 문이 굳게 닫혀 있을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당황스럽다. 어스름이 나온 박영희 대표가 오느라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아 준다. 안과 밖을 경계 짓지 않는 '한옥마을황토편선'은 타인도 가족처럼 여기는 주인장을 닮았다. 오늘 묵는 방 이름은 귀빈. 극진한 이치럼 손님을 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은 이름이다. 침실에 별도로 주방을 갖춘 방이 널찍하다. 한옥을 전통 건축양식으로 짓되 현대 시설을 접목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침이 밝자 한옥마을황토편선은 또 다른 자태를 자랑한다. 정성껏 가꾼 정원과 2층 한옥이 어우러져 근사하다. 15년 전 박영희 대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이곳에 내려왔다가 맑은 공기와 물 덕분인지 치유돼 건강을 되찾았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 문을 연 한옥 펜션이니 손님도 주인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숙소다.

INFORMATION

주소 양평군 강하면 전의1길 43-6 문의 010-9081-5411
홈페이지 www.hanok54.co.kr
주변 여행지 남한강 곁에 자리한 들꽃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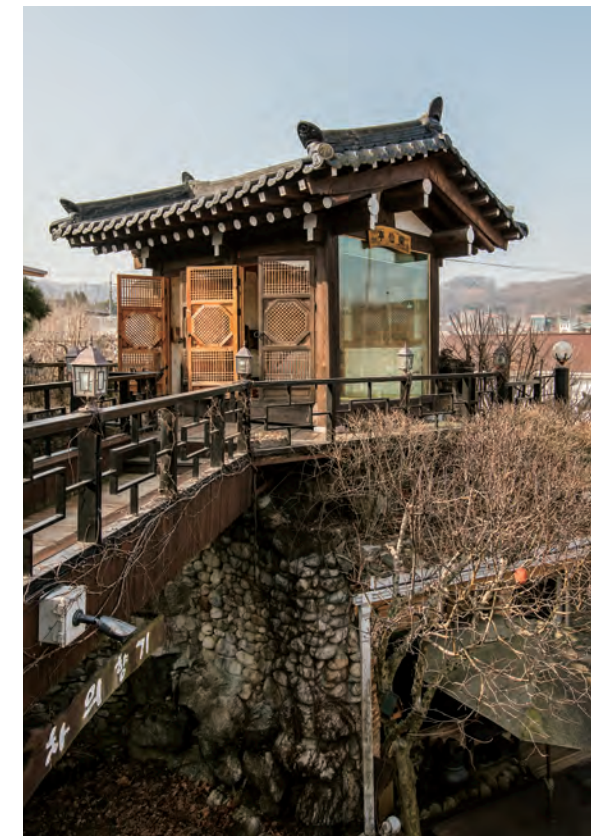


숙소의 보물 1호



2층 정자 낙선정

전면에 난 창으로 들어오는 전원 풍경이 번잡한 마음을 다독인다. 신선이 노닐 만큼 아름다워 낙선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함께한 이와 차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용문산 자락에서 누리는 온전한 휴식 블루힐펜션

용문산 중턱 파란 하늘과 맞닿은 '블루힐펜션'이 멀리서도 웅장하다. 숙소에도착해 경치를 내려다보니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남한강까지 눈에 잡힌다. 서울에서 차로 50분 거리의 가까운 위치인데 마치 먼 곳으로 여행 온 기분이다. 금융업계에 몸담았던 부부는 2015년 정년퇴직하고 평상시 쉬기 위해 자주 찾던 용문산 자락에 정착하며 펜션을 지었다. 평생 서비스업에 종사한 부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터라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다. 숙소 곳곳엔 그들의 배려가 녹아 있다. 묵는 이가 멋진 경치를 보며 일어나기 바라, 건물 전면에 창을 내어느 객실에 들어서도 전망이 멋지다. 청결하게 관리해 보송보송한 침구류는 기본,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만큼 주방에는 그릇과 식기를 충분히 구비해 놓고, 실내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가 설치된 테이블을 비치했다. 무엇보다 이곳의 자랑은 온수 수영장. 아이가 재미나게 노는 모습에 보호자도 흐뭇하다. 온 가족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숙소다.

INFORMATION

주소 양평군 양평읍 백안3리길 138 문의 031-772-7702

홈페이지 www.blue-hill.kr

주변 여행지 잘 놀고 쉬자는 취지로 용문산 중턱에 조성한 쉬자파크

숙소의 보물 1호



객실마다 갖춘 저쿠지

수영하고 온 아이가 숙소에 돌아와서도 계속 물놀이를 한다. 객실 내 욕실마다 설치한 저쿠지는 두세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한 정도로 크고, 보글보글 물방울이 온몸을 마사지해 피로가 싹 풀린다.





산천과 예술이 녹아든 한옥 취옹예술관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공간에서 쉬어 간다. 약 6600제곱미터(2000평) 부지에 세운 '취옹예술관'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한 숙소 수향헌이 정갈한 모습을 드러낸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그 계절에 피어나는 매화, 난초 등으로 지은 방 이름이 다정하다. 어떤 방은 문이 활짝 열렸다. 손님이 머물다간 방은 다음 날 깨끗이 치운 후 맞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도록 온종일 열어 둔다. 방에 들어서니 자연 염색한 빛 고운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다. 혹시나 손님이 오기 전 바닥이 식을까 펼쳐 놓았던단다.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따스하다. 객실에는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일부러 두지 않았다. 낮에는 창호 너머 풍경을, 밤에는 까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라고. 이곳에서는 편안한 숙소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황토, 강황 등 자연 재료로 천을 물들이는 염색, 실과 비늘로 수를 놓아 브로치를 만드는 규방 공예 등 전통 체험과 주인장이 수집한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감상까지. 자연과 예술에 취하는 한옥 스테이다.

INFORMATION

주소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00
문의 031-585-8649 홈페이지 www.chi-ong.co.kr
주변 여행지 한국식 정원을 표방해 조성한 아침고요수목원



숙소의 보물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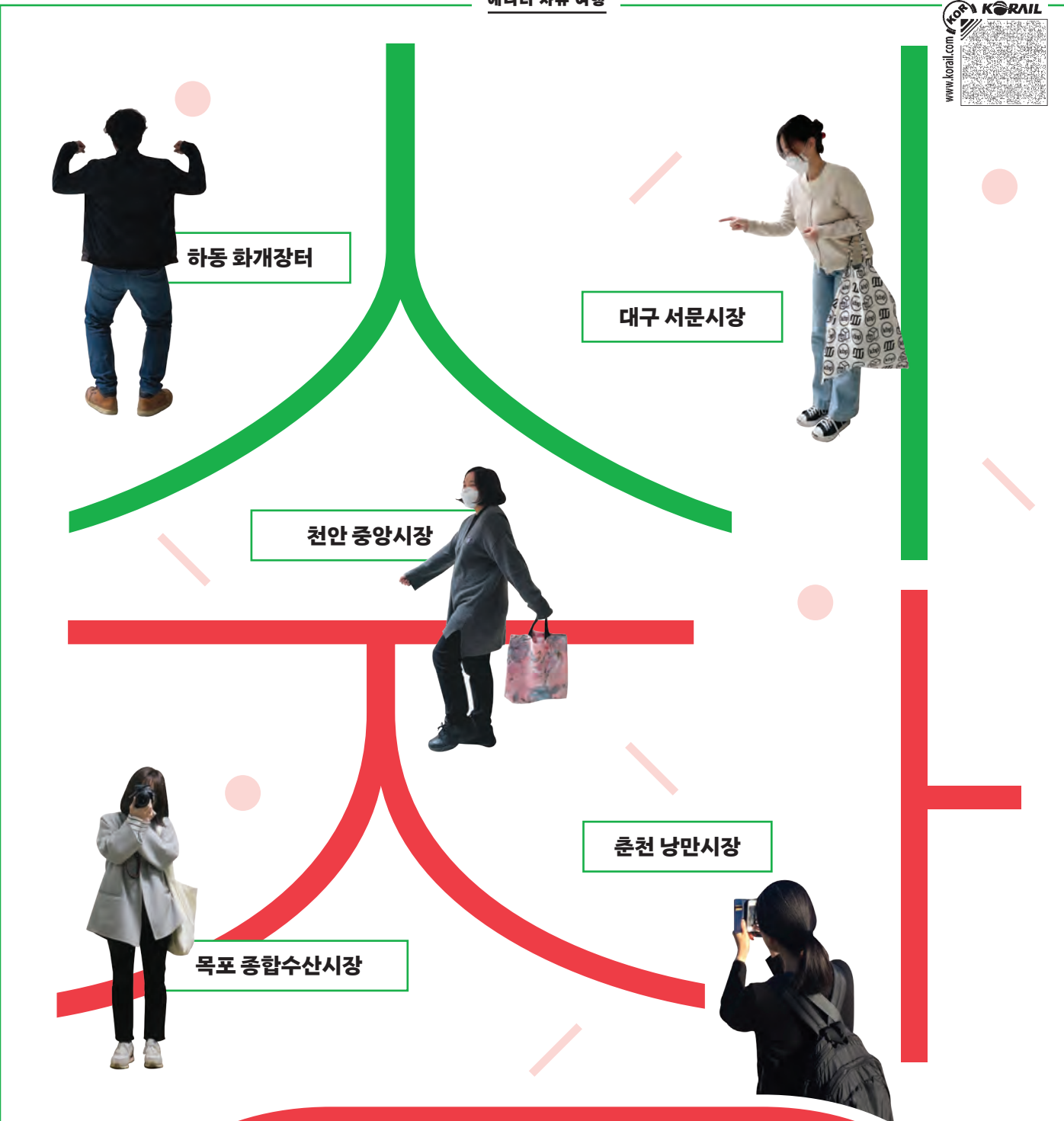
별서 취옹산방의 편액

추사 김정희가 남긴 '신안구가(新安舊家)' 글자를 양각했다. 주자 성리학의 전통을 이어 온 집이라는 뜻의 편액은 성리학 시조인 송나라 주희가 신안 사람인 데서 착안한 것이다.





© 신구정



시장은 재밌다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만두도 있고 이야기도 있다.
매거진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다섯 에디터가 기차 타고 전국 전통시장 다섯 곳을 누볐다.

글·사진. 편집부

춘천 낭만시장

글·사진. 김현정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42-18
문의 033-254-2558



정과 낭만이 오가는 시장

춘천역 앞에는 50여 년간 미군 기지인 캠프 페이지가 있었다. 부대에서 나온 물건을 취급하는 '양키시장'이 1950년대 초반에 생겼고, 1960년 상인들이 현재의 부지를 매입해 중앙시장이라 이름했다. 요즘은 춘천과 어울리는 단어를 붙여 '낭만시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곳곳을 누비는 동안 상인과 손님이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한복을 짓거나 옷을 수선하는 이의 손길에서는 장인 정신이 느껴졌고, 어느 좌판과 미용실은 사랑방인 양 도란도란해 미소를 자아냈다. 거기에 끼여 고로쇠 수액도 얻어 마셨다. 달콤했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1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왕십리·청량리역 등에도 정차한다.



구석구석 깜짝 재미

춘천은 애니메이션 도시.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답게 낭만시장은 미로 같은 골목과 점포 벽을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단장해 놓았다. 예상치 못한 데서 벽화와 조각 작품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심지어 벽화로 연재만화를 그린 위엄! (그래서 미니는 어디 있나요?) 시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앞에서는 마음이 쩡해 한참 머물렀다. 해당 간판 가게를 찾아가니 상인의 표정은 여전히 푸근한데 다만 세월이 흘렀다.



재치 있는 간판

시장 한 구역은 간판 모양을 통일해 달았다. 1960년, 1967년 등 가계가 문 연 해를 표기하고 가게 이름과 함께 이곳을 상징하는 그림도 넣었다. 닭집 간판에는 귀여운 닭을, 건어물집 간판에는 자전거 배달을 다니는 주인 모습을 그리는 식이다. 나무리는 아래 쪽 멘트. "인품 좋은 아저씨와 인성 좋은 아줌마가 모였다." 네네, 춘천에 와서 인품·인성 좋은 분을 봐서 기쁘네요. 이런 분이 고른 식재료라니,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상인의 내공과 실력

190여 점포 규모의 낭만시장 상인 평균 업력은 30여 년에 이른다. 그만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가게가 즐비하다. 1975년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이전 자리에서 아버지 때부터 한 경력을 합하면 60년간 기름을 찌대는 집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만큼 기름 잘하는 집이 없어요." 주인의 자부심이 손님에게 믿음을 준다. 고기 내장도 이 시장의 명물. 현란한 손놀림의 칼질에 휘둥그레~ 소름사사가 따로 없다.



에디터의 '내른내산' 잇 아이템

색색이 예쁜 달걀

다양한 색깔의 달걀을 보고 깜~했다. 색칠한 인테리어용품인 줄 알았더니, 귀촌한 사장님이 마당에 풀어 기른 여러 가지 품종의 닭이 낳은 진짜 달걀이다. 예뻐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시장을 나와 몇 걸음 올라가면 맛집과 소품 가게가 즐비한 육림고개다. 고개 이름이 된 옛 극장은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간판이 남아 있다.

시장 바로 뒤 건물이 제일종합시장이자. 의류부터 도자 작가의 작품 등 생활 소품까지 깔끔하게 진열해 쇼핑하기 편리하다.



그림책 <구름빵>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고향은 춘천. 낭만시장 앞에 세운 <구름빵> 주인공들 형상이 친근하다.



하동 화개장터

글·사진. 김규보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5
문의 055-883-5722



산과 바다의 산물이 모이는 곳

서쪽의 전라도와 동쪽의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자, 남쪽에서 섬진강을 타고 오르는 배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북쪽. 무슨 말을 보태랴. 과거에 '화개장터'는 지리산을 비롯한 내륙과 강, 바다의 물산이 모이는 중심이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장터로 번성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5일마다 장이 서던 것을 상설로 변경하고 시설을 정비해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섬진강을 곁에 둔 장터에서 지리산 약재, 하동 재첩 같은 특산물을 전라와 경상도 말로 흥정하는 사람들. 화개장터는 여전히 활기차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순천역을 거쳐 하동에 갈 수 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순천역까지 2시간 40여 분, 순천역에서 하동역까지 무궁화호로 30여 분이 걸린다.

맛과 건강을 모두, 송이버섯

장터 한편에 밀집한 송이버섯 가게가 향내를 전한다. 향이 좋아 멈춰서다가 잘 부른 버섯이 탐스러워 가게로 돌진. 화개장터 송이 가게는 각각 자체 개발한 버섯 품종을 판매한다. 사장님이 먹어 보라며 하나를 건넨다. 씹을수록 짙어지는 고소함이 입안을 촉촉하게 적신다. 향암 효과가 빼어나다는 설명을 듣는 동안 아껴 씹고 소중히 삼켰다.

시장 구경의 또 다른 즐거움, 하동 차

화개장터로 향하는 섬진강 변에서 약양 들판과 화개골의 빼곡한 차밭을 봤다. 하동은 차의 고장. 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쌍계명차 박물관을 방문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28호인 김동근 대표가 복원한 전통 우전차를 마시고 다구를 구경했다. 2017년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금상을 수상한 건물을 감상하는 것도 즐거웠다.

지리산이 기른 귀한 약재

이렇게 많은 약재는 처음 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산당귀, 천궁, 우슬, 황기... 화개장터의 많은 가게가 약재를 취급하는데, 생김새와 이름을 맞대고 외우고 들여다보는 재미가 대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터를 순회했다. 거의 모든 약재가 지리산 등 국내에서 나는 것이어서 마음 놓고 구매해도 되겠다. 사장님들이 정말 친절하셔서 더 감동.

화개장터 플래그십 스토어

장터 입구 옆에 모던한 카페 분위기의 공간이 자리한다. 호기심이 일어 들어가니 약재, 차, 밤 같은 하동 특산물과 화개장터 상품이 진열대에 가득하다. 하동군이 검증한 우수 상품을 파는 공간으로 지난 2월에 문을 열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하지만,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제와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에디터의 '내돈내산' 잇 아이템



웅기 머그잔과 쌍계명차 지리산 들배차

예쁜 웅기 제품 파는 가게를 지나치기 힘들어 그중에서도 가장 예쁜 머그잔을 골랐다. 쌍계명차 박물관에선 모자를 포함한 지리산 들배차를 고심 끝에 선택. 머그잔은 찻잔으로 좀 크지만 차가 맛있으니까 많이 담아서 여유롭게 마실 수 있겠다.



목포종합수산물시장

글·사진·이내경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267번길 6
문의 061-245-5096



명맥 깊은 어시장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이곳은 목포항 덕분에 번성한 시장이다. 1897년 항구가 개항하자 목포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은 배들이 모여들었고, 1908년에는 항에서 삼학도까지 가는 배 위에 매일 시장이 열렸다. 이후 파시는 지금의 시장 자리로 위치를 옮기면서 동명동어시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2005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치며 '목포종합수산물시장'으로 개칭하고 시장 통로를 1~3라인과 젓갈 골목으로 구분했다. 한자리에서 30년을 지켜 온 상인이 대부분으로, 부모 뒤를 이어 장사하는 상인도 많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목포역까지 KTX를 타고 2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ITX-새마을, 무궁화호도 다닌다.



주인공은 나야나!

목포종합수산물시장 하면 홍어가 떠오르고, 홍어 하면 목포종합수산물시장이 떠오를 만큼 홍어가 유명하다. 이곳에서 국내 홍어 유통량의 80퍼센트를 취급하니 시장에는 당연히 홍어 상점이 가장 많다. 홍어는 단맛이 있고 차진 흑산도산이 최상품으로, 바코드를 부착해 구별한다. 홍어 상점마다 연신 포를 떠 택배 상자에 담은 모습은 다른 시장에서 보기 힘든 광경. 어디서든 싱싱한 홍어를 주문한 다음 날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2년 숙성은 기본

상점 앞에 드럼통만 쪽 늘어난 모습에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주위를 살폈다. 목포종합수산물시장에서 젓갈 골목은 가장 오른쪽 라인. 드럼통 안에는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 갈치젓 등 젓갈이 가득가득 담겼다. 규모가 큰 상점엔 숙성실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에서 숙성하기도 한다. 상점마다 노하우는 다르나 보통 2년 정도 숙성해야 맛이 든다 판단한다고. 손님이 가장 많이 사가는 젓갈은 추자도 멸치젓과 새우젓.



시장의 또 다른 명물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다 있다. 조기, 멍갈치, 건어물도 인기 스타. 커다란 그물망에 조기를 열 맞춰 정렬하는 상인의 손길이 분주하다. 조기를 따스한 햇볕에 말릴 참이다. 조기는 봄이면 육질이 탄탄하고 알이 차기 시작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다. 회갈색을 띠는 길이 30센티미터에 달하는 먹음직스러운 멍갈치도 목포 특산물. 고소하고 아들아들한 맛이 특징이다.



추자도 멸치젓

목포는 제주 추자도에서 잡은 멸치를 가져와 젓갈을 담그지만, 제주도는 식재료가 바로바로 소진되어 숙성한 멸치젓이 귀하다. 추자도 멸치를 목포에서 젓갈로 담가 제주에 판매한다는 재미난 사실.

천안중앙시장

글·사진. 진주영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로 7
문의 041-555-1136



오랜 역사에 안주하지 않는 시장

1918년 개장한 이래 주변 도시에서도 찾아볼 만큼 번성했던 천안 남산중앙시장이 2018년 새롭게 출발했다. 인근 천일시장, 중앙시장과 통합해 '천안중앙시장'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400여 개 점포가 모인 이곳은 천안에서 가장 큰 상설 시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모바일 앱 '장바요'로 주문하면 2시간 이내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점포 앞에 배달 상자가 종종 보이는 이유다.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난다. 게다가 소문난 먹거리도 많아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ITX-새마을을 타고 약 1시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할 경우 천안아산역에서 내린다.



오감이 만족스러운 시장 탐방

남문에 자리한 호떡 노점이 인파로 북적인다. 신명 나는 트로트 가요에 맞춰 춤추듯 호떡을 구워 내는 몸짓이 경쾌하다. 저렴한 가격도 흥을 돋운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 호떡 세 개를 내어 준다. 단단히 사수하려던 지갑이 스르륵 열리고 만다. 달콤한 호떡 맛에 정신 줄을 부여잡고 안으로 들어간다. 과일, 채소, 생선 등 식재료는 물론 신발, 의류, 화장품까지 품목이 다양하다. 그중 딱 봐도 실한 호두가 눈에 들어온다. 천안 광덕호두가 유명한 이유를 궁금해하던 찰나, "한국에서 제일 먼저 재배한 곳이 천안"이라는 상인의 설명이 들린다. 본고장의 맛을 보는 건 인지상정. 호두를 한 아름 안고 탐방을 이어간다. 두부, 강정, 참기름, 즈 등 온갖 음식을 똑딱 만드는 상인들의 움직임에 감탄만 나온다. 어느새 장바구니가 불룩하다.

못난이 파배기

전통시장에 갔다면 파배기 시식은 필수다. '국룰'이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곳 '못난이 파배기'는 짙고 넘어가야 한다. 2013년 노점으로 시작한 가게가 입소문을 타 번듯한 건물을 올리고, 수십 개 지점을 낸 맛집으로 성장했다. 쫄깃함이 일품인 찹쌀 파배기와 찹쌀 팔도넛은 물론이고 유자, 고구마, 크림치즈 앙금을 넣은 파배기도 인기다.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건강까지 챙겨 준다. 식혜를 곁들여도 좋겠다.



쪽문만두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두 가게 사이에 숨어 있는 나무 쪽문을 열고 들어선다. 분홍색 매트로 감싼 테이블, 그 위에 놓인 양은 주전자가 없는 향수도 불려일으킨다. 1965년부터 영업을 한 노포다운 풍경이다. 주전자에 담긴 보리차로 목을 축이고, 즉석에서 빚은 만두를 맛본다. 심심한 만두를 튀기면 어떨까? 군만두도 시켜 보자. 석유 화로로 달군 프라이팬에서 알맞게 구워 낸다. 타닥타닥, 소리마저 맛있다.

중앙시장 48호 와플

고소한 와플 냄새에 발걸음을 멈춘다. 생크림, 누텔라 바나나, 누텔라 딸기, 아이스크림 등 종류도 화려하다. 고심 끝에 사과잼, 버터크림, 초코크런키로 맛을 낸 오리지널 와플을 골랐다. 한 입 먹자마자 감격했다. 분명 익숙한 맛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발걸음을 옮기기 쉽지가 않다. 하, 미련 가득한 발 때문에 별수 없이 콘치즈 와플도 추가로 주문했다. 역시, 와플은 사랑입니다. 다음엔 콘 피자 와플 먹을래요.



에디터의 '내돈내산' 잇 아이템



수제 생강 원액

샛노란 수제 생강 원액이 시장 골목을 빛낸다. 커다란 바구니를 가득 채운 생강을 툭툭 손질하는 주인장에게서 내공이 느껴진다. 100퍼센트 국내산 생강을 가게에서 직접 찌다니 구매할 수밖에.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손뜨개 모자·카디건·가방이 눈길을 끄는 수예 가게에선 다양한 뜨개 수업을 진행한다. 저 같은 '똥손'도 열심히 배우면 멋진 작품을 완성하겠지요?

대구 서문시장

글·사진. 표다정

주소 대구시 중구 달성로 50
문의 053-256-6341



대구 서문시장으로 오이소

시장 크기만큼 역사가 깊은 '서문시장'은 조선 중기에 형성되었다. 그 시절 이름은 대구장.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로 손꼽혔다. 일제강점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의 장소로 이전했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된 역사도 어느덧 100년을 바라본다. 2015년 대구 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면서 서문시장 가기가 훨씬 편해졌다. 서문시장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은 장바구니를 든 사람이 가득하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야시장도 선다. "무아~호~" 야시장이 열려 그만큼 기쁘다는 뜻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 KTX를 타고 1시간 50여 분이 걸린다. 대구역은 서울역에서 ITX-새마을을 타고 3시간 20여 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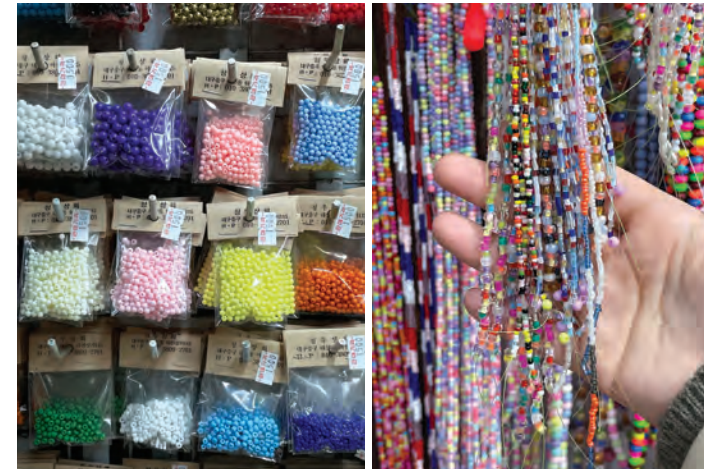
이토록 다채로운 먹거리 "뭐 주꼬?"

시장에 가서 사야 할 물건은 안 사고 음식부터 먹는 사람, 바로 접니다. 서문시장은 큰 골목마다 먹거리가 워낙 다채로워 장 보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하다. 납작만두, 빨간 어묵, 칼국수, 크로플... 저 그냥 다 먹을래요. 메뉴판 옆에 적힌 '재연이분식' '엄마수제비' '여보국수' 같은 상호가 정겹다. 현기증이 나서 최대한 가까운 칼국수집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 때도 방문했던 곳! 추억이 방울방울.



2지구종합상가 "무슨 천 찾으시는데?"

서문시장은 의류를 취급하는 건물만 네 동이다. 그중 1지구는 전통 한복과 침구류를, 2지구는 여성복과 남성복, 원단을 취급한다. 2지구의 3층과 4층은 원단 시장으로 작게는 3제곱미터(1평)부터 13제곱미터(4평) 크기의 가게가 복잡복잡하게 붙어 있다. 리넨, 방수 천, 레이스 등 원하는 소재를 구매해 지하 1층으로 향하자. 솜씨 좋은 수선집 사장님이 에코백, 돗자리, 파우치, 베개 커버 등을 만들어 준다.



아진상가 단추·부속 골목 "어디에 쓸라꼬예?"

눈 깜짝하면 지나치는 작은 골목이다. 옷 만들 때 사용할 단추, 지퍼 등 부자재가 가득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필수템이 되자 마스크 스트랩도 등장했다. 이 골목 매대에도 마스크 스트랩이 잘 보이는 상단에 비치되어 있다. 사장님께 스트랩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낚시줄과 고리를 서비스로 주셨다!❤️ 덤으로 낚시줄과 고리를 연결한 부분은 접착제로 굳혀야 한다는 꿀팁까지.



에디터의 '내돈내산' 잇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

1000여 가지 비즈 속에서 눈에 들어온 영롱한 하늘색과 흰색 원석. 낚시줄에 원석을 꿰어 10여 분 만에 완성했다. 여러분, 저 손재주가 좀 있는 듯해요. 스트랩 필요한 사람은 손! 만들어 줄게요.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



도안 패턴과 원단, 설명서로 이루어진 DIY 키트만 있으면 옷 한 벌을 똑딱 만들 수 있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이 있어 방문하기 편리하다.

서문시장 명물 납작만두는 한 장씩 구워야 한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떡볶이, 쫄면과 특히 잘 어울린다.



꽃피는 4월에는 여기

민고 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100선' 중 봄날에 걷기 좋은 여행지를 엄선했다.

글. 표다정

인천_개항장문화지구&차이나타운

질은 빨간색과 반짝이는 금색의 조화, 화려한 장식이 이국적인 곳, 인천 개항장문화지구다.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하자 많은 외국인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들어왔다. 색다른 정취가 여전한 거리는 1911년에 개업한 짜장면집이 짜장면박물관으로, 옛 일본은행이 전시관과 박물관으로 탈바꿈해 여행자를 맞이한다. 좌판에서 구워 내는 홍두병, 공갈빵 같은 간식도 놓치지 말 것. 문의 032-760-6475

신안_퍼들섬

보랏빛으로 물든 전남 신안으로 향하자. 안좌도와 박지도, 박지도와 반월도를 잇는 다리부터 마을의 지붕, 창고 벽, 공중전화 부스, 장독대까지 온통 보라색이다. 늦은 봄에는 라벤더가 섬 곳곳의 들판을 보랏빛으로 수놓는다. 박지도와 반월도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니 자전거로 섬을 둘러봐도 좋겠다. 보라색 의류나 가방, 액세서리를 소지한 여행객은 무료로 입장한다. 문의 061-261-6004

합천_황매산군립공원

눈길 닿는 곳마다 꽃이 가득한데, 굳이 해발 1113미터까지 올라가야 할까? 그렇다, 가야 한다. 황매산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장관이기 때문이다. 능선을 걷다 마주한 자주색 철쭉, 우거진 녹음, 파란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감탄스러운 풍경을 이룬다. 철쭉 군락지 초입까지 찾길이나 있어 접근하기도 편하다. 군립공원 내에는 황매산수목원, 황매평원, 하늘계단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문의 055-930-4758

세종_세종호수공원

100만 제곱미터(약 30만 평) 규모의 한국 최대 호수공원이다. 언제 다 둘러볼까 싶지만 물속에 두 발을 담그고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섬,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습지섬을 포함한 다섯 개 테마 섬과 8.8킬로미터의 산책로, 4.7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누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하루에 다섯 번 분수 쇼가 펼쳐지고, 호수 중앙의 세호교와 수상무대섬 일대는 밤 11시까지 조명을 밝힌다. 문의 044-301-3921



© 신규철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코앞이다!

1Hour 영주

서울에서 영주까지 1시간대 도착!

KTX는 영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의지를 이어 더 빠른 교통은 물론 도시성장, 문화융성, 수익증대, 산업발전, 생활향상에 이르기까지 더 큰 미래로 달려가는 혁신의 첫 단추입니다.



서울에서 영주까지 코...앞?



가슴을 두드리는 산과 강 이야기, 영월

백두대간 자락이 수려한 풍경을 펼치는 강원도 영월을 이용일 영상감독과 여행했다.
단종과 젊은달와이파크가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QR코드를 스캔하면
 청령포와 장릉,
 젊은달와이파크 풍경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잠든 영월장릉 앞에서 영월이 두터운 풍경을
 가마득한 능선으로 늘어놓는다.
 하늘에선 비가 떨어져 가문 생명을 축여 준다.
 영월이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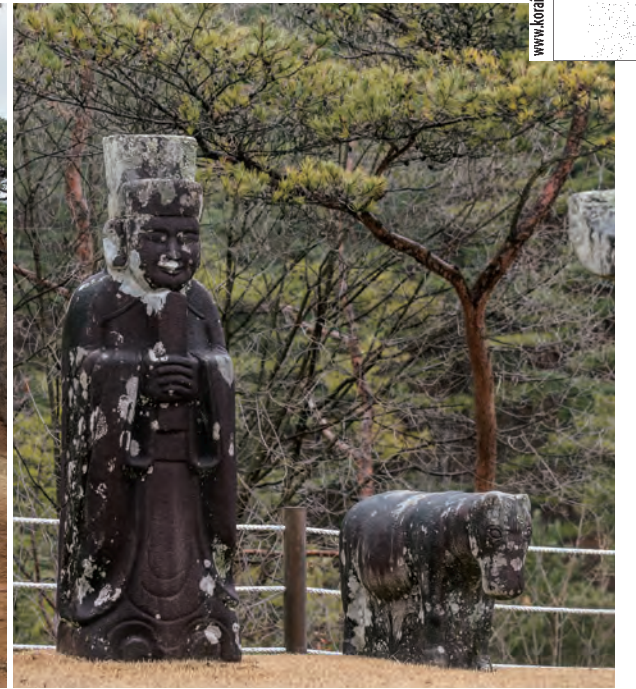
점점한 산의 모퉁이를 돌면 다시 산이었다. 굽이가 긴 강은 수립 너머에서 모습을 감추곤 했다. 산허리를 휘감은 길이 몇 겹의 능선과 비탈진 자락의 멀고 가까운 풍경을 머금고 있었다. 이따금 마주한 모래톱이 고왔고 하늘은 모든 데서 낮게 흘렀다. 울창한 땅에 둘러싸인 우리는 나아가는 동안에도 머무르는 듯 천천히 바라보았다. 빗살에 닿아 파편으로 부서지는 산과 강의 잔영이 마음에 들어왔다. 가야 할 곳이 아득해도 다가올 장면은 환해졌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길 또한 이제까지의 길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 땅은 언제나 지금과 같으리라는 걸, 보이는 전부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영월은 너르고 두텁다. 동해와 나란히 내려온 백두대간이 지리산 쪽으로 방향을 틀며 몇 겹의 능선처럼 웅대하고 강굽이처럼 수려한 산수를 펼친다. 이다지 깊은 영월에는 어린 이야기도 그만한 깊이를 품는다.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을 두드리는 감상이 곳곳에서 여행자를 기다린다. 단종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다.

서러운 왕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 지 2년인 1457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들었다. 험준한 산과 서강이 사방을 에워싼 청령포가 유배지였다. 인간의 역사에서, 왕은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운명은 얼마나 많은 비극을 불러왔는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사육신을 잔인하게 죽인 숙부에게 내몰려 영월로 와 청령포를 밟았을 때, 단종은 겨우 열일곱이었다. 열두 살에 등극한 이후, 권력을 탐하는 무리의 획책에 휘둘리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세월이 서러운 끝을 향해 저물어 갔다. 배로 2분 남짓, 서강이 길이라면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건너 청령포에 도착했다. 여정을 함께한 이용일 영상감독이 맞은편으로 돌아가는 배를 응시한다. 국내외에서 많은 여행 영상을 제작한 덕분에 영월도 술하게 방문했으나 청령포는 처음. 늘 밝고 유쾌해 주위를 웃게 하던 그가 여기에선 계속 뒷모습만 내비치고 있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역까지 2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영월장릉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무덤이다. 영월로 유배를 와 결국 죽임을 당한 단종의 버려진 옥체를 영월호장 엄홍도가 수습해 매장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이 함께 자리한다. 문의 033-374-4215

유폐된 왕의 애달픈 풍경

배가 떠났고 우리는 고립되었다. 자연에 가로막혀 나갈 방도를 찾는 일이 무의미한 청령포 언저리에서 산들바람을 맞는다. 자갈밭을 지나자 소나무 수백 그루가 놓인 길이 푸른 시야를 열어 준다. 아름답다. 고요하고 포근하다. 그래서 청령포는 슬프다. 단종은 이곳에서 두 달을 살았다. 그가 머문 집을 복원한 단종어소, 걸터앉아 울곤 했다는 관음송, 시름에 잠겨 한양 방향을 바라본 곳인 노산대,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가 그리워 쌓았다는 돌탑이 산들바람과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다. 왕이기 전에 인간이며, 생이 갓 영글기 시작한 청년이던 단종의 자취를 하나하나 살핀다. 유폐된 이의 흔적이 애달프건만 청령포는 평온하다. 서강을 건넌 것처럼 564년을 건너가 외로운 소년에게 말을 건넨다. 안녕히, 부디 평안하시길. 단종은 청령포가 홍수로 물에 잠기자 관아 객사인 관

풍헌으로 유배지를 옮긴다. 그리고 두 달 뒤, 숙부는 조카를 처형하라 명한다. 옥체는 동강에 버려졌는데 죽음을 불사한 영월호장 엄홍도가 수습해 매장한 것이 오늘날 영월장릉에 이르렀다. 다시 배를 타고 청령포를 빠져나와 자동차로 5분을 달렸다. 세상을 다스리던 단종의 영역은 한없이 쪼그라들어 영월장릉이라는 점이 되었다. 그나마 승하 241년 후인 1698년 숙종대에 복위되어 왕릉의 격을 갖출 수 있었다.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 32명을 비롯한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을 통과해 제를 지내는 정자각에 다다른다. 예를 갖춰 인사하고 언덕을 올라 단종이 잠든 능을 만났다. 앞에서 영월이 두터운 풍경을 가마득한 능선으로 늘어놓는다. 하늘은 내내 빗방울을 떨어뜨려 땅을 적시는 중이다. 지나치지 않고 모자람도 없이, 가문 생명을 축여 주는 비다. 능을 나설 무렵 서서히 구름이 걷힌다. 이젠 서러워 말고 고이 보시라. 곧 파란 하늘이 열리고 해갈한 대지가 푸르게 빛날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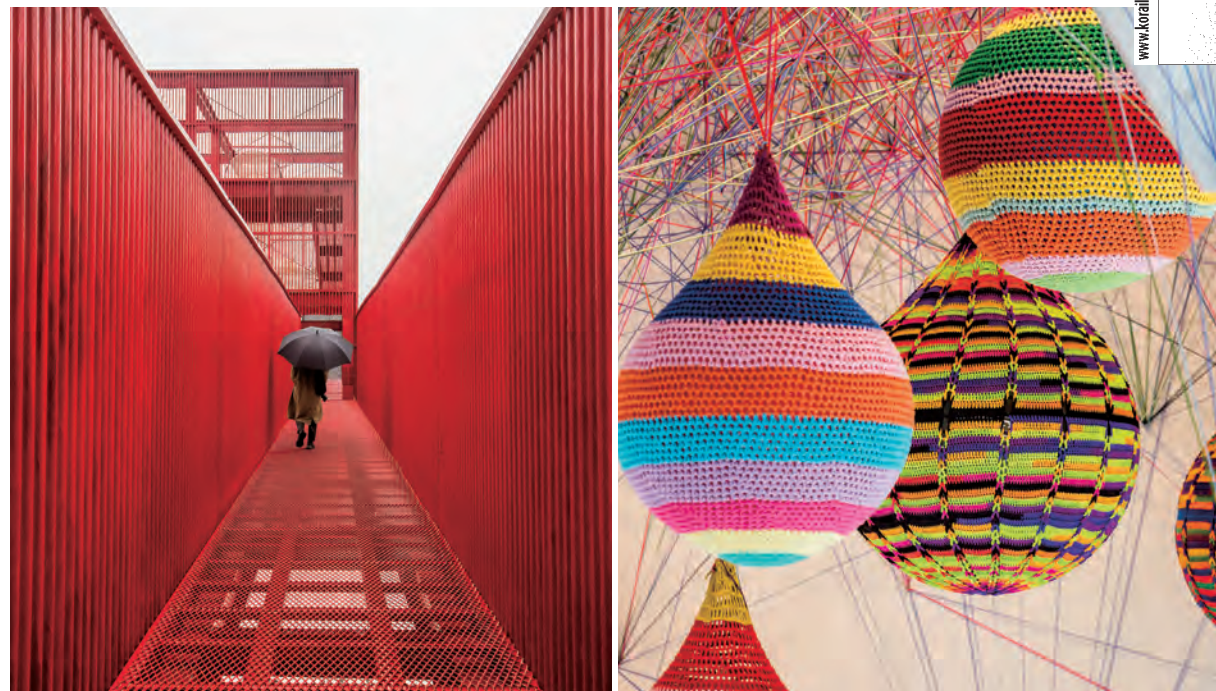
재생한 예술의 우주, 젊은달와이파크

놀랍다. 입구부터 색채와 규모가 새로운 시각 경험을 선사한다. '붉은 대나무' 작품이 하얀 미술관과 색대비를 이뤘다. 처음 본 붉은 대나무는 낮설기보다 흥미로워 다가가 만지고 올려다보느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구 너머로는 약 2만 6000제곱미터(8000평) 면적에 줄지은 작품과 건물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평범한 마을 한가운데 블록 솟은 심상치 않은 공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사진 찍기 좋다고 해 인기가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 영상을 촬영하기도 좋겠어요. 들어가 보죠." 이용일 감독이 달뜬 표정을 지으며 앞장선다. 저기엔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대나무 숲을 지나 젊은달와이파크 여행을 출발한다. 영월의 또 다른 이름은 '박물관 도시'. 인구가 3만 8000여 명인 영월에는 크고 작은 박물관이 스물두 곳이나 된다.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삼자면 요행을 바라는

시설은 들어설 리 없거니와, 지식을 전달하고 영감을 건네려 매진하는 박물관만 자리했겠다. 그중에서도 손꼽을 때 빠지지 않는 젊은달와이파크는 숲섬박물관을 재구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대지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듯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 위 허공에는 작품을 두었다. 마을과 자연이, 선과 면에 높이를 더한 3차원 화폭으로 변신한 셈이다. 카페를 겸하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숨을 돌리고 이곳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목성木星'에 진입한다. 소나무 장작을 엮어 거대한 바구니를 엮어 놓은 형상을 만들었는데, 천장 중앙의 날찍한 구멍과 나무 틈에서 빛이 쏟아져 별을 올려다보는 기분이다. 나무로만 들어 '목'이고 별인 양 반짝여 '성'인 작품을 둘러보는 사이에 우주를 유영하는 착시에 빠진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명을 곁들여도 좋을 테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험과 상상이 무한히 확장한다. 예술이 된 이 순간, 이 느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젊은달와이파크는 숲섬박물관을 재구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약 2만 6000제곱미터(8000평) 면적을 총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붉은 대나무' 등 작품을 전시한다. 별보기 힐링영상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트 상품도 판매한다. 문의 033-372-9411






젊은달와이파크에 전시된 작품 대부분은 선반을 만들고 남은 나무, 쓰임을 잃은 조선소 크레인, 폐기한 자동차와 타이어 등을 예술로 재생한 것이다. 자연을 캔버스 삼은 공간 구성과 함께 젊은달와이파크가 지향하는 예술을 잘 보여 준다.

‘목성’ 다음 동선은 미술관 실내와 미술관 위를 오간다. 먼저 젊은달미술관 속 작품 ‘사임당이 걷던 길’의 흐드러진 꽃이 반긴다. 직각 통로를 돌아 만나는 꽃밭을 누리다, 문득 들여다보았다. 거칠게 꼬인 넝쿨이 벽과 천장 여기저기에서 몸을 비튼다. 눈부신 걸모습에 숨은 아린 속살이다. 역설일까? 아니, 현실이다. 꽃과 넝쿨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며, 멀리서는 화려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아린 속살 같은 아픔을 견디고 있다. 전시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알록달록한 잎과 울퉁불퉁한 넝쿨을 번갈아 가슴에 담는다. 미술관 위에 조성한 ‘붉은 파빌리온 I’ 전시관에서 금속 파이프가 도마뱀 무늬 형상으로 비치는 ‘거울도마뱀’ 작품을 감상했다. ‘붉은 파빌리온 II’ 3층에는 그물망을 설치해 아찔한 높이를 만끽하거나 바깥 풍경을 다양한 각도로 즐기기 맞춤이다. ‘푸른사슴’ ‘실버피쉬’도 독특한 인상을 안겨 주었다. 놀라운 공간 구성, 남다른 전시가 시선을 사로잡는 젊은달와이파크가

더욱 어여쁜 이유가 존재한다. 작품 대부분이 쓰임을 잃은 조선소 크레인, 폐기한 자동차와 타이어 등을 재생한 결실이라는 사실. 영월에서, 일상에서 유리됐던 사물이 예술의 우주를 창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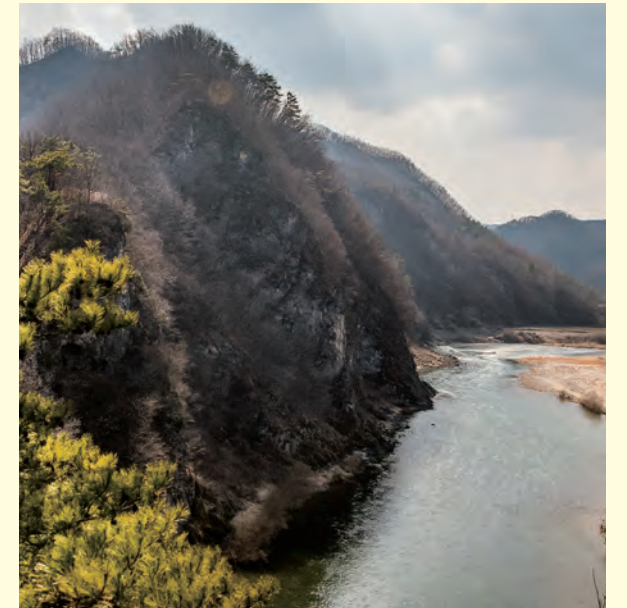
장대한 영월의 길에서

척척한 산의 모퉁이를 돌아 또다시 산이다. 백두대간 자락의 능선과 강굽이가 영원할 기세로 뻗었다. 이 길 어디에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영월은 너르고 두텁다. 그 한편을 서성이는 동안 단종의 슬픔을 엿봤고 젊은달와이파크의 예술을 발견했다. 저 산과 강만큼 깊은 이야기가 마음을 두드렸다. 이긴 고작 한편에서의 여정이었다. 영월은 아직도 들려줄 게 많다. 구불구불한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 갔을들인 삶들이 그만한 깊이를 품었을 것이기에. 여전히 계속되는 영월의 길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가 들린다. 

#찍기만 하면 인생 사진 #영월의 포토 스폿

이용일 영상감독이 여행한 영월 이야기

캠핑 촬영 차 영월을 자주 찾았다. 출장이었지만 즐거운 기억이 많아 나에게 영월은 늘 여행하고 싶은 곳이다. <KTX매거진>과 함께한 이번 여정도 특별한 기억을 남겼다. 역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어린 나이에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단종과 관련 있는 여행지를 둘러보며 역사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령포에선 섬 아닌 섬에 갇힌 기분으로 거닐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단종어소 바깥에서 담장 안으로 고개를 숙인 소나무 앞에서도 걸음을 떼기 힘들었다. 단종이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든 영월장릉은 아름다운 조망이 왕을 위로해 주길 바랐다. SNS에서 자주 본 젊은달와이파크는 입구부터 '붉은 대나무' 작품에 탄성이 나왔다. '목성'은 빛줄기가 광활한 우주의 별을 연상케 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외에 신기하고 매력적인 작품이 수두룩해 눈이 호강했다. 캠핑 촬영이 아니어도 영월을 다시 방문해 구석구석 돌아볼 계획이다. **이용일** (@double_dragon_)



청령포 단종어소 담장

담장과 집, 소나무가 차곡차곡 쌓여 근사한 뷰를 완성한다.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인 담장에 푸릇한 소나무가 갇힌 듯해 단종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청령포 노산대

서강을 예쁘게 촬영하는 장소다. 비록 단종이 시름하며 오른 곳이지만 풍경은 정말 훌륭하다. 촬영한 뒤에는 카메라를 내리고 서강을 내려다보며 힐링해 보자.



젊은달와이파크 '붉은 대나무'

대나무 모양에 붉은색을 입혔다니, 기발한 아이디어로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한 작품은 누구에게나 영감을 선물한다. 사진을 찍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다.



젊은달와이파크 '사임당이 걷던 길'

어떤 구도로 찍어도 꽃이 배경이 되어 주는 착한 포토 스폿이다. 전시실에 가득한 꽃을 감상하는 재미도 좋다. 작품의 의미를 안 뒤엔 넉쿨도 소중히 촬영했다.



지역화폐로 10퍼센트 할인받는 즐거운 강원도 여행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는 선불카드형 지역화폐가
청정한 강원도 여행을 더 행복하게 한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싶다면? 감각적이고 근사한 풍경 사진을 찍고 싶다면? 친구들과 맛집 순례를 하고 싶다면?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싶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강원도 여행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월 오픈한 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18퍼센트 감소했지만 강원 지

역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기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객이 청정 관광지로 인식하는 곳은 방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국내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접근성과 ‘청정 관광 지역’ 이미지로 주목받는 강원도를 여행할 때 동반자가 되어 주는 ‘10% 할인 카드’ 지역화폐 카드를 만나 보자.



이아파트 ©

강원도 지역화폐의 모든것

10퍼센트 캐시백 + 30퍼센트 소득공제 혜택까지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에서 자체 발행해 그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화폐를 말한다. 예전에는 지류형(종이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선불카드형 지역화폐가 대세다. 강원도는 현재 코나아이와 함께 영월, 강릉, 태백, 인제, 동해, 삼척, 고성, 횡성 등 총 8개 지역에서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고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사용한다. 특히 결제 금액의 10퍼센트를 캐시백으로 바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알뜰한 여행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지역 내 상점,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단,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추구하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종 및 사행성 업종,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또 지역화폐 앱 ‘그리고’(강릉은 ‘강릉페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30퍼센트(전통시장은 40퍼센트) 소득공제가 돼 일석이조 혜택을 누린다.



모바일 앱에서 카드 신청, 충전까지 한 번에



지역별 특색을 담은 카드 디자인으로 소장 욕구 자극

각 지역화폐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에 해당 지역만의 감성 또는 명소, 명물을 담았다. 해당 지역 아이덴티티와 결합한 디자인의 카드는 강원도 여행을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해 줄 필수템이다.

지역에서도 바로 구매 가능

지역화폐 카드는 ‘그리고’(강릉은 ‘강릉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통상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수령하며, 카드 수령 후 앱에 카드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연결해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 농협과 축협, 새마을 금고 등의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이벤트 진행

지역별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횡성은 3월 2일부터 4월 말일까지 횡성 지역화폐 ‘횡성사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한다. 지역화폐 관련 이벤트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밀양

도톰하게 부푼 봉오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봄기운이 마음을 간지럽히는 계절에 경남 밀양을 여행했다.
글. 표다정 사진. 이규열





꽃잎 하나에 마음이 부풀고 예쁘다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봄이다. 이번 봄에는 가볍게 눈길 두었다가 쉬이 잊힐 곳 말고, 가슴에 묻고 지내다 생각날 때 꺼내 보고픈 풍경을 찾아 나선다. 봄기운이 아직 남쪽에 머물고 있으니 밀양이 좋겠다. 별이 빼곡하게 들어찬다는 뜻을 가진 따뜻한 그곳. 밀양역에 내리자마자 입고 온 겉옷은 팔에 걸쳐야 했다. 두 손은 무거워도 햇볕 가득한 길을 걷는 발걸음은 가볍다. 여행의 시작점은 밀양향교다.

지방 교육의 기틀을 다지다, 밀양향교

지난 2020년 11월 전국의 향교 스물두 곳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중 하나가 밀양향교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고려 제15대 왕 숙종 때 창건한 밀양향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2년 현재 위치에 다시 지어 올렸다. 풍화루 누마루 아래 계단을 올라서자 이름 모를 풀꽃이 잔잔하게 향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밀양역까지 2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기를 보낸다. 마당 가운데에 난 돌길 끝엔 명륜당이 자리한다. 눈길 발길 돌리지 말고 바로 들어오라는 뜻일까 싶어 곧장 명륜당으로 걸어간다. 윤리를 밝힌다는 뜻을 가진 명륜당에서 어린 유생들이 스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이곳은 춘정 변계량, 점필재 김종직, 오한 손기양 등 대학자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향교 내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도 자리를 지킨다. 대성전과 명륜당의 배치에 따라 전묘후학, 전학후묘로 나뉘는데 전묘후학은 제향 공간 뒤로 강학 공간을, 전학후묘는 강학 공간 뒤에 제향 공간을 배치한다. 밀양향교는 돌을 나란히 두고 경사지를 깎아 쌓은 축대에 대성전을 세워 향교 중에서도 독특한 배치를 자랑한다. 공자, 안자, 증자, 자자, 맹자 등 한국과 중국 명현의 위패를 모시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춘추석전제를 지낸다. 지난 2018년 밀양시가 향교의 의의를 되새기고자 향교 내 서재를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400년을 훌쩍 넘긴 공간에서 책을 읽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마루에 걸터

햇볕이 머무는 마루에
걸터앉아 책을 펼쳐 보자.
책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만날지도 모른다.
스승에게 삶의 이치를 얻은
유생처럼.





앉아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만날지도 모른다. 스승에게 삶의 이치를 얻은 유생처럼 말이다.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시 휴관 상태다 (문의 055-354-5872).

향교 아래 교동 밀성 손씨 고가 집성촌도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다. 고택을 정돈해 여행객을 위한 숙소나 작가를 지원하는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마을을 걷다 향교에서 책을 읽는 여행이 기다려진다.

꽃꽂이 건디다, 금시당과 백곡재

밀양을 관통하는 밀양강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산책하는 사람, 강 너머 철길을 달리는 기차. 평화로운 풍경의 연속이다. 뒤쪽에는 산이 솟아 있고, 아래는 밀양강이 흐르는 곳에 자리한 금시당과 백곡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거진 녹음에 폭 안긴 모습이 멀리서도 따뜻하게 다가온다.

감사하게도 금시당과 백곡재를 드나들 수 있도록 솥을대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협문으로 들어서자 만개한 매화가 이 계절의 얼굴을 하고 봄이 왔다고 속삭인다. 고매한 자태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따라오던 사람도 발길을 멈추고 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이다. 매화를 지나 마당으로 나아간다. 금시당 마루에 앉아 사념 없이 꽃을 바라보는 이, 흙 마당을 뛰어오는 아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셔터를 누르는 사람... 공식 없이 제 방식대로 봄을 새긴다.

금시당의 주인이었던 이광진 선생은 1513년 밀양에서 태어나 조선 명종 때 승정원의 동부, 우부, 좌부승지의 직분을 다하고 담양 도호부사를 마지막으로 귀향했다. 그때 선생의 나이가 쉰셋이었다. 노후를 보내며 후학을 가르칠 터를 고르고 살피 밀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소담한 금시당을 짓고 마당 한편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금시당의 금시(今是)는 '지금이 옳다'라는 뜻으로 중국 시인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의 한 구절 중 “각금시이작비(覺今是而非)”를 인용한 것이다. 그가 관직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심경을 읊은 시로 선생의 처지와 매한가지였다. 하지만 선생은 금시당에서 1년도 살지 못했다. 지병으로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 이경홍 선생은 밀양강 건너에서 본 금시당과 어둠이 깊어 가는 무봉사, 월연정, 밀양읍성, 영남루 등 밀양 명소 열두 곳을 화폭에 담은 ‘밀양12경도’를 완성했다. 거동이 불편하니 방에서 밀양을 쉬이 순시하길 바라는 효심이 가득하다. 현재 ‘밀양12경도’는 밀양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밀양 읍성이 함락되며 금시당은 잿더미가 되었다. 이를 1743년, 선생의 5대손 백곡 이지운 선생이 복원했다. 밀양강을 마주한 백곡재는 이지운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조상의 뜻을 잇고자 1860년에 세웠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으로 철거되었다. 12년 후 후손들이 또 한 번 흙으로 벽을 만들고 기와를 올렸다.

허리춤까지 오는 담장 앞에 이르렀다. 까치발을 들 필요 없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안한 높이의 담장 역시 이광진 선생이 설계한 것이다. 후손은 세월이 무너져 가는 담을 보수하고 기와를 올렸을 뿐이다. 담장 앞에 나무를 골고루 심었는데, 곧게 자라는 백송을 제외하고 배롱나무와 복숭아나무는 담장 높이까지 곧게 자라다 밀양강 쪽으로 줄기와 가지를 드리웠다. 그 모습이 감탄스러워 시선을 거두는데 한참이 걸렸다. 여주 이씨 집성촌에서 태어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곳을 백발이 된 이용정 씨가 관리한다. 문중 대대로 집을 간수해 왔기에 그에게도 당연한 소임이라고. 그 덕분에 금시당은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팔팔하게 지피면 방이 후끈후끈하다. 오늘날에도 건재한 정성이 금시당과 백곡재의 가치를 전한다(문의 055-359-5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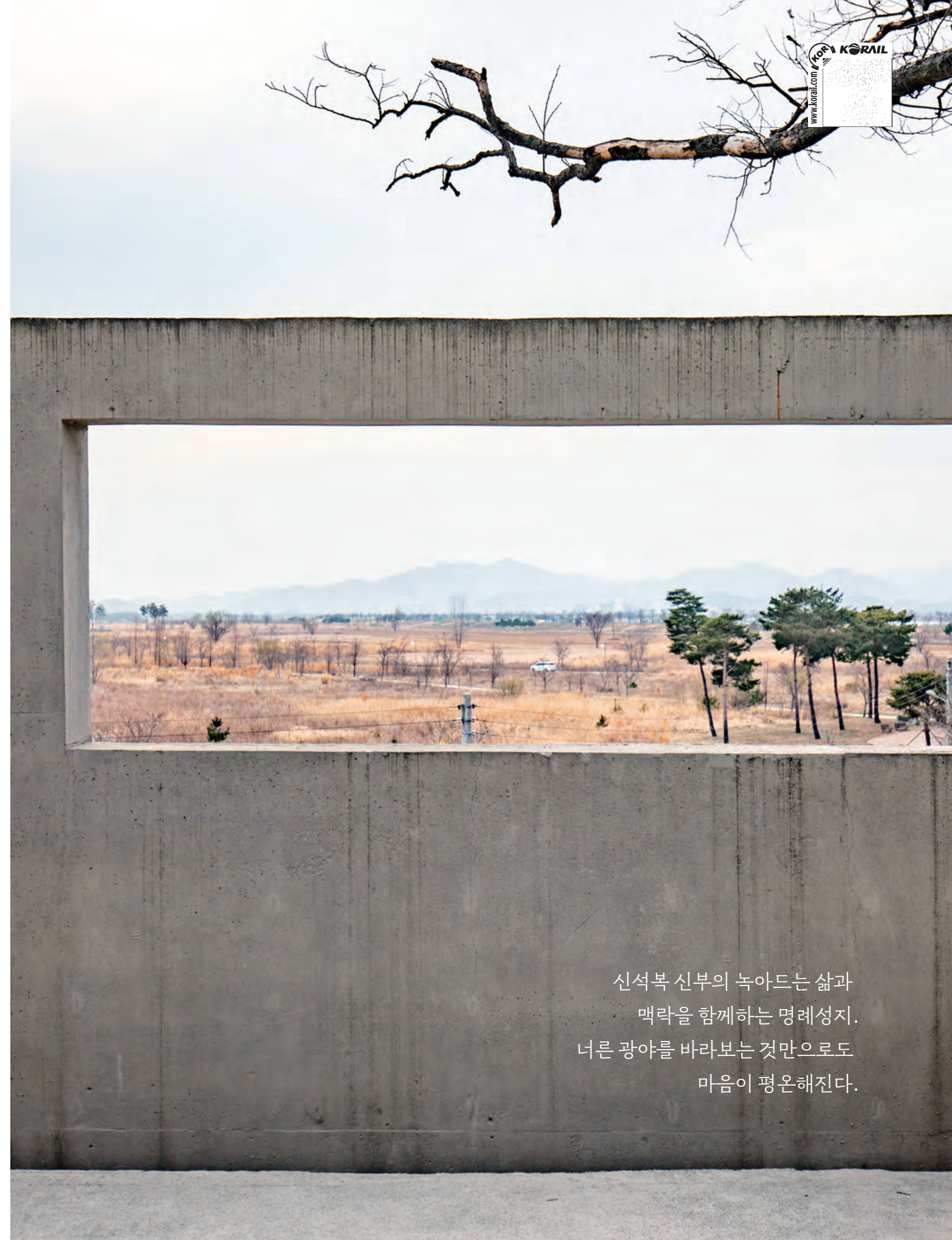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금시당과
백곡재 등 밀양의 주요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38년 지은 성모승천성당은 남녀 좌석을 구분한
조선 후기 천주교회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출입하는 문도 유별하다.





소금처럼 녹다, 명례성지

밀양의 가장 남쪽으로 향한다.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하고 2018년 명례언덕에 세운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이 다음 여행지다. 믿음으로 물든 명례언덕에는 신석복 신부의 생가터가 있다. 명례리에서 태어난 신석복은 소금과 누룩을 행상하며 종교를 전파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창원에서 소금을 팔고 오던 중 대구로 압송되었고, 집에서 그를 기다리던 가족이 기별을 듣고 뒤를 쫓아갔다. 포졸을 포섭하기 위해 돈을 건네니 “나를 위해 포졸에게 한 푼도 주지 마라”라며 가족을 돌려보낸 그는 모진 학대와 수모를 겪다 대구에서 순교했다. 언덕에 오르자 성모승천성당이 맞닿는다. 남녀 자리를 구별한 조선 후기 천주교회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성당이다. 신석복 마르코 기념성당으로 다가선다. 기념성당은 있는 듯 없는 듯 비탈진 언덕에 스며들었다. 신부의 유해를 모신 순교

자탑과 널찍한 계단이 언덕 한 부분을 채우는데, 이 계단이 성당의 지붕인 셈이다. 계단에서 치솟은 12개의 기둥은 소금 결정체를 표현한 것. 녹는 소금을 기울고 경사지듯 비뚤어진 형태로 형상화했다. 계단을 따라 미사 공간으로 발길을 옮긴다.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아름답다. 미사 공간 안쪽에는 진영천주교공원묘지에서 이장한 신석복 신부의 유해를 안치한 부활경당이 있다. 155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온 복자를 위해 잠시 묵념한다(문의 055-391-1205).
다시 계단에 돌아오니 어느덧 해 질 녘이다. 광야에 노을이 지고, 언덕과 성당이 빨갛게 물든다. 언덕, 비탈지고 높은 곳. 언덕,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존재. 종교를 벗어나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 본다. 실천은 어렵다. 생각한 바를 실제 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 의지도 필요하다. 나를 녹여 주위를 밝히는 의미를 천천히 사유해도 좋겠다. 밀양이라는 넉넉한 품에 기대서. ☑

신석복 신부의 녹아드는 삶과
맥락을 함께하는 명례성지.
너른 광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지친 그대에게, 사랑도 지리산

능선의 곡조에 절로 집중하게 되는 곳,
경남 통영 사랑도 지리산에서 산과 바다의 눈부신 조화를 보았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산> 기자) 진행. 김규보

마음은 치료제로 아물지 않는다. 매일 숫자로 불리는 비극, 서로 떨어져야만 하는 시간 속에서 차오르는 우울. 마음이 닿을 곳 없을 때, 통영 사랑도에 가야 한다. 마음의 빗장을 바꿔놓는 산, 사랑도 지리산 말이다. 인기 산 순위를 매길 순 없으나, 단순히 등산객 숫자로 꼽자면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섬산 중 사랑도 지리산이 인기 1위일 것이다. 전국 각지의 안내산악회 일정 표에도 계절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는 곳이 사랑도 지리산이다. 얼마나 좋기에 최고의 섬산으로 꼽히는지 궁금했다.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섬산의 유혹

돈지마을에서 등산로 안내판을 따라 골목으로 들자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야 왔느냐'라며 반기는 폐교. 정돈된 화단과 겨우내 참아 온 그리움을 울컥 쏟아낸 목련꽃이 외지인을 잡아당긴다. 운동장에서 바다가 보이고, 학교 뒤로는 걸출한 지리산 바위 벽이 솟아대 단한 절터를 보는 듯하다. 폐교한 게 아까울 정도의 명

당이다. 블랙야크 익스트림팀 손창건, 강태선나눔재단 변별 씨가 함께한다. 벌떡 선 오르막에서 옷을 벗어 배낭에 넣는데 수북한 낙엽 사이로 요정이 말을 건넨다. 예술 작품처럼 섬세한 노루귀의 우아한 자태, 흰 무리와 분홍 무리가 어우러져 고요한 축제를 열었다. 각시현호색이 트럼펫 닮은 특유의 꽃술로 팡파르를 터뜨리자 축제는 절정에 달한다. 화려한 풍경도 좋지만, 낮고 고요한 식물에 갈수록 눈길이 간다. 자연에 순응하는 작고 어린 것에 마음이 간다는 것, 산 좋아하는 이가 나이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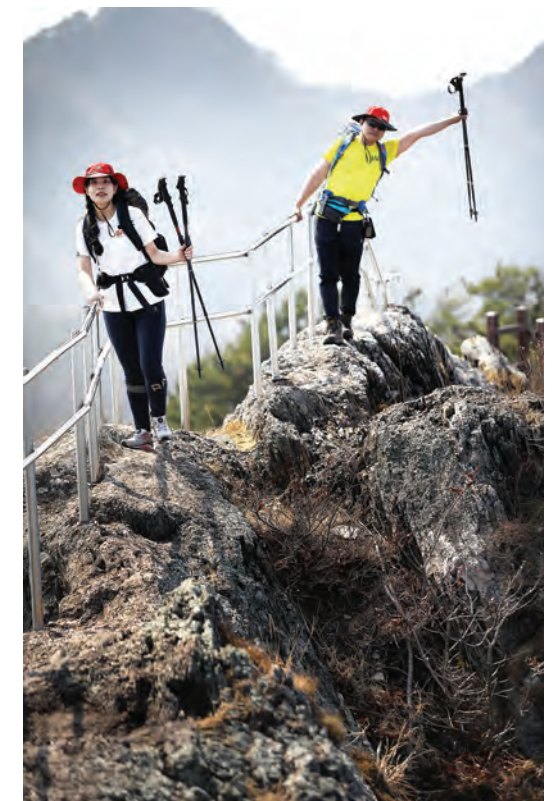
고도를 높여 능선에 이른다. 어디선가 '립스틱 질게 바르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착각, 도발적인 연분홍 유혹을 담은 진달래다. 여느 진달래 명산처럼 흐드러지진 않지만, 듬성듬성 피어 게릴라 전술로 동장군의 잔당을 무너뜨린다. 산길이 아무리 가팔라도 인기 최고의 바다산을 오른다는 설렘에 힘들지 않다. 땀 흘리는 족족 꿀맛의 경치로 되갚아 줄 것을 산꾼은 알고 있다. 주능선에 올라볼자 사다다리를 포개어 놓은 듯한 바윗길이 나타난다. 고도감 큰 벼랑의 시작, 복잡



을 재정비하고 능선의 곡조에 집중한다. 이제 시작인데 능선의 리듬은 벌써 클라이맥스로 향한다.

풍경은 겨울이지만 햇살은 봄날이다. 재킷을 벗고 스무 살 청년처럼 반팔로 바위산의 변주곡에 몸을 맡긴다. 발바닥으로, 눈으로, 손으로, 피부를 타고 전해 오는 달콤한 산행의 맛. 섬산 인기 1위가 과언이 아니었구나 싶다. 낭떠러지 바윗길의 고도감이 스릴 있으나 책을 겹쳐 놓은 양 거칠게 튀어나온 바위 표면 덕분에 발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고도감에 비해 산행은 어렵지 않다. '위험한 길'이라 표시된 갈림길에서 위험한 길로 든다. 칼바위능선에 올라 바닷바람의 짠맛을 음미한다. 뒤돌아보면 어찌 왔나 싶은 칼바위 능선이지만 그 맛이 쏠쏠하다.

지리산 정상, 전국 어느 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치를 선사한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았던 풍경이라 인증 사진만 찍고 곧장 지나친다. 워낙 사진 명소가 많아 거리에 비해 시간이 지체됐다. 지금부터 산행의 하이라이트인 후반전이라 설렘은 식지 않는다. 그 유명한 달바위와 구름다리를 만나는 일이 남았다. 산행이



후반으로 치달아도 경치의 수준은 떨어질 줄 모른다. 불모산 혹은 달바위라 불리는 압도적 경치의 바윗길에서 바람을 타고 노는 까마귀와 이웃하여 비행하는 느낌을 만끽한다. 양쪽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조망하는 즐거움이 극에 다다른다.

고정 로프를 붙잡고 간 떨어지게 오르던 바윗길은 계단과 난간이 들어서서 세미클라이밍 코스로 바뀌었다. 계단이 있다 해도 직각 절벽 사다리에 가까워 '노약자와 심신 쇠약자는 우회하시오'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몇 발짝 나아가자, 입을 벌린 상어처럼 막강한 고도감이 덮친다. 주말이면 줄 서서 맛보았을 사다리계단을 내려선다. 맨땅이 주는 안도감을 실감하며 다시 암봉을 오른다.

바다에 드리운 한 편의 서정시

사랑도의 명물 구름다리의 등장이다. 연예계 스타의 등장처럼 암봉과 암봉을 이은 화려한 붉은 다리에 매



•• 통영에서 가까운 기차역은 진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진주역까지 3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료된다. 40미터 길이는 요즘 구름다리에 비하면 짧지만, 봉우리 꼭대기를 연결하였기에 고도감이 막강해 걷는 맛이 있다. 바다에 드리운 빛의 길이 한 편의 서정시다. 구구절절 외당은 절제된 말로 깊이 있게 스며든다. 해는 뉘엿뉘엿 붉게 물들고, 구름다리 텍에는 야영객들이 큼직한 배낭을 탐처럼 쌓아 웅기종기 모여든다. 일행인 줄 알았으나 물어보니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감미로운 야경과 별빛, 바람을 벗 삼아 노숙하

려는 이들의 마음이 슬그머니 느껴진다. 옥녀봉을 지나 하산길로 접어든다. 종일 바람 맞으며 능선을 오르내려 피곤할 법하지만 동행한 변별 씨가 "산행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라며 "오히려 바위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힘이 난다"라고 얘기한다. 맞는 말이다. 걸을수록 마음을 명랑하게 만드는 약이 되는 산이다. 힘들고 지친 이에게 권하고 싶은 곳, 사랑도 지리산이다. ☑

Horse strap pendants and horse fittings for crossbelts excavated from Tomb No. 8 in Dohang-ri, Haman-gun



Gaya Horse Trappings

K TX trains are a fast, convenient mode of transport for long-distance travel. During the days before trains, horses played a similar role with their mobility and power. In the ancient confederation of Gaya, horse trappings were elaborately decorated as a symbol of status or for ceremonial purposes. The Gaya people's sense of aesthetics is embedded in the horse strap pendants and horse fittings for crossbelts excavated from Tomb No. 8 in Dohang-ri, Haman-gun—home to the Gaya tumulus cluster. The horses, adorned with silver-wrapped horse fittings and pendants resembling fish tails on their backs, would have created a majestic sight. More on Gaya's interesting horse culture can be viewed at the special exhibition of Gimhae National Museum. The horse trappings will take you 1,500 years back in time, reviving the magnificence of Gaya culture like the glorious burst of flowers in spring. 📧

Special Exhibition *Gaya Horse Trappings* at Gimhae National Museum
Exhibition Hall Section 3: Gaya Culture Seen Through Horse Trappings
Runs through May 16, 2021 For inquiries, contact 055-320-6833

culture

138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 이소진 건축가

146
장애를 말하는 그림책

152
생명을 살린 기차, 동대구역 최찬주 역무원



사진: 신규원

서울 운동주문서관

일상의 배경, 그 이상

자연, 사람, 시간을 존중하는 건축가 이소진의 공간은 아름답다.
그는 작은 건축으로 숨은 공간을 깨우고 마음을 움직인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별, 어머니, 부끄러움, 쓸쓸함. 발에 채는 돌맹이처럼
흔한 말. 이런 단어를 시인이 주우면, 예민한 양심과
다정한 심사를 지닌 시인이 닦고 닦아 시에 쓰면 마
음에 맺히는 시어가 된다.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 한
편이 그렇다. 존재를 투명하게 비추고 부끄러움을 가
르치는 시는 영혼의 거울 같고 우물 같다.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이 마무리되는 경사 급한 길모
퉁이에 그를 기리는 윤동주문학관이 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종로와 경복궁, 멀리는 남산과 잠실까지
잡히는 전망에 일단 눈길을 주고 사진을 남긴다. 도
심을 찍고, 전망을 배경 삼아 사람을 찍는다. 이제 반
대편, 사람이 뻑뻑이 그려 낸 도시 풍경과 달리 자연
이 여유로운 인왕산 끝자락에 하얀 상자를 연상시키
는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문학관은 산의 마지막 여
운과 어우러져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 단정한 모습이
시인을 꼭 닮았다. 이 건물은 원래 수도가압장이었
다. 돌맹이처럼 흔한 시설. 평범한 데다 세월 속에 잔
뜯낀 건물을 시인의 공간으로 되살린 이가 건축사
사무소리웅 이소진 대표다.





필요 없이 건축한 건물이 있으랴. 허물며 서울이다. 수도가압장이란 약한 수압을 끌어올려 주는 시설. 일대에 청운시민아파트를 세우면서 주민을 위한 용도로 1974년에 건립했다. 기능이 중요하지 외관에 신경 쓴 것이 아니니 어디서나 보는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35년이 지나 아파트가 철거되자 가압장은 쓸모를 잃었다. 아파트 밀 때 같이 밀어 버리지 않아 다만 살아남은 채 방치되었다. 여기에 종로구가 운동주 시인의 문학관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서촌에서 하숙한 시인은 새벽에 인왕산을 산책하곤 했다. 도심과 한 발 떨어진 산자락, 하늘과 가까운 땅은 통장 잔고나 세상의 지위보다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곳이었다.

시가 된 공간, 운동주문학관

설계를 맡은 이소진 건축가는 평범한 생김새의 건물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인왕산과 북악산의 연결 지점이라 수많은 사람이 건물 앞 갈림길을 지나쳐 다녔다. “40여 년 한곳을 지킨 건물은 이미 풍경의 일부였어요.” 여길 어떻게 고칠까. “애초에 전시 목적으로 짓지 않았고, 전시관으로서의 규모가 너무 작았지만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위쪽 언덕을 이어서 건축적

공간을 확장하자고 설계 방향을 잡았어요.” 설계를 마칠 즈음 산사태가 나도록 큰비가 내렸다. 산사태 자체는 비극이었어도 건축 면에서는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건물 옆 옹벽이 불안해 구조 안전 진단을 하던 중 물탱크 두 개를 발견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려 한 평평한 땅이 물탱크 지붕이었어요. 수없이 거길 밟고 섰을 때도 상상조차 못 했죠. 가로세로 60센티미터 사각형 구멍이 출입구였어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 사다리를 밟고 내려갔다. 한 발 한 발 떨리는 걸음.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캄캄한 어둠, 오래 갇혔던 물 냄새가 코에 끼치고 “뭐가 있어요?” 하고 소리를 내면 웅웅 울렸다. 시인이 대답하는 듯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쩌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운동주, ‘자화상’ 중)

이 순간의 전율이 건축가를 사로잡았다. “물탱크 두 개를 전시장으로 활용해야겠다 했어요. 다행히 종로구와 소통이 잘되어 추가 설계 기간을 주었지만 고민이 컸어요. 시간의 흔적, 물때 자국을 보존하면서 전



이소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UPA7에서 건축사 과정을 마쳤다. 1997년 프랑스 건축사를 취득한 뒤 다양한 건축과 도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2006년 귀국해 운동주문학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처럼 자연, 사람,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존중하는 건축을 선보여 왔다. 젊은건축가상, 서울시 건축상 대상, 석주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8년 12월 7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언급되어 화제를 낳기도 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리움을 이끌고 있다.





운동주문학관의 '열린 우물', 물탱크였던 벽에는 물때의 흔적이 역력하고 위로는 네모난 하늘이 펼쳐진다. 완전히 비운 공간이 시적이다.

시장 설비를 하기엔 습기·단열 등이 문제였거든요.” 궁리를 거듭하다 시인의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로 돌아갔다. 하나는 지붕을 개방했고, 하나는 영상 전시실을 조성했다. 제1전시실에서 시인의 시와 생애를 읽고, 제2전시실 ‘열린 우물’에 들어서면 가슴 밑바닥에서 깊은 숨이 터져 나온다. 물탱크였던 벽에는 세월이 남긴 물때의 흔적이 역력하고, 위로는 네모난 하늘이 펼쳐진다. 지금 내가 선 곳이 우물 밑바닥 같다. 미우면서도 가벼운 나라는 존재, 내 옆의 사람들. 일상이 바빠 여백 없이 살던 누구라도, 완전히 비운 이 공간에서는 눈이 하늘을 향한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중략)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운동주, ‘별 헤는 밤’). 시 구절이 가슴을 짝 채운다. 이어서 제3전시실 ‘달힌 우물’을 만난다. 황, 철문이 닫히고 관람자는 어둠에 덩그러니 놓인다. 시인이 간혀 생을 마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처럼. 잠시 후 시인의 생애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된다. 아픈 시대, 삶을 몸부림치며 사랑하고 자신을 치열하게 부끄러워한 스물일곱 짧은 생. 달힌 우물을 나와 다시 바라보는 열린 우물의 하늘은 이전과 같지 않다. 시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밀려 들어온다. 운동주문학관은 건축가가 공간으로 쓴 시다.

첨단 기술 문명의 ‘해독제’라는 찬사

고등학교 졸업 무렵 우연히 한 대학의 건축과 졸업 전시에 갔다가 도면에 반한 게 출발이었다. “자를 대고 그은 선, 하나하나 치수가 있고 각도를 정확히 표현한 도면이 매력적이었어요. 내가 그린 도면이 3차원의 건물이 된다 상상하니 짜릿했지요.” 졸업하고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5년을 공부하고 10년은 스승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이브 리옹의 회사에 들어가 프랑스 건축사로 일하다 2006년 귀국했다. 프랑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공공 건축과 도시 설계였는데, 한국도 마침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소진 건축가는 한강 나들목, 학교나 공원 내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 건축으로 일상에 파고들었다. 운동주문학관 다음 프로젝트가 숲속공원 숲속도서관이었다. “랜드마크라 부르는 대형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공 건축에 끌려요. 일상의 배경이 되는 건축을 하고 싶거든요.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행복해지는 공간요.” 숲속도서관을 맡고 공원을 천천히 음미했다. 방문자가 울창한 공원을 거닐다 도서관에 들러 책 읽고 차 마시는 풍경을 떠올렸다. “공원이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겸손하게

© 건축사사무소리움
심정공원 숲속도서관 / PM 정소영, 김용



© 건축사사무소리움



울산대공원 지관 / PM 심훈영

짓자,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말자 다짐하니 어디에 어떤 건물이 필요하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나무들이 도서관 자리와 모양을 정해 주었죠.”

나무 사이에 들어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워 신축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할 정도다. 숲속 오두막 같은 외관은 사랑스럽고, 목재를 사용한 내부는 따스하며, 숲을 향해 난 커다란 유리창은 건물 안팎의 경계를 지워 감탄을 자아낸다. 그야말로 책의 숲, 숲의 책.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하는 도서관은 숲에, 일상에 녹아들었다. 2018년 12월 7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리기도 했다. 베스트셀러 <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 데이비드 섉스가 2017년 방한 당시 숲속도서관을 다녀가고는, 온갖 디지털 기술에 지친 인간과 사회의 ‘해독제’로 이곳을 이야기한 것이다.

“몇 달 지나서 그분이 제가 지은 도서관을 언급했던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이런 반응에 서울시가 숲과 공원에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니 저도 역할을 좀 한 셈이죠? 공공 건축이 화려한 모양새는 안 날지 몰라도 보람이 커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것을 누리는 기회를 선물하는 일이니까요.” 공원을 거닐다 문득 방문해 책 읽기, 시를 형상화한 공간 감상하기 같은 호사가 좋은 공공 건축 덕분에 가능해졌다. “제가 설계한 배봉산 숲속도서관을 완공하고 기본 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동네 사랑방이 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른 편에는 어르신이 어린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공원 관리 일을 하는 분인데 쉬는 시간이라 들르셨다고요. 어느 분은 통유리창을 향해 앉아서 책 보다 밖을 보다 하세요.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들 발걸음의 리듬감이 힐링을 주거든요. 이렇

듯 건축가의 의도대로 다양한 사람이 공간을 만끽할 때 느끼는 뿌듯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

일상을 바꾸는 공간의 힘

사람은 건물이 필요하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목적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공간, 의미 있는 공간은 감동을 선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윤동주문학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의 성과는 소규모 공공 건축의 가치를 새겨 주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소진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이 생겨나는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 불암산 나비정원 근처에 온실을 개조한 정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비를 먹이는 식물을 기르던 온실이 자연을 완상하면서 가드닝을 배우고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울산대공원 내 그린하우스도 인문학 북 카페 ‘지관’으로 감탄스럽게 변신해 4월에 오픈한다.

그의 최우선 원칙은 존중이라고 했다. 자연과 사람, 시간에 대한 존중. 나아가 건축을 의뢰한 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설계를 구현하는 시공자와도 끊임없이 소통한다. 건축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한번 어긋났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작업임을 늘 기억한다. 이 모든 존중이 녹아들었기에, 그의 공간에 들어간 이는 머무르고 싶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방문자가 존중받는 기분. “작은 풍경이 모여 큰 풍경이, 결국은 도시가 되잖아요.” 도시가 아름답다는 말은 건축이 아름답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의 건축은 일상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 건물이 지어지고 역사가 바뀌진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일상은 바뀐다. 좋은 건축의 힘이다. **K**

시인이 갇힌 형무소처럼 깊은 어둠의 공간.
영상 전시실 ‘달린 우물’을 나와
다시 바라보는 하늘은 이전과 같지 않다.
공간이 마음을 건드린다.



© 김제경

윤동주문학관 / PM 김현서



장애를 말하는 그림책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그림책에서 배운다.
글. 김현정





© 2019 Rafael López / 불의여우

<p><그냥 물어봐!></p> <p>친구들과 뒷동산을 가꾸는 소니아. 소아당뇨 환자라 스스로 주사를 놓는 그는 자신의 병을 설명하고 독자를 향해 묻는다. “너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약을 먹어 본 적 있지?” 시각장애인인 매디슨은 눈 이외의 감각으로 만나는 세상을 소개하고 묻는다. “너는 어떻게 세상을 느끼니?” 서로 다른 존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동산처럼 사람도 그렇다고 책이 말한다. 뒤에서 꺼리지 말고, 다가가서 물어봐도 괜찮다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글 라파엘 로페즈 그림 김보람 옮김 불의여우 펴냄</p>	<p><위를 봐요!></p> <p>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입은 수지에게 사람이란 검은색 점이다. 방에서 내려다본 거리엔 사람의 정수리뿐 그들의 얼굴도, 표정도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작은 기적이 벌어진다. 누군가 고개를 들어 수지를 발견하더니 길에 벌레 덩 더러놓는다. 수지 앞에 검은 점 대신 사람 사는 세상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과감한 구도의 그림에서 수지의 정수리만 등장하다 마지막 즈음 표정이 드러날 땐 가슴이 벅차오른다. 수지의 세계에도 이제 색이 생겨났다. 정진호 지음 현암주니어 펴냄</p>	<p><까막눈></p> <p>세상 제일 정다운 단어, 할머니. 유치원에 다니는 정이는 글자를 못 읽는다고 놀림을 받아 슬픈 마음을 할머니에게 털어놓는다. 할머니가 안아주기만 해도 아이는 눈물이 쏙 들어간다. 할머니는 달력 뒷면에 손주와 손을 겹쳐 잡고 글자를 쓴다. “옆으로 쪽, 아래로 쪽, 기역.” 어린 시절 병을 알아서력을 잃은 할머니가 손으로 가르쳐준 글씨로 정이는 세상을 읽어나간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가득 담긴 사랑. 지은이의 실제 경험담이 따뜻하다. 최남주 글 최승주 그림 덩키북스 펴냄</p>	<p><귀 없는 토끼></p> <p>토끼를 토끼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귀 없는 토끼는 귀 있는 토끼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구멍 깊이 파기, 흉당무 순식간에 먹어치우기, 숨바꼭질... 그럼에도 친구들은 귀 없는 토끼와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일이 나타나고, 애지중지하던 알에서 귀 있는 병아리가 태어난다. 병아리가 귀라니! 재치 넘치는 그림에 감탄하면서 자연스레 장애와 차별을 생각하게 한다. 클라우스 바움가르트 글 킬 슈바이거 그림 김영진 옮김 아이세움 펴냄</p>	<p><아나톨의 작은 냄비></p> <p>아나톨의 머리에 갑자기 냄비가 떨어졌다. 이유는 모른다. 항상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평범한’ 아이가 되지 못한다. 아이가 아무리 상냥해도 사람들은 냄비만 쳐다본다. 의기소침해서 숨어 버리는 아나톨. 장애는 갑작스러운 냄비 같은 존재다. 다행히 누군가 손을 내밀어 아나톨은 냄비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 크든 작든 우리도 모두 냄비를 지녔음을 깨닫는다. 이자벨 카리에 지음 권지현 옮김 씨드북 펴냄</p>	<p><눈을 감아 보렴!></p> <p>동생이 형에게 말한다. “시계는 몇 시인지 알려 주는 물건이야.” 형은 대답한다. “시계는 심장에 애나톨은 ‘평범한’ 아이가 되지 못한다. 아이가 아무리 상냥해도 사람들은 냄비만 쳐다본다. 의기소침해서 숨어 버리는 아나톨. 장애는 갑작스러운 냄비 같은 존재다. 다행히 누군가 손을 내밀어 아나톨은 냄비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 크든 작든 우리도 모두 냄비를 지녔음을 깨닫는다. 이자벨 카리에 지음 권지현 옮김 씨드북 펴냄</p>	<p><우린 모두 기적이야></p> <p>오기는 남과 다른 얼굴로 태어났지만. 바꿔 말해, 얼굴 빼고는 남과 똑같다. 엄마는 오기를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빤히 보거나 손가락질을 한다. 시선을 피해 헬멧을 쓴 오기가 슬프다. 지구는 다양한 피부색, 생김새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 오기는 꿈꾼다. “어쩌면, 어쩌면...” 얼굴은 못 바뀌어도 마음을 열어보자. 형의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감각이 쓰인다. 빅토리아 페레스 에스 크리바 글 클라우디아 리누치 그림 조수진 옮김 한울림스페셜 펴냄</p>	<p><나의 101번째 능력></p> <p>첫 장면, 주인공이 다부진 표정으로 얘기한다. “나는 백 가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오늘은 딱 일곱 가지만 간단히 알려 줄게.” 첫 번째 능력은 하늘을 나는 것, 47번째 능력은 자전거로 지구를 백바퀴 돌고 다시 두바퀴 반을 더도는 것이다. 일곱 가지 능력을 자랑하고 마지막으로 공개한 101번째 능력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하늬와 학교에 가는 것이다. 시각장애인 말을 꺼내지 않고도 이토록 유쾌하게 다룬다. 우리 주인공, 매력기 철철 넘친다. 응원해~ 황수민 지음 느림보 펴냄</p>
--	---	---	--	---	---	--	---

이것도 챙겨 보세요



책 <그냥, 사람> 홍은전 지음 봄날의책 펴냄

비장애인이 가뿐히 오르내리는 거리의 턱 하나가 장애인에게는 좌절감을 준다. 나름대로 장애인 이슈에 관심 갖는다 했지만 이 책을 보고는 그야말로 나름이었음을 깨달았다. 책은 장애인이 왜 어떻게 힘든지, 그래서 뭐가 필요인지 독자와 눈을 맞추듯 들려준다.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마음이 무거워져야 할 의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함께 사는 세상, 의무에 소홀한 내가 부끄럽다. 이 마음이 시작이라 믿는다. **김현정**



웹툰 <Ho!> 역수씨 지음

Ho의 연인 원이는 결혼 승낙을 받으러 Ho의 어머니를 찾아간다. 난청인 딸이 못내 걱정인 어머니는 모진 말로 원이의 진심을 도발한다. 학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상대를 알아왔다. 실제 주인공이 한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예쁘게 각색했다. 작가는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매화 청각장애인의 검수를 받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진주영**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장혜영, 장혜정 출연

열세 살에 가족과 떨어져 18년을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살던 동생 혜정 씨와 비장애인 언니 혜영 씨의 '돌아서 살아 보는' 일상을 담담하게 담았다. 전기밥솥에 쌀을 안치고, 슈퍼를 가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결혼식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게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혜영 씨에게 동생이 다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1시간 30여 분 동안 '사회에 나온 나야말로 어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뇌었다. **표다정**



영화 <여인의 향기> 마틴 브레스트 감독 알 파치노 출연

"저는 당신처럼 탱고를 잘 추는 사람도, 페라리를 잘 모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각 장애인이 춤을 출 수 없다 했는가. 찰리는 다가 올 크리스마스에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려고 시각장애인인 퇴역 장교 프랭크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그런데 지구 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뉴욕에 날아가고, 최고급 호텔에 호화로운 식사, 값비싼 양복까지. 배우 알 파치노의 시각장애인 연기가 인상적이다. **이내경**



다큐멘터리 영화 <불사조, 비상하다> 이인 보노트, 피터 에티드구이 감독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합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한 장애인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는 이 문구로 시작한다. 세 살 때 내전에 휘말려 다리를 잃은 멀리뛰기 선수, 수막염에 걸려 사지를 절단한 펜싱 선수 등. 그들은 치열하게 도전하며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패배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영상에 등장한 모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위대한 영웅들이다. **김규보**



20th ANNIVERSARY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 새로운 20년을 향한 비상을 시작하다

2001년 첫 개항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국제여객 수 세계 5위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하지만,
세계 최고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 큰 비상을 준비합니다.



2분 지연이 생명을 살리다

지난 1월 13일, 동대구역 역무실에 전화 한통이 걸려 왔다. 전화를 받은 최찬주 역무원에게 그날의 상황을 들었다.

정리. 표다정 사진. 신규철

-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장기이식 의료를 도우셨어요.** 이슈가 되었지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역무실에 상주하며 전화 응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니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사와 관련 부서에 상황을 전달하는 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에요. 인터뷰 요청을 하셨을 때 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저 혼자만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어요.
- **지난 1월 13일이었죠.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역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장기이식 의료가 서울로 이송할 심장을 구급차에 싣고 동대구역으로 향하고 있는데 열차 출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긴급한 상황이니만큼 빠르게 대전 여객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전실과 관련 열차, 역사 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대전 여객 상황실, 서울 구로 관제센터, 동대구역 운전실 등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에요. 열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당시 열차는 동대구역에 근접하는 상황이었어요. 구급차에 탑승한 분과 소통할 수 없어 구급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동대구역에는 출입구만 여섯 곳입니다. 어디로 올지 몰라 부역장님과 역 일대를 순회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동대구역에 열차가 도착했고, 잠시 후 열차 팀장님이 “의료진 탑승을 확인하고 출발합니

다”라고 무전을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역무실로 돌아와 지연 시간을 체크했더니 1분 조금 넘었더라고요. 열차 운행에 1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승차 대기 시간 2분에 1분 이상 지연됐으니 동대구역에서 거의 4분을 정차한 셈이죠.

- **‘지연’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다가오네요.** 근무 17년 차에 접어드는데, 가장 무서운 단어가 ‘지연’입니다. 역에 근무하는 분 모두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어요. 열차는 당연히 약속한 시각에 출발해야 하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기차가 또 지연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선로 공사, 열차 간 간격 조정, 승차차 시간 지연, 열차 이상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번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시각 전광판에 기차 지연 알림 안내가 뜨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 **뒷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때 심장을 이식받은 분은 소방관이며, 수술 후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무실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수백 명이 기다려준 2분이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분의 인생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역무실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화가 걸려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올바르게 신속한 판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 생명을 살린 따뜻한 이야기

1. **2020년 3월 28일 용산역** 문혜원 역무원은 승강장에서 임신부가 출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현장으로 향했다. 침착하게 임신부와 남편을 진정시키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경직된 몸을 마사지하며 산모가 안정을 찾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2020년 12월 4일 천안역** 맞이방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졌다. 윤산호 역무팀장은 신속한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단 결과 뇌출혈이었고, 골든타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외국인은 사망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환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3. **2021년 1월 30일 조치원역**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 시민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했다. 최유환 조치원역 사회복무요원은 역무원에게 연락을 취해 운행 중인 열차를 멈추게 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선로에 내려가 쓰러진 시민을 구조했다.



소무의도 무의바다누리길

황인찬

끝이 보이는 바다는 처음이야
너는 말했지

한국의 바다에는 끝이 있다 세계의 모든 바다에도 끝이
있고, 바다 건너 어딘가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도 끝이 있고

바다에 끝이 없다고 누가 했는지

파도에도 끝이 있고, 해변의 모래에는 끝이 있고, 바다의
절벽에도, 바다 절벽 위의 소나무에도, 파도가 깎아놓은
몽돌에도 끝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끝을 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 속에서

끝이 있는데도 끝이 나지 않는 날들 속에서

사랑을 하면서

계속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육지가 보이는 섬의 해변에 앉아
있었다

돌아가는 배 위에서는 멀미하는 너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고

쓸쓸해도 나쁘지 않아

이 시를 소리내어 몇 번을 읽으며 황인찬 시인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했다.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아무래도 지인이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인찬이는
저기에서 왜 저렇게 쓸쓸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도
그 감정을 느껴 보려고 한 거겠지? 이 연재를 매달 하면서
나는 시를 읽는 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적어 왔다. 독자 입장에선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시인은 시인이고 나는
나니까. '내' 감정을 위해 시를 읽는 거니까. 하지만 시인을
이해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여전히 남의 감정 같은가?
그 한 사람이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시를 쓴
사람인지, 시를 읽는 사람인지 어느 누가 될지 나도 모른다.
누군가가 되어 본다는 일,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감정이
되어 본다는 일은 멋진 경험이라고 나는 믿는다. 갑자기
본질적인 얘기를 툭 던지는 것 같지만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 타인이니까. 나는 이 시를 읽고 쓸쓸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끝'이라는 단어, 끝나지 않는 것과
끝나는 것 사이의 우주를 상상했기 때문일까? 나 역시
한 명의 시인으로서 황인찬 시인이 그 우주를 덩덤하게
작고 일상적인 순간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 부러웠다.
그는 그저 어느 저녁의 단상을 기록한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내 쓸쓸함은... 내가
인찬이처럼 쓸 수 없어서, 막막함과 부러움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당신의 쓸쓸함은 어떻게 당도하였나요"라고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각자의 감정이
있겠지. 이 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끝이 난다.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무슨
말이든 더 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그냥 나를 생각했다. 내가 겪은 어떤 기억과 다가올 어떤

순간을 생각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들,
그래서 다행인 것과 불행인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는데 여기 적진 않겠다. 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멀거니 가까운
육지를 바라봐야 할 때도 있다. 멍하니 서 있을 때 그곳이
섬이 아닌 적이 있었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찬이가 시를 저 즈음에서 끝마친 건 기교
따위가 아니다. 삶은 종종 여행에 빚대어 묘사된다.
나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묘사에 공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나를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정말 오랫동안
나를 찾으려고 세계를 떠돌아다닌 것 같기는 하다.
현실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만지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일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 진짜 나도 멋진 사람이
아닐까 봐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드는 내가 나타날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여행이라면 여행일까? 끝이 있기는 하고?
소무의도는 인천 무의도에 속한 작은 섬이다.
소무의도라는 이름은 꽤 멋지게 읽힌다. 명확하게
이름이라고 할 수 없긴 하다. 떼무리라고도 불리는데
어떤 의미인지 나는 모른다. 무의바다누리길은 무의도로
들어가는 길이며 나오는 길이다. 나는 가 본 적이 없다.
다만 소무의도라고 적고 무의바다누리길이라고 적으면
무슨 문장을 더하든 시적일 것 같다. 시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고 이 글은 유난히 '모른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만은 시적인 것을
쓸쓸한 것이라고 한정해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문장 다음에 이어질 한 문장을 알 수 없을 때, 그 막막한
마음도 여행일까? 모르는 세계로 발을 내딛는 마음,
우연히 거기서 아주 멋진 나를 만난다면 좋겠다. 가까이
그 여행을 떠나야 한다. 육지가 아닐 수도 있다. ☑



↑ 아트 두바이(Art Dubai)

3~4월 두바이에서는 문화 예술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 중 세계적 아트 페어 반열에 오른 아트 두바이는 '두바이 아트 시즌' 대표 행사다.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건국 50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페로탱, 콘티누아 갤러리, 레일라 헬러 갤러리 등 세계 31개국의 50개 갤러리가 참여해 각국의 훌륭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 미래 박물관 (Museum of the Future)

지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누구나 궁금해한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신상' 관광지인 미래 박물관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창조한다는 주제로 건강, 과학 등 여러 방면의 기술 발전상을 탐구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관람 포인트는 독특한 건축물. 스테인리스스틸로 설계한 커다란 도넛 모양 외관에 아랍어로 장식한 건물이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을 선사한다. 두바이의 중심 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로드 옆에 자리해 접근성도 좋다.

↓ 선언 by 엘 시드 (Declaration by eL Seed)

튀니지계 프랑스 예술가 엘 시드는 아랍어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을 구상하기 전 도시와 관련해 화두를 정하고 건물 벽에 캘리그래피를 남겨 '캘리그래피티' 작가로 불리는 그는 두바이에는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를 남기고자 했다. 회색 벽면에 핑크빛 물결이 넘실대는 작품을 완성한 후 "내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도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작품은 두바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합,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전한다.

예술로 물든 황금빛 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 남동쪽 해안에 자리한 아랍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가 세계 미술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글. 도지영(두바이관광청) 진행. 이내경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할리파, 사막 위 스키장, 야자수 모양 인공 섬. 두바이에서는 꿈이 현실이 된다. 이곳이 세계적 도시로 거듭난 계기는 한계를 두지 않는 상상력 덕분. 두바이는 경기도 절반 정도 되는 면적에 200여 개국 사람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생각도, 문화도 글로벌한 도시다. 외국인 비율이 80퍼센트가 넘는 만큼 다채로운 예술이 풍요롭게 공존한다.

사진 제공: 두바이관광청





Film x Train



<15시 17분 파리행 열차>, 클린트 이스트우드 연출, 2018

열차 안 테러범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영화 <15시 17분 파리행 열차>에서 말한다. 우린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15시 17분 파리행 열차>라? 금시초문인 영화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대체 어떤 기차였을까? 2015년 8월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탈리스 고속열차 안에서 한 테러범이 총기를 난사하려다 승객들에 의해 제압된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범 야유브 엘카자니는 열차에 탑승하면서 자동소총과 총알 270발, 권총, 칼, 휘발유가 담긴 병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 정보기관들의 요주의 인물이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유유자적 기차에 올랐다. 당시의 용감했던 승객 중에는 세 젊은 미국인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나 성장해, 작심하고 유럽 여행 중인 평범한 여행객이었다. 젊음 특유의 허세로 자신들을 소개하는 '블랙 맨' 앤서니 새들러와 두 백인 스펜서 스톤, 알렉스 스칼라토스다. 앤서니는 직장인이고, 스펜서는 낙하산 부대에서 복무하고 싶었으나 끝내는 응급처치 부서에 들어가게 된 공군이며, 알렉스는 충실한 육군이다. 한데, 흥미롭게도 이 세 캐릭터와 배우들의 이름이 동일한 게 아닌가. 연기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실제 인물이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

명색이 영화 평론가이건만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만큼 그들의 연기가 그럴듯하고 실감 넘쳤다. 그도 그럴 것이 감독이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영화인' '세계 영화계의 살아 있는 전설' 등으로 일컬어지는 91세의 노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닌가. 정치 성향은 다르나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영화 아티스트. 문득 영화 <기생충>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2019년 7월에 했던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화가 떠오른다. 봉 감독은 <라스트 미션>(2018)에 대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랜 토리노"(2008)로 배우로서는 은퇴하신다고 했잖아요? 웬일로 그걸 반복하고 다시 돌아오신 거지, 싶었는데 영화를 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 육체의 늙음, 그 늙음 자체가 캐릭터고 즐거이고 주제의 핵심에 다가야 있는 건데, 분장조차 필요 없는 90세의 늙은 상태를 스스로 보여 주면서, 왜 본인이 직접 연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되면서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준호다운' 분석이었다.



이쯤 되면 '영화 속 기차' 칼럼 네 번째 순서로 왜 이 영화를 소개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터. <15시 17분 파리행 열차>는 국내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거장의 근작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보기를 바라는 것일까. 영화를 향한 평가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랜 토리노>를 포함해 <밀리언 달러 베이비>(2004), <미스틱 리버>(2003), <용서받지 못한 자>(1992) 같은 수작·걸작에 비하면 적잖이 아쉬운 게 사실이다. 미국의 영화 전문 사이트 'IMDB'를 들여다보니 평가가 평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네티즌 평점이 10점 만점에 5.3점, 170여 명의 평론가 중 45퍼센트만 영화를 지지할 따름이다. 그간 이 지면에서 소개한 영화와 비교해 열차의 비중도 현저히 낮다. 통틀어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열차를 주인공이라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열차의 질적 의미나 임팩트만은 그 어느 영화 못잖다.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다. 화장실에서 테러를 준비하는 범인과 처음 대면해 대결을 벌이는 인물이 세 주인공은 아니다. 그들에 앞서 한 중년 승객이 몸싸움을 벌이다 등에 총을 맞고 쓰러진다. 직후 사태를 알아챈 스펜서가 주저 없이 뛰쳐나가 괴한을 쓰러뜨리고, 다른 두 친구가 합세해 제압한다. 그 과정

에서 스펜서가 테러범에게 수차례 칼질을 당하지만, 굴하지 않고 주짓수 기술로 기절시킨다. 그리고는 총에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구한다. 그렇게 그들은, 자칫 비극적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을 500여 명의 승객에게 안전을 되돌려 준다. 그들이 프랑스에서나 고향 새크라멘토에서나 영웅으로 추앙·대우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단짝 친구의 우정담도 새로운 것은 없어도, 주목에 값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수업 시간에 복도를 서성인다는 등의 이유로 일찌감치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혀 모범적(?)이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낸 세 친구의 관계가 위대한 영웅담의 초석이 되는 것. 영화는 앤서니를 통해 역설한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랐다"라고. 그것은 개인적 용기일 뿐 아니라 인류애의 발현·표출이기 때문. 다소 소박한 감은 있어도 <15시 17분 파리행 열차>는 작금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곱씹게 하는 성찰의 힘을 지니고 있다. 2009년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한 비행기 추락 사고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극화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2016)의 이란성쌍둥이 격인 문제작으로... K





<꽃길도 걷고 꼬부랑길도 걷고>

날마다 길을 만난다. 어디는 곧게 뻗었지만 어디는 막혀 에둘러야 한다. 그래도 간다. 걸음마를 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어도 매일 길을 걷는다. 꽃길, 에음길, 비탈길 등 스물아홉 가지 길을 따듯한 그림, 동시와 함께 동화로 표현했다. 주인공 아이는 길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세상을 엿본다. 앞으로, 때론 돌아서 걸어 나가는 동안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어른이 읽어도 좋은 이야기다. **이성자** 지음 **양상용** 그림 **해솔** 펴냄



<한 권으로 배우는 음악 이야기>

무심결에 듣고 흘리던 음악이 어느 때엔 가슴을 흔든다. 감각과 지각을 건드리고 기쁘거나 슬픈 정서를 일으켜 그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긴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음악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 걸까. 서울시립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장인 저자가 음악의 구조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 역사에 남은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듯 세심히 설명한다. 여기에 음악가들의 숨은 이야기까지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나오는 음악이 새삼 다르게 들린다. **전기홍** 지음 **상상출판** 펴냄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제목 그대로다. 끝날 줄 알겠지만 실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가혹한 잣대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이 존재할 뿐이다. 마른 몸매를 만들고자 거식증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프로아나'가 유행인 시대,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섭식장애에 시달리던 저자는 그런 세대에 분노한다. 프로아나는 마음의 병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섭식장애를 겪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여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담백하게 펼쳐진다. **김안젤라** 지음 **창비** 펴냄



<메트로폴리스>

현재 인류의 삶은 도시를 떼어 놓고 말하기 힘들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수도권에만 한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산다.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가 누리는 특권과 촘촘하게 얽힌 관계망에 기인하나, 코로나19 사태가 대변하듯 도시의 특성은 인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세계 26개 도시의 상업, 무역, 예술 문명사를 연대기순으로 살핀다. 번영과 쇠퇴의 역사에서 도시의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벤 윌슨** 지음 **박수철**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찰랑이는 머릿결을 위한 완벽한 선택!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도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 하나면 머릿결은 물론 두피, 피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나노이온과 더블 미네랄로 매끄러운 머릿결 완성

건강한 두피에서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자란다. 나노 입자와 더블 미네랄 이온을 공급하는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은 피부를 한층 탱탱하게 만들고 모발을 아름답게 가꾼다. 더블 미네랄이란 두 개의 이온 전극에서 생성된 미네랄 이온을 말한다. 나노 입자와 더블 미네랄 이온은 모발은 물론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 큐티클을 단단하게 닫아 자외선에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한다.

특수 모드 기능으로 모발, 두피, 피부를 한 번에 관리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의 다양한 기능은 모발, 두피, 피부를 일상에서 손쉽게 케어하게 돕는다. 약 50도 온도로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보습보송하게 말리는 두피 케어 모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보습감을 선사하는 스킨케어 모드, 모발에 윤기를 더하는 고온-저온 교대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특히 센서가 주변 온도를 측정해 바람 온도를 알맞게 바꾸는 스마트 온도 조절 모드는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젖은 머리카락을 두피 자극 없이 말리는 데 효과적이다.

인체 공학적 설계와 실용적인 디자인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EH-NA98은 관리하기도 간편하다. 화장지로 닦을 수 있는 방진 사양의 필터, 버튼 터치 한 번으로 바람 온도를 조절하는 멀티 모드, 부드럽게 조작되는 슬라이딩 스위치, 원하는 공간에 보관하기 쉽도록 접히는 손잡이 등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색상은 핑크 한 가지이며, 가격은 17만 9000원이다.

구입 문의 02-542-8452

EXHIBIT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위성>

석유파동을 겪은 한국은 1978년 서울에 석유비축기지를 세운다. 가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던 그 격동의 시대를 석유비축기지 유물 자료 88점과 예술 작품 등 총 134점을 통해 문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권민호 작가는 당시 사회상을 투영한 도상을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이발소 간판+레미콘+석유시추기'를, 양영신 작가는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던 시기의 배관으로 삶의 연속성을 은유한 미디어 작품 'Flow 흐름'을 선보인다. 기간 7월 25일까지 문의 02-376-8410(서울 문화비축기지)



<이불-시작>

세계적 작가 이불의 활동 초창기인 1987년부터 이후 10여 년의 작업을 조명한다. 인체 재현 방식을 실험하던 대학생 시절 퍼포먼스 비디오와 사진 기록 70여 점, 미공개 드로잉 50여 점, 조각과 오브제 10여 점을 통해 지금까지 유효한 주제 의식을 엿본다. 1988년 첫 개인전에서 소개한 '무제(갈망)' 연작 등을 감상하고, 작가의 초기작에 대한 기록물을 집대성한 450페이지 분량의 출판물도 구매할 수 있다. 기간 5월 16일까지 문의 02-2124-8800(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만물산중서용선繪畫>

비운의 왕 단종을 비롯한 역사 속 장면과 오늘날 세상을 치밀하게 압축하는 특유의 기법으로 묘사해 온 화가 서용선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반듯하던 미술관 내부 곳곳을 분할한 뒤 120여 점을 촘촘하게 배치해 회화의 산중인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전시는 2014년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한 작가의 대표작과 최신작을 아우르며 올해 3차에 걸쳐 열린다. 캔버스를 물들인 붉고 푸른 원색이 과거와 현재를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기간 6월 20일까지(1차) 문의 031-884-8803(여주미술관)



<한성필 개인전_FAÇADE DISSIMULATION>

전 세계 도시를 찾아다니며 복원 현장의 가상 파사드를 카메라에 담던 한성필 작가는 2009년을 기점으로 건물 외부에 직접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가상 파사드는 현재 존재하는 피사체인 동시에 미래엔 그곳에 있지 않을 새로운 세계였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인 듯 기묘한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파사드, 극장 벽면에 새긴 할리우드 촬영 현장 파사드가 보는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묻게 한다. 기간 4월 29일까지 문의 031-712-7528(성남아트스페이스J)

Panasonic

프로모션



슬기로운 '집콕' 생활 파나소닉 스마트 청소기 라인업

코로나19로 모두가 강제 '집콕족'이 된 요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늘었지만 여유로운 일상 은 먼 이야기다. 재택근무를 하느라 업무는 바쁜데 요리를 하면서 집안일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소라도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파나소닉 코리아가 각기 다른 뚜렷한 개성을 지닌 청소기 3가지를 선보였다.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갖춘 만능 잇템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청소기 시장에 처음 진출해 초경량 무선청소기 MC-WDD91과 물걸레 로봇청소기 MC-WMD85를 출시하고 12월에는 진공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하는 멀티 무선 진공청소기 MC-SD787을 내놓았다.

무거운 청소기는 이제 안녕!

초경량 무선청소기 MC-WDD91
청소기가 어디까지 가벼워질 수 있을까? 이 제품은 가볍고 견고한 ABS 플라스틱을 소재로 해 1.0킬로그램* 초경량 무게를 자랑한다. 손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마루·장판·대리석·카펫 등 다양한 소재의 바닥을 간편하게 청소한다. 기능도 훌륭하다. 스마트 먼지 센서를 탑재해 미세 먼지·진드기 등을 감지하고 표시하며, 흡입력을 자동 조절해 청소 효율을 극대화한다. V자형 고속 롤러 브러시는 각종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멀티 흡입구로는 청소가 힘든 좁은 공간이나 가구 틈새의 먼지도 말끔히 처리한다. 매트 한 걸음의 몸체와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 제품이 집 안에 심플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한다.

* 헤드, 노즐, 연장관을 제외한 본체 무게

청소기 하나로 모든 청소 해결

멀티 무선 진공청소기 MC-SD787
진공청소기에 물걸레 청소 기능을 탑재한 만능 해결사다. 머리카락 4분의 1 굵기인 2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먼지까지 감지하고, 먼지의 양에 따라 흡입력을 자동 조절하는 파나소닉만의 독보적인 먼지 감지 시스템을 적용했다. 노즐이 벽면에 닿을 때 노즐 커버가 위로 개방되어 모서리 틈새 먼지도 완벽히 제거하고, 1.15킬로그램* 초경량 무게 덕분에 사용자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물걸레 청소 기능도 이 제품의 특징점. 일회용 물티슈 장착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고, 물걸레 헤드가 1분에 600~800회 고속 회전해 이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침구용 흡입구와 틈새용 흡입구도 제공한다.

먼지 하나 없이 꼼꼼하게

물걸레 로봇청소기 MC-WMD85
컴팩트한 사각 디자인을 채택해 원형 로봇청소기보다 더욱 깔끔하게 벽면과 모서리를 청소한다. 본체 높이가 약 8센티미터로 침대나 소파 아래 공간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도 문제없이 처리한다.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다 물티슈 탈착이 가능하고, 청소 중 걸레 면을 자동 회전하는 기능까지 갖추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SLAM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청소 경로를 계획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인식하는 청소기는 반복과 누락 구간을 최소화하는 똑똑한 제품이다. 장애물을 인식하거나 낙하를 방지하는 적외선 센서와 추락 방지 센서를 탑재해 공간 전체를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청소해 준다.

* 파나소닉 청소기는 온라인 쇼핑몰 및 전국 파나소닉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2021 교향악축제>

2021년을 맞아 21개 교향악단이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변화한 우리 음악계의 현재와 미래를 연주한다. 소편성 작품부터 객석을 압도하는 대곡까지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구성한 이번 축제는 2012년 21회 축제 이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약 한 달간 공연하는 만큼 한국 곳곳 다양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데, 김대진·임현정·정민 등 신구 세대 지휘자가 총출동해 기대를 모은다.
기간 4월 22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용화향도>

정동극장이 지난해에 이어 '경주브랜드공연'을 선보인다. 올해는 신라 진평왕 시절 화랑 김유신이 승리를 이끈 낭비성 전투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로, 청춘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다. 화랑 김유신이 용화향도를 결성하고 가야의 후손이라는 과거와 신라의 화랑이라는 현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모든 국경이 사라진 하나의 나라를 꿈꾸는 내용이다. 100분 동안 배우 20여 명이 극을 박진감 넘치게 이끈다.
기간 11월 27일까지 **장소** 경주엑스포대공원 문의 054-740-3800



<제이>

초연 당시 "한국 전통 춤에서 볼 수 없는 웅장하고 섬세한 군무의 위용을 선보였다"라고 극찬받은 작품이 6년 만에 돌아온다. 제목 '제이'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제례 의식 춤. 8장으로 나누어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와 사상을 대표하는 의식 무용이 무대에 펼쳐진다. 안무는 2013년 <묵향>을 성공리에 이끈 안무가 윤성수가 맡았다. 그가 특별히 공들인 6장의 주제는 '제전'. 원시적 춤과 몸짓이 10여 분간 격정적으로 휘몰아친다. **기간** 4월 3일~4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문의 02-228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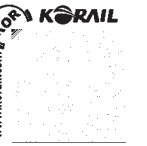


<광주>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대에서 울려 퍼진다. 지난해 초연 당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고 창작 부문 프로듀서상을 받은 작품이다. 윤상원 열사를 모델로 한 윤이건 역에는 민영기와 김종구가, 시민 틈에 잠입해 혼란을 일으키는 특수부대편의 대원 박한수 역에는 민우혁과 신우가 연기한다.
기간 4월 13일~25일 **장소** 서울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MOVI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월>

2014년 4월 16일. 날짜만 봐도 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주현숙 감독은 유가족이나 당사자가 아니라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다. 교사, 카페 사장, 인권 활동가, 진도 어민, 학생 등 다양한 사람이 그날의 일상을 꺼내 놓는다. 같은 기억을 안고 사는 이들이 건네는 위로에 마음 한편이 아려 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 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4월 1일 개봉. **감독** 주현숙 **출연** 이유경, 조수진



<인컨스텔라>

27년 전, 의문의 구조 신호가 지구에 도착했다. '갬성'이라는 머나먼 별에서 보낸 메시지에 아시아항공우주국은 급히 비밀 탐사대를 꾸린다.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모험기다. 한국 독립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우주 배경의 SF 영화로 예상외의 CG 효과와 비장한 사운드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급지원상, 춘천영화제 춘천의 시선상을 받았다. 3월 25일 개봉. **감독** 백승기 **출연** 손이용, 강소연



<파리의 별빛 아래>

프랑스 파리에서 노숙인으로 지내는 크리스틴은 아프리카 난민 소년 솔리와 마주친다. 솔리는 낯선 도시에서 엄마를 잃어버려 미아가 됐다. 그런 솔리가 안타까운 크리스틴은 엄마 찾는 여정에 동행한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감정은 전해진다. 노숙인과 난민, 두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은 싸늘하지만, 그럼에도 곳곳이 앞으로 나아간다. 슬픔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두 사람의 여정이 진한 감동을 준다. 4월 개봉. **감독** 클로스 드렉셀 **출연** 캐서린 프로, 마하마두 야파



<와일드 마운틴 타임>

아일랜드에 사는 안토니와 로즈메리는 서로 좋아하지만 친구 관계에 머물렀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로즈메리와 달리, 연애에 서툰 안토니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안토니의 사촌 아담이 등장하면서 달라진다. 아담과 로즈메리가 가까워질수록 안토니와 로즈메리의 관계는 계속 어긋난다. 1988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은 존 패트릭 샌리 감독이 감성적인 로맨스 영화로 돌아왔다. 3월 24일 개봉. **감독** 존 패트릭 샌리 **출연** 에밀리 블런트, 제이미 도넨

Adventures in Pyeongtaek

Article and photos by Jennefer Barua (Korea Travel Qrator, Canada)

My curiosity for treasures has led me to travel to some interesting places that are lesser known among tourists. This is how my visit to Pyeongtaek started. I was told by everyone that I was going to a place with nothing to see or do. I refused to accept this answer, and kept digging for the treasures that Pyeongtaek had yet to reveal to me. The Pyeongtaek city website unveiled an interesting destination: a temple named Mangisa that was supposedly built in 942 A.D. This immediately piqued my curiosity, and I decided I had to see this temple myself. Mangisa was very different from any other temple I visited in Korea. There were beautifully intricate stone Buddhas and pagodas on the outside. Just by walking through these grounds, I could tell that its layout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emples. I was glad I was able to make this trip as every moment was worth my while. To my delight, my hotel happened to be a 5-minute drive away from the Seohaedaegyo Bridge in Korea! As I went over the Pyeongtaek Tourist Map, I came upon a lake area that was designated as a tourism complex. There, I was greeted by a lovely view of the waters, and noticed a very long bridge under construction. Paddle boats are available for rent in warmer seasons. Other facilities include a drive-in theater, and an art exhibition hall shaped like a pyramid! With a little exploration of this area, you will discover plenty of Instagram-worthy photo spots. It is a cute little place for a stroll and some fun sightseeing! 📷



Traveler's Room

Ramada Pyeongtaek The hotel's location is perfect for anyone planning on going on a cruise departing from the Pyeongtaek International Ferry Port, it being only a 5-minute drive away. Upon entering the hotel, I was immediately in awe of the grandness of the lobby. The room itself was very welcoming and comfortable, and equipped with every toiletry you could ever imagine needing. The bathrooms were clean and brightly lit. It was very easy to make myself feel right at home in the room, which also came with a mini fridge. The hotel provides breakfast for early risers so make sure you get there on time! Those traveling with children can enjoy the play area on the lower levels. **031-220-7810 www.ramadapyeongtaek.com**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동년배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 줄기세포 치료

노화 시계를 늦춰 주는 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한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 나이를 젊게 지키는 것이다.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노화를 예방하지만, 이미 노화된 신체를 젊게 되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 나이를 유지하는 비결은 스테미너 넘치고 통증 없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이들이 주목하는 게 줄기세포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는 재생 의학의 꽃이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력을 증진하며 활력을 부여해 노화 시계를 늦추기 때문이다. 전신 체력 증진부터 피부 미용, 탈모 관리, 통증 완화, 성 기능 강화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활기를 충전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에게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에 대해 들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 특화 의료 기관으로, 청셀·성셀·미셀·활셀 등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기초 체력, 면역력 업그레이드 '청셀'

외모 나이는 젊지만 체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고민하는 이에게는 '청셀'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배양 없이 고농축한 자신의 줄기세포를 링거로 주입해 항노화와 면역 증진 효과를 낸다. 반나절이면 치료가 마무리돼 부담이 적다. 조 원장은 "정제된 줄기세포는 손상된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신생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향상한다"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 긍정적 결과를 얻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청춘의 열정 되찾아 주는 '성셀'

갱년기 이후 성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남녀를 위한 치료다. 각각 음경해면체와 질 내에 줄기세포를 주입, 혈액순환을 촉진해 성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남성은 나이 들수록 발기력과 음경 강직도가 저하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더더지며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혈관이 생성되고 혈류가 증가해 도움이 된다. 기저질환이 있어 기존 발기부전 약물을 복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탁월한 선택이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여성호르몬

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흔히 겪는다. 조 원장은 "질 내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혈류가 개선돼 성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시간의 흔적 지우는 '미셀' '모셀'

줄기세포는 미용 목적 치료에도 활용된다. '미셀' 프로그램은 피부를 젊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화로 얇아지고 잔주름이 잡힌 피부 결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개선한다. 고농축 줄기세포를 피부에 일정 간격으로 주사하면 피부 진피층에서 사이토카인 성분이 활성화되며 피부 미용 효과가 나타난다. 두피에 주사한 줄기세포는 탈모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줄기세포가 모발 밀도를 높이고 새로운 모낭이 생기도록 돕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부쩍 가늘어진 것 같을 때 '모셀'을 고려할 만하다.

튼튼한 관절을 위한 '활셀'

'활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돕는 줄기세포 통증 관리 치료다. 통증 부위에 포도당을 고농도 주사해 약해진 연부 조직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와 자가 조직에서 얻은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핵심이다. 줄기세포 치료로 재생력을 높여 통증을 줄이고, 프롤로 치료로 문제 부위를 강화한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이미지투데이 제공



자료 협조. 에스본코리아

* 다음 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봐주세요.



*정답

INFORMATION

<숨속에서 너도 찾았니? 머리가 좋아지는 숨은그림찾기>

“허리띠를 잃어버렸어. 찾아 줄래?” 귀여운 동물이 건네는 물음에 답하며 숨은그림을 찾는다. 나무에 동지를 튼 새, 육지와 호수를 오가는 수달 등 동물마다 특징을 살린 일러스트는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커스틴 롭슨 지음 가레르 루카스 그림 에스본코리아 펴냄

휘닉스 평창

포레스트 파크에서 즐기는 봄

강원도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휘닉스 평창의 포레스트 파크로 봄나들이를 떠난다. 다양하색 봄꽃이 반겨 주는 웰니스 숲길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도 걷기 좋은 산책 코스다. 생동하는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알맞다. 드넓은 자연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관광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50미터 몽블랑 정상에 올라가자. 봄바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강원도의 수려한 풍경이 눈을 맞춰 온다. 특히 이곳은 해가 질 무렵에 더욱 아름답다. 액티비티를 원하는 여행자에게 루지 체험을 추천한다. 루지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기분이 상쾌하다.

☎ 1577-0069 www.phoenixnr.co.kr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스프링 풀 패키지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에서 봄맞이 ‘스프링 풀 패키지’를 내놨다. 객실 1박을 기본으로 웰니스 클럽과 아쿠아 클럽 이용권을 포함해 완벽한 호캉스를 누린다. 웰니스 클럽이 운영하는 요가, 명상, 피트니스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쿠아 클럽의 인도어 스파, 야외 저쿠지, 사우나 시설에서 지친 심신을 달랜다. 패키지 이용객을 위해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한 로미지안 가든 입장권도 준비했다. 예약일 기준 선착순 100명에게 손세정제, 핸드크림 등으로 구성된 오센트의 핸드 기프트 세트를 증정한다. 기간은 5월 31일까지.

☎ 033-560-1111 www.park-roche.com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다이닝 스테이케이션 패키지

전국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21개 호텔이 봄날 입맛을 돋우는 ‘다이닝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공동으로 선보인다. 투숙하는 호텔 식음료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음료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패키지로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브랜드인 JW 메리어트부터 셀렉트 브랜드인 피어필드까지 다양한 지역의 브랜드에서 진행되는 데다, 호텔마다 다른 혜택을 마련해 선택의 폭이 넓다. 일부 호텔에서는 체크인 후 24시간 혹은 30시간까지 투숙 시간을 늘려 숙박객의 편의를 돕는다. 투숙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4월 27일 안에 예약해야 한다.

☎ www.marriott.co.kr



<KTX매거진> 3월호를 보고 나서



대게, 구룡포의 참맛 김훈 셰프와 동행한 포항 대게 기사를 읽으니 바닷가 인근 시장을 방문해 직접 고른 해산물을 맛보고 싶어져요. 코로나여, 어서 떠나라~ 나도 포항으로 떠나리라~ 문성남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꽃처럼 볼처럼, 완주 엄마가 “여기 좋다”라고 말했던 곳을 <KTX매거진>에서 보니 반가웠어요. 더 늦기 전에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번 봄에는 엄마랑 완주에 있을 것 같아요. 고려진 세종시 달빛로



그래, 바로 여기 나의 집일세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 주로 유배 갔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열린 '세한도'를 보고 싶어요. 이지원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길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극락강역에서 예쁜 정원을 마주했어요.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 <KTX매거진> 과월 호도 있더라고요. 정원을 거닐고 잡지를 읽으며 오랜만에 힐링했습니다. 참, 친절하신 역무원님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박병선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02 회사 일로 한동안 목포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사진은 삼학도에서 바라본 유달산이에요. 봄이 되면 이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KTX매거진>은 목포에 언제 취재하러 오시나요?



관성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03 3월의 시작을 KTX-이음과 함께했습니다. 고향에 KTX가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KTX-이음을 타고 강원도, 경북 영주나 안동 등으로 여행가고 싶습니다.



김진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02 독자 평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05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를 뜻하는 문구 브랜드 모나미의 '153 네오 만년필 EF'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늘고 깨끗하게 필기할 수 있는 EF 펜촉을 탑재한 153 네오 만년필 EF는 모나미를 상징하는 육각 모양 보디에 '제트 블랙'과 파스텔 톤의 '클래식 베이지' '앤티크 카키' '코랄 핑크' 같은 트렌디한 색을 입혔습니다. 만년필 컨버터 1개와 블랙 잉크 카트리지가 2개로 구성된 선물을 4월 중 일괄 배송합니다.

* 네 가지 색상 중 랜덤 배송



바로잡습니다

<KTX매거진> 3월호 66페이지 '테마 여행' 기사 중 완주와 가까운 기차역은 익산역이 아닌 전주역입니다. '책 속 부록-경남관광두레' 기사 중 거제 근포마을회 부분에서 '경기관광박람회'는 '경남관광박람회'의 오타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7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시골 역의 벚꽃나무를 지나'

- 172 한국철도 소식
- 178 시간표
- 188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0 열차이용안내
- 192 비상시 행동 매뉴얼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50년 만에 값은 승차 요금, 사랑의 장학금으로

지난 3월 사업가 이정귀 씨가 대전 한국철도 본사를 찾아 취약 계층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면서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자는 1970년대 천안에서 서울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던 시절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자주 무임승차한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기차로 통학해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 마음의 빔을 내려놓고 싶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철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공익단체 철도공익복지재단을 통해 소중한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군 장병도 이제 모바일 승차권



철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군 장병도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 승차권을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서울, 울산, 계룡역 등 주요 역내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을 방문해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승차권을 예약하면 해당 장병 스마트폰의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 준다. 이후에도 한국철도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철도, 교육부 등과 직업계고 취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취업이 모두의 관심사인 시대, 지난 3월 한국철도가 세종시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교육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철도 분야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고졸 인재와 공공 기관이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한국철도의 역할은 직업계고 청년 기술 인재의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와 더불어 철도 분야에 고졸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컨설팅 매뉴얼을 구축해 다른 공공 기관에도 적용하도록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2012년 시작한 고졸 채용 전형으로 약 1500명의 고졸 신입 사원이 입사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사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하도급 문화는 투명하게, 근로자 권익은 잘 지키게

한국철도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란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 유용 등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조치로 기존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이 3000만 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도 원래 1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로 늘렸다. 근로 일수 누락을 방지하고 인력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다.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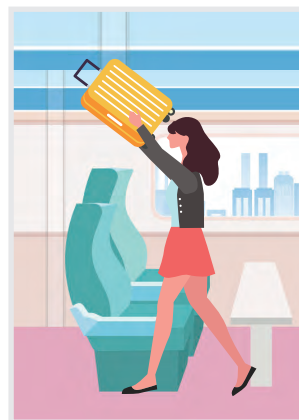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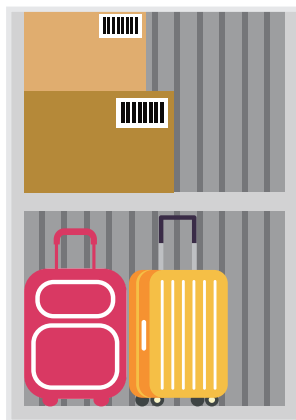
열차 내 휴대품 승차 기준

휴대품 승차 기준



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열차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수화물은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수화물 보관함 또는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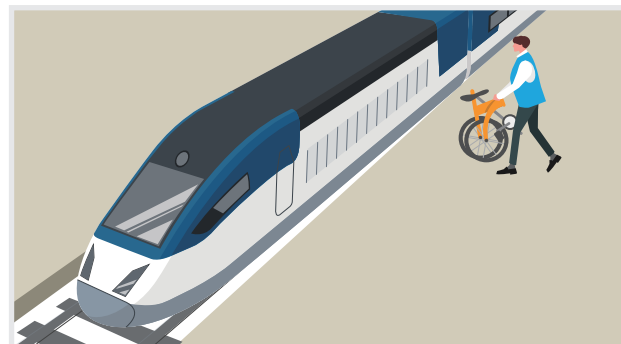
반려동물은 별도 운반 케이스에 넣어서 승차하셔야 합니다.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무게 10kg 이내의 개·고양이·새 등으로 길이 100cm(45×30×25cm) 이내 운반 용기에 넣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반드시 접어서 열차에 승차해야 합니다. 일체형 자전거의 경우 완전 분해해 가방에 넣어야 승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 한 사람 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녹화 및 녹음 중입니다



인권침해

성희롱, 폭행 및 폭언, 욕설 등



업무방해

고성, 기물파손 등 소란 피우는 행위



협박·위협

신변 위협, 인터넷 게재 협박 등



무리한 보상요구



철도 체험하고 인생 사진도 찍고 논산 연산역 여행



아이들과 즐기는 신나는 철도 체험

아이들이 언제나 좋아하는 철도. 연산역에서는 철도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다. 기관사와 역무원이 주고받는 수신호를 배우고, 기차길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 선로 전환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움직여 보기도 한다. KTX 포토 존은 기차 내부에 들어가 기차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마음껏 만질 수 있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차길에서 양팔 벌리고 걷는 레일버터플라이 공간과 레일바이크, 기차문화전시관, 어린이도서관과 놀이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준비해 지루할 틈이 없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를 관찰하는 토끼 농장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정겨운 역과 고풍스러운 급수탑

호남선 시대전역과 논산역 사이에 있는 연산역은 작은 시골 역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차츰 한적해진 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한국 최초의 '철도문화체험학습장'을 조성하면서부터다. 이후 해마다 2만 명 넘는 어린이 체험객이 찾는 한국 대표 테마 역으로 자리 잡았다. 등록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급수탑도 연산역의 볼거리다. 1911년에 세워 1970년대까지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한 중요 시설로, 전국의 몇 안 남은 급수탑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화강석을 원형으로 쌓아 올리고 위에 철제 물탱크를 얹은 모습의 탑을 바라보면 증기기관차의 경적이 귀에 들리는 듯해 마음이 아련해진다.



연산역은 전국 최초로 철도 문화 체험장을 운영한 한국철도 대표 테마 기차역이다. 무궁화호가 간간이 정차하는 작은 역이지만, 매년 2만 명 이상의 어린이 체험 여행객이 방문해 철도와 함께 논다. 논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부터 근대 문화와 병영 문화를 만나는 공간, 자연까지 둘러볼 곳이 많다.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75번길 31-2(연산역)
문의 | 042-253-7960(대전역 여행센터)

근대 문화를 찾아, 강경근대문화거리

일제강점기에 번성했던 강경읍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물과 거리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배어 있어 과거 속을 걷는 기분을 선사한다. 옛 조선 식산은행 일대를 중심으로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았고, 정비 작업도 정성스럽게 지속하는 중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추억, 선샤인랜드

논산 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훈련소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 스크린 사격, 비비탄 사격 등 병영 문화를 새로운 트렌드로 만드는 곳이 선샤인랜드다. 내부의 선샤인스튜디오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요 촬영지. 찍으면 찍는 대로 인생 사진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논산 돈암서원

조선의 대학자 사계 김장생을 기리는 서원으로 1634년에 세웠다. 보물 제1569호 응도당은 전국의 서원 강당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정면 길이가 16미터에 이르는 당당한 건물이다. 사계 선생이 후학을 기르던 양성당을 비롯해 유생이 공부하던 공간이 정갈하다.



아름다운 산책로, 탐정호

최대 3000만여 톤의 물을 저장하는, 충남에서 두 번째 큰 호수다. 산책만 해도 좋지만 잉어, 쏘가리 같은 담수어종이 풍부해 낚시꾼 사이에 명성이 자자하다. 지난 3월에는 동양 최장인 600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를 완공해 화제가 되었다.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신경주 新慶州	울산 蔚山	부산 釜山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Daejeon	Gimcheon (Gumi)	Dong daegu	Sin gyeongju	Ulsan	Busan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35	구포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3	15:00	15:22	15:35	15:52		16:35	16:53		17:21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4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부산 釜山	울산 蔚山	신경주 新慶州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Busan	Ulsan	Sin gyeongju	Dong daegu	Gimcheon (Gumi)	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월화수목 KTX-산천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1	08:08	08:32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4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산천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風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목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KTX-산천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KTX-산천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KTX-산천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KTX-산천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KTX-산천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KTX-산천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KTX-산천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KTX-산천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KTX-산천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KTX-산천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KTX-산천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KTX-산천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KTX-산천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KTX-산천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KTX-산천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KTX-산천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KTX-산천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KTX-산천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KTX-산천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KTX-산천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KTX-산천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KTX-산천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KTX-산천
863		19:55		20:22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30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49	15:04	15:27	15:39 공주 15:56		16:14	16:30	16:49		17:20	
423			15:36	15:51		16:21		16:49		17:18	17:28	17:53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05		13:23 계룡 13:38	논산 13:56 14:21	14:37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45 계룡 16:00	논산 16:18 16:43	16:59	17:26		17:45	18:00	18:14	18:22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3:0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54		금토일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풍기 豊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4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7	06:04	06:14 장성 06:29	06:47 김제 07:02	07:16 논산 07:41	계룡 07:59 08:15		08:40	09:06	09:22	09:27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33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6:00	16:27	16:37	16:56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월화수목 KTX-산천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금토일 KTX-산천
482	16:51	17:18	17:28 장성 17:43	18:01 김제 18:16	18:30 논산 18:55	계룡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영동 永同 Yeong dong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ITX-새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ITX-새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4	13:05			13:52	ITX-새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ITX-새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ITX-새
1023	12:53	13:02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ITX-새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ITX-새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ITX-새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45	00:57	ITX-새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4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영동 永同 Yeong dong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ITX-새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ITX-새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ITX-새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ITX-새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ITX-새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ITX-새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ITX-새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ITX-새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 eup	장성 長城 Jang 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ITX-새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대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ITX-새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ITX-새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대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ITX-새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대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ITX-새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 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장성 長城 Jang seong	정읍 井邑 Jeong 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ITX-새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ITX-새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ITX-새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대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ITX-새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대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ITX-새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대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 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 cheon	여천 麗川 Yeo 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05	08:12	08:34	08:53	09:06	09:50		10:21	10:47	11:03	11:30	11:41	11:53	12:09	12:24	12:32	ITX-새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12:12	ITX-새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 cheon	순천 順天 Sun 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 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ITX-새
1084	15:55	16:03	16:18	16:34	16:46	16:56	17:24	17:42		18:08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Suwon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 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 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창원 昌原 Chang 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 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09:52	10:13	10:37	11:28	11:44		12:13	12:19 경산 12:28	12:53	13:11	13:21	13:30	13:36	13:48	14:06	ITX-새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 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 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진영 進永 Jin 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30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ITX-새
1034	15:47	16:09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ITX-새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 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pgyo	홍성 洪城 Hong seong	광천 廣川 Gwang cheon	대천 大川 Dae cheon	웅천 熊川 Ung cheon	서천 舒川 Seo cheon	장항 長項 Jang hang	군산 群山 Gun 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새마을호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새마을호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ITX-청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ITX-청
2007	08:51	09:01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ITX-청
2101	09:57			10:14							10:51		11:06	11:09	ITX-청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ITX-청
2015	12:00	12:10		12:18				12:39			12:57		13:12	13:15	ITX-청
2019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ITX-청
2021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ITX-청
2025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ITX-청
2029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ITX-청
203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ITX-청
203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ITX-청
203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ITX-청
203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ITX-청
2079	20:32			20:49				21:10		21:23	21:31	21:40	21:49	21:52	ITX-청
2041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ITX-청
2047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ITX-청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ITX-청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ITX-청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ITX-청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ITX-청
207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ITX-청
2101	09:49			10:06			10:43		10:58	11:01	ITX-청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ITX-청
2017	10:59	11:09	11:13	11:17		11:49	11:57		12:12	12:15	ITX-청
2073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ITX-청
2021	11:57	12:07	12:12	12:17		12:49	12:58		13:12	13:15	ITX-청
2075	12:30			12:47	13:09		13:27	13:36	13:44	13:47	토 ITX-청
2025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ITX-청
2077	13:30			13:47	14:08		14:27	14:37	14:46	14:49	토 ITX-청
2029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ITX-청
2079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ITX-청
2033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ITX-청
2035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ITX-청
2081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ITX-청
2039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ITX-청
2083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ITX-청
2043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ITX-청
2045	18:26			18:44		19:16	19:24		19:39	19:42	ITX-청
2047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ITX-청
2085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ITX-청
2051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ITX-청
2053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ITX-청
2055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ITX-청
2087	21:50			22:07		22:39	22:47		23:02	23:05	토 ITX-청
2059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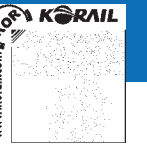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4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ITX-청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ITX-청
2074	07:24	07:28	07:37	07:46	07:54		08:07				08:30			08:48	ITX-청
2006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ITX-청
210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ITX-청
2014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ITX-청
2018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ITX-청
2020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ITX-청
2024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ITX-청
2028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ITX-청
203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ITX-청
203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ITX-청
2102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ITX-청
203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ITX-청
2040	18:54	18:58		19:13		19:31	19:36				19:53	19:58		20:12	ITX-청
2078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ITX-청
2046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ITX-청
2048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ITX-청
2004	07:07	07:11	07:19	07:26	07:34	07:47	08:10			08:26	ITX-청
2072	07:44	07:48	07:57	08:06		08:24	08:48			09:05	토 ITX-청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ITX-청
2008	08:47	08:51	9:00	09:09		09:27	09:50			10:07	ITX-청
210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ITX-청
2074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ITX-청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ITX-청
2076	10:49	10:53	11:02	11:11		11:29	11:51			12:08	토 ITX-청
2018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ITX-청
2078	11:53	11:57	12:06	12:14		12:32	12:53			13:10	토 ITX-청
2022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ITX-청
208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ITX-청
2026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ITX-청
2028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ITX-청
2082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ITX-청
2032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ITX-청
2084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ITX-청
2036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ITX-청
2102	16:55	16:59		17:14			17:52			18:08	ITX-청
2040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ITX-청
2086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ITX-청
2044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ITX-청
2046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ITX-청
2048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ITX-청
2088	20:00	20:04	20:12	20:21		20:39	21:02			21:19	ITX-청
2052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ITX-청
2054	21:15	21:19	21:28	21:38		21:56	22:				



일반 객실 |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 First Class Service

KTX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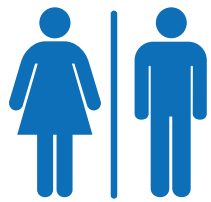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부가 서비스 | Optional Services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용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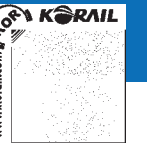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의 1588-0011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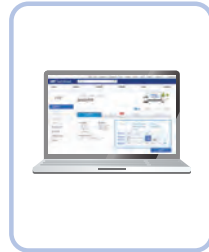
취급역 서울, 울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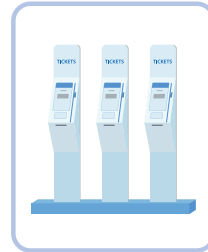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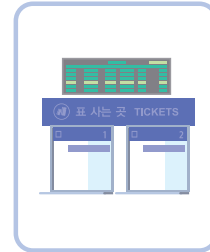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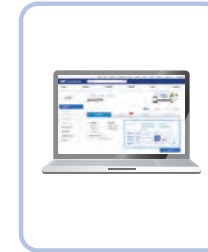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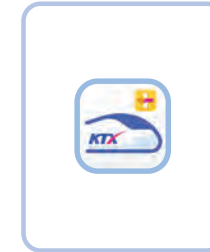
'네이버'·'카카오T'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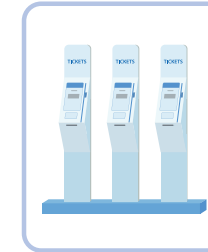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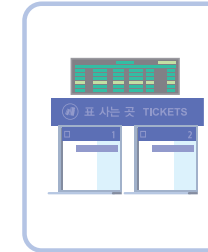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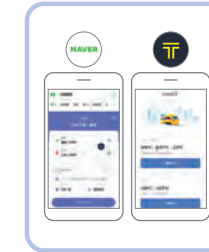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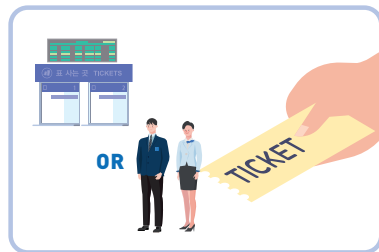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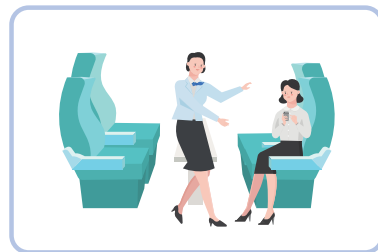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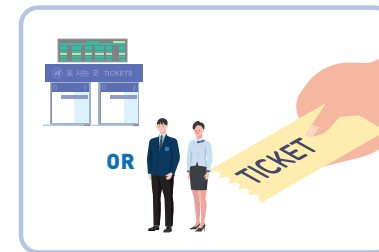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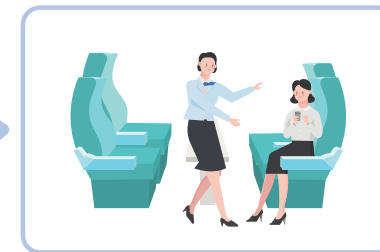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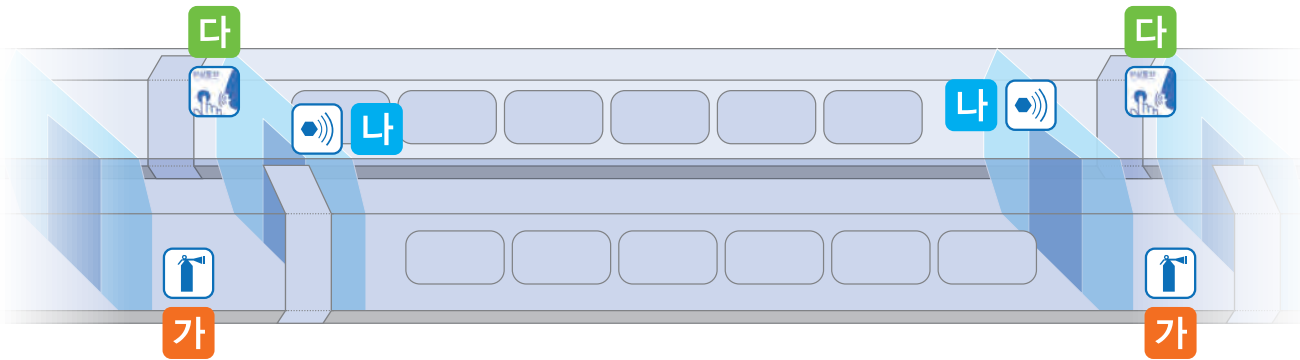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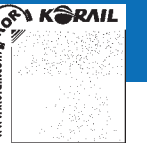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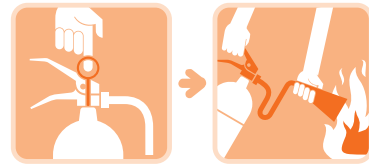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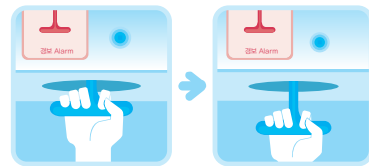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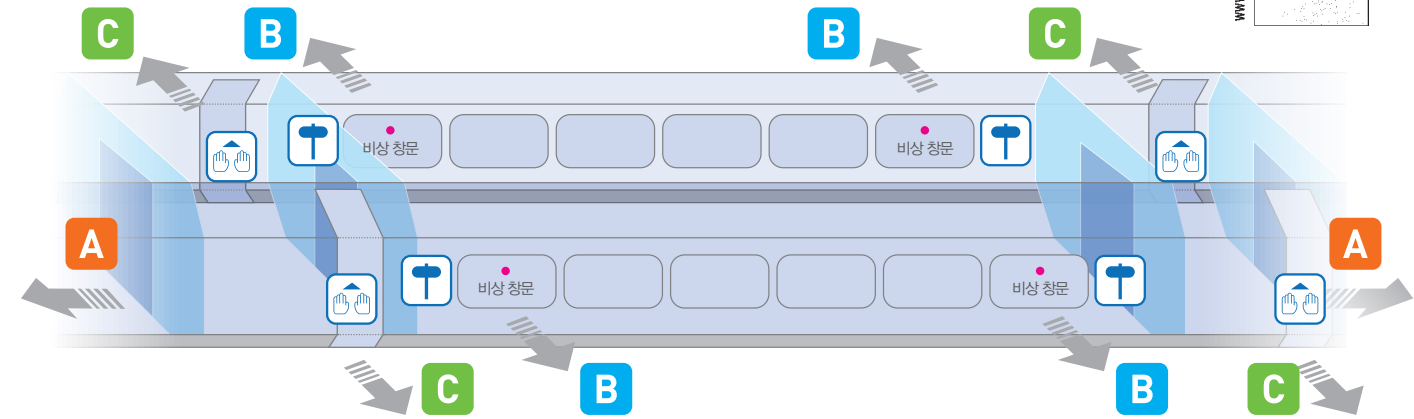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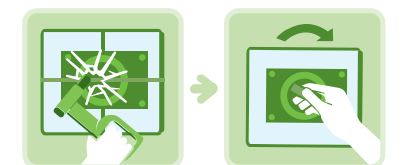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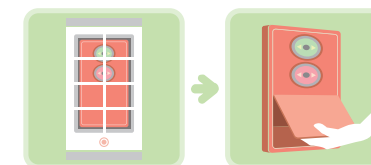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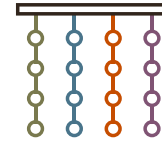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제54회

달콤한 문화제

OPEN 04.30 - 05.02 CLOSE

3일? 300개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외근 갔다 사무실에 오니 선배가 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너무 너저분해서 내가 못 참겠어." 선배의 마음까지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어 송구스러웠지만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 선배는 그날 이후에도 몇 번쯤 더 내 책상을 정리했다. <KTX매거진>에 처음 출간한 3년 전 그날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신 현재 상태로 돌아오지 못할 책상을 촬영했다(아래 사진). 각오했니? 시작할게. ㅎㅎ 그때부터 나는 늘 그랬듯, 열심히 올리고 광활하게 펼쳤으며 천장까지 쌓았다가 종종 무너뜨렸다. 얼마 전에 편집국장님이 책상을 치우는 게 어떻게느냐고 말씀하셨다. 느끼는 바가 있어 출근 직후 조금씩 청소했다. 3일째,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모르는 척하는 거겠지?' 하면서 내경 씨랑 주영 씨랑 다정 씨에게 물었다. "청소한 거라고요?" "그랬구나아...아?" 진짜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심지가 굳으니 계속 책상을 치울 예정이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300개월 뒤 '편집 후기'에 비포&애프터 사진을 공개합니다. 김규보

그림의 떡, 아니 카메라

잡지기자가 되고 나서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다. 혼자 촬영해야 하는 날을 대비해서다. 하지만 운이 좋은 덕분인지 촬영 대부분을 사진 실장님과 함께 했고, 몸값 비싼 카메라는 1년 365일 가운데 360일 정도는 나의 서랍장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당연히 촬영 실력은 '카린이(카메라+어린이)' 수준. 이번 호 '에디터 자유 여행'은 그 5일 중 하루가 되는 날이었다. 오랜만에 혼자 나서는 촬영이니 장비'부심'을 부려 보고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ㅠ 36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시장에 들어서니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모든 사진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 정신도 안드로메다로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와, 신세계. 이렇게 잘 찍힐 줄 몰랐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로 훌륭합니다(공서체). ps. 이번 호 '테마 여행' 취재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다. 바로 '물의 정원 자전거 대여점' 사장님. 양평 북한강철교에서 자전거 타고 싶으면 0507-1487-3691로 연락하세요~! 이내경



이달의 MVP 모음

1. 이번 '에디터 체험기' 사진은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다. 피자에 바질을 예쁘게 얹은 손, 소시지에 기름을 발라 윤기를 더한 손, 햄버그스테이크 소스를 맛깔나게 끼얹은 손... 그중 도움 MVP를 꼽자면 소시지와 햄버그스테이크에 멋들어진 그릴 자국을 만든 손이 아닐까.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용산구 통바비큐 맛집 '창주랜드' 이창주 대표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2. '책 속 부록' 영주 취재에 앞서 8년 전 여행 사진을 꺼냈다. 부석사, 선비촌을 돌아보고 '정도너츠' 본점에 들렀었다. 그때도 아름다운 부석사에 흠뻑 댄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내 풍경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을 리가. 그림에도 오랜만에 간 부석사를 마치 처음(!)인 양 둘러봤다. 한 8년 뒤에 또 방문해도 여전히 감탄을 자아낼 풍경이리라. 3. 이달 '전국 맛집 탐방' 취재엔 디자인팀 보영 선배와 동행했다. 사진가 은주 실장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을 때, 선배는 부지런히 영상을 촬영했다. 결과물은 <KTX매거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채널 구독하시고 굿즈 업서 받으세요)! 진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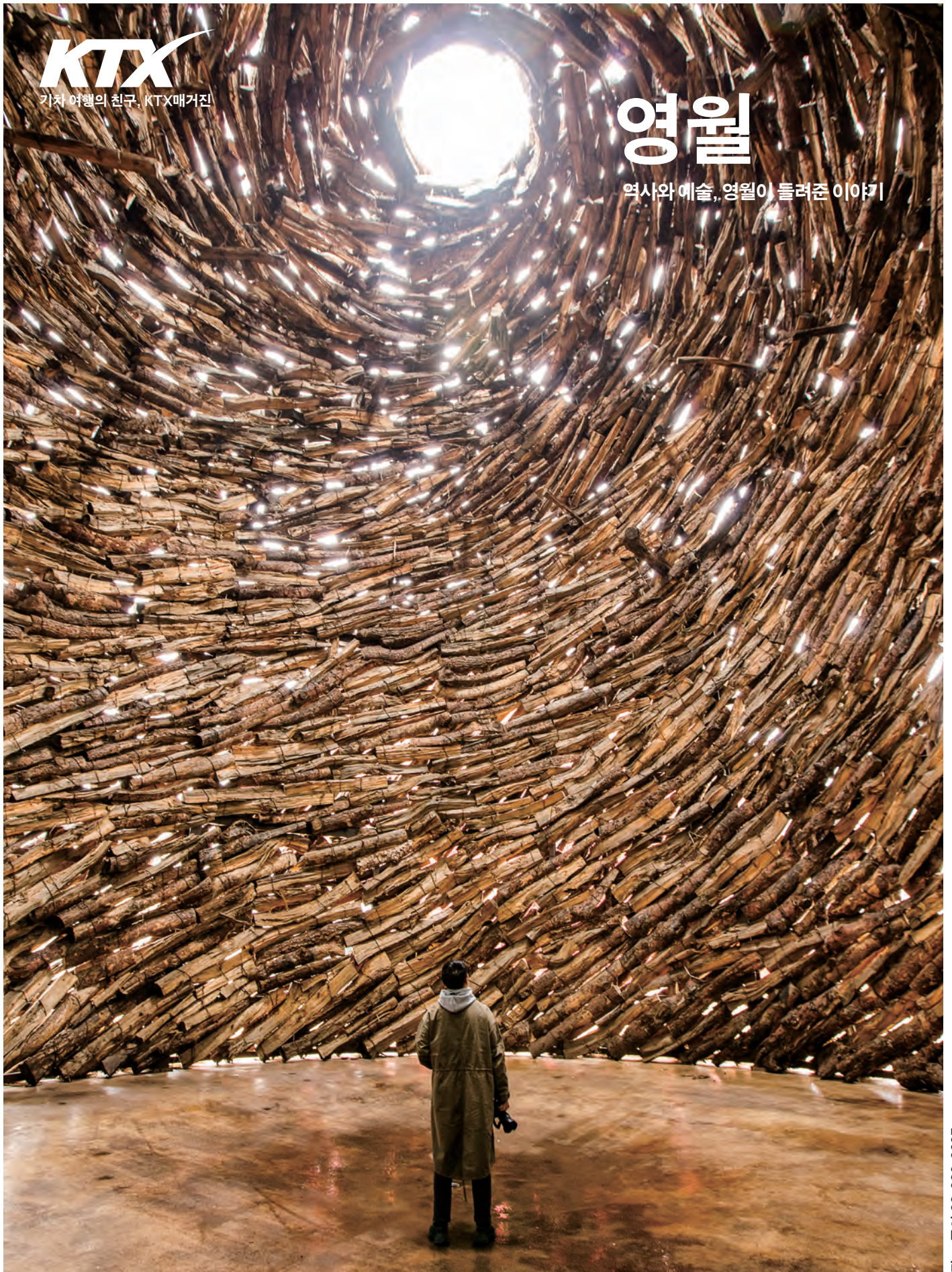
사진 속 사람 저예요, 모르시겠죠? 저도요

116페이지를 펼쳐 보세요. 경남 밀양 금시당 매화가 얼마나 예쁜지, 내년에도 꼭 갈 테대! 금시당에서 두 그루의 나무가 떠올랐다. 하나는 할머니 댁 초입에 있던 감나무. 때가 되면 감이 열렸다. 달렸을 땐 예쁘지, 다 익어서 떨어지는 계절엔 마당이 좀 지저분해졌다. 두 번째는 작년 집에 들인 매화. 지난해 2월에 '세프의 미식 기행' 취재를 하동으로 다녀왔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꺾어 놓은 매화 가지가 눈에 띄었다. 사장님께 예쁘다고 하니 가지 하나를 주셨다. 그걸 들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누가(규철 실장님) 촬영할 거라고 달라 해서 드렸다. 음... 사진을... 못 봤다. 허허. 그래서 난 매화나무 한 그루를 새로 분양받았다. 줄기가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1년 차 아기 나무. 그런데 꽃만 피우고 죽어 버렸다. 이번엔 매화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잘 관리해 할머니 댁 마당에 심어 두고두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위 사진의 내 얼굴ㅠ_ㅠ 규열 실장님, 예쁘다면서요! 예쁜 게 제가 아니라 꽃이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아니예요, 맛아요 ㅎㅎ 표다정

KTX
가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영월

역사와 예술, 영월이 들려준 이야기



YEONGJU TRAVEL SPECIAL

휴식의 미학
영주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지난 1월 개통한
KTX-이음을 타고
경북 영주에서
편히 쉬다 왔다.



YEONGJU TRAVEL SPECIAL

물길 따라 흐르는 전통 무섬마을

내성천이 마을을 휘감아 흐른다. 물을 건너야 도달하는 외딴 지형은
세상사에 지친 선비를 품어 주었다. 은둔하려 숨어든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외나무다리에 의지해 350년 역사의 무섬마을로 진입한다.



📍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234번길 41
☎ 054-636-4700



영주역에서 차로 15분쯤 달렸을까. 태백산 정기를 품은 내성천이 휘감은 육지 속 섬, 무섬마을에 다다른다. 마을 생김새가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 해 '물섬마을'이라 불리던 곳이다. 지금이야 천변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여럿 놓였지만 1970년대만 해도 세 개의 외나무다리가 마을과 바깥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마저도 음력 9월 9일에 세워 이듬해 3월 3일이면 해체했다. 나무 하나가 귀한 시절이라 추운 겨울에만 다리를 놓았다. 그 시절 외나무다리는 요즘처럼 매끄러운 모양새도 아니었다. 물살에 흔들리는 다리에 의지해 어른은 논과 밭을, 아이는 학교를 오갔다. 다른 계절엔 맨몸으로 건넜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는 때를 제외하면 높아 봐야 성인 무릎에서 찰랑거리는 수위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1980년대 수도교 건설로 사라진 외나무다리를 2005년 복원해 마을에 정취를 더했다. S자로 휘어진 외나무다리의 길이는 150여 미터, 너비는 두 뼘

남짓하다. 호기롭게 다리 위로 올라섰으나 중심 잡고 걷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시선은 자꾸만 아래로 향하고, 온몸엔 힘이 들어간다. 누군가 예겐 일상이었고, 이제는 추억인 다리를 건너 마을 탐방을 시작한다. 내성천 제방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푸른 하늘과 야트막한 산을 배경으로 기와집과 초가가 어우러진 풍경이 가슴에 와닿는다.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 곳곳을 거닐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천천히 걷다 보니 남다른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 대문이나 담장을 세우지 않은 집이 많다. 둘, 집터를 차지한 텃밭 말고는 논밭이 보이지 않는다. 셋, 고택에 으레 자리하는 사당이 자취를 감췄다.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 있을 법한 우물이 어디에도 없다. 그 이유를 알려면 마을 역사부터 살펴야 한다. 1666년 은둔 선비의 삶을 선택한 반남 박씨의 박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정착했다. 약 100년 뒤

인 1757년 그의 증손서인 선성 김씨의 김대가 처가인 이곳에 터 잡은 이후 마을은 현재까지 두 성씨의 집성촌이다. 이웃이 곧 가족이어서 대문이나 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담장 세울 땅이 부족할 정도로 웅기종기 붙은 가옥에 농토를 일구긴 힘들었다. 지금과 달리 제방이 낮아 침수 피해가 잦았으므로 떠내려갈 것을 우려해 시당도 따로 세우지 않았다. 거기에 마을 모양이 마치 사람과 물자를 가득 실은 배 같다 하여 우물을 파지 않았다. 구멍 난 배가 제대로 운항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마을 옆 내성천을 백분 활용했다. 세상에 지친 선비가 숨어든 외딴 마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을 고유한 삶의 방식이 뭉클하게 다가온다. 350년 역사에 100년 세월을 견딘 가옥 열여섯 채를 보유한 무섬마을은 2013년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됐다. 그중 가장 오래된 고택

인 만족재, 흥선대원군 친필 현판이 걸린 해우당고택 등 아홉 채는 경상북도 민속자료와 문화재자료로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생활사를 잘 보여 준다. 한때 120여 가구가 살 만큼 번성했고, 현재도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곳은 여전히 전통을 이어간다. 이곳에서 은둔의 길을 걷은 선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다면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고택에서 하룻밤 쉬어 가도 좋겠다.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쉽다. 일정 중 한 번쯤은 초가 카페로 변모한 박천립가옥에서 전통차와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자. 그러다 선비의 고뇌가 무겁게 다가올 땐 무섬식당으로 가 청국장, 도토리묵, 두부 김치 등 마을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맛을 낸 음식을 맛보며 훌훌 털어 낸다. 오래전 혼란한 선비를 다독였을 내성천이 오늘날 여행을 떠스하게 배웅해 마을을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YEONGJU TRAVEL SPECIAL

시간마저 멈추는 절 부석사

명당을 찾아 5년간 방방곡곡을 헤맨 의상대사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갈라지는 길한 터, 봉황산에 부석사를 세운다. 신묘한 창건 설화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절경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천년 고찰 부석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구했다.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054-633-3464



“살아서 못 만나다면 죽어서 따라가죠/ 걸어서 못 간다니 구름 타고 날아가죠/ 몸으로 못 안긴다길래 물이 되오니 마시옵소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이은상 시인의 ‘선묘정’을 읊으며 부석사에 얽힌 가슴 시린 설화를 떠올린다. 의상대사를 사모한 당나라 선묘는 당나라를 떠나 귀국하는 의상의 바닷길을 수호하려 용이 되었고, 이후 커다란 바위를 하늘 높이 띄우는 신묘함을 선보이며 사찰 창건에 힘을 보탤다. 선묘의 숭고한 희생 덕분일까. 676년 신라 문무왕의 명을 받들어 의상대사가 세운 부석사는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천년 고찰로 사랑받는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나,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부석사를 표현하기엔 한참 부족하다. 현실에서 만나는 극락정토, 그곳에 낙원이 존재한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교차하는 봉황산 기슭에 위치한 부석사는 비

탈진 경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다. 산세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태초부터 이곳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살아서 가는 극락이라니,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서 일주문부터 천왕문, 범종루, 안양루까지 무량수전으로 가는 관문을 차례로 통과한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 앞으로 나아간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거나 누각 아래로 허리 숙여 지나는 구조에 몸가짐이 절로 공손해진다. 무량수전에 모신 극락정토를 관장하는 부처님, 아미타불을 만나러 가는 여정답다. 108계단을 넘어 비로소 마주한 무량수전의 자태에 잠시 넋을 놓는다. 바라만 봤을 뿐인데 넉넉한 미소가 돌아와 세상 시름이 잊힌다. 고려 시대인 1376년에 중건했다는 무량수전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지붕의 네 귀퉁이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가운데가 볼록한 배흘림

기둥이 무량수전의 중심을 잡아 준다. 부드러운 곡선이 모여 단단한 안정감을 선사한다. 내부로 들어가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맞대고 조용히 인사를 올린다. 부처 곁에 두 발 딛고 선 여기가 바로 낙원이라 시선 닿는 모든 곳에 안온함이 스민다. 그중 제일은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바라보이는 산맥의 파도다. 사찰 전각이 녹아든 산 뒤에 또 산, 끝 모르고 이어지는 능선의 향연이 수려한 수목화 같다. 오죽하면 방랑 시인 김삿갓이 “백 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라는 시구를 남겼을까. 보기 드문 풍광에 험사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힘겹게 돌려 부석사를 뒤로하고 현실 세계로 빠져나온다.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4점을 보유한 절이라는 사실은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을 부석사의 일면일 테다. 다만 부석사를 둘러싼 풍경은 매일이 새롭다. 그동안 수많은 계절을 보낸 천년 고찰에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생명이 움트는 힘찬 기운을 한 아름 안은 지상낙원은 상상 이상으로 눈부시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울봄의 부석사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영주의 또 다른 즐길 거리



소소향

영주역에서 무성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지난 1월 고즈넉한 전통 찻집 '소소향'이 들어섰다. 퇴직 후 목수가 된 남편이 3개월간 지은 단층집에서 아내가 손수 만든 전통차와 디저트를 내놓는다. 10여 가지 약재를 이들에 걸쳐 달인 생화차를 비롯해 대추차, 자소엽 에이드, 인삼&마 주스 등 다양한 음료가 구미를 당긴다. 차 한 잔 시켰을 뿐인데 개인 쟁반에 수제 정과까지 내어 주니 대접받는 기분이다. 부부의 손맛이 깃든 호두파이와 약식도 별미다.

☞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 1425 ☎ 054-632-5959



랜드컴포트커피스토어

블루베리 '발 뷰'를 코앞에 두고 블루베리 레몬에이드를 마시면 어떨까? 약 10년 전 귀농해 블루베리, 사과 등을 재배하는 부모님을 따라 내려온 아들이 지난해 농장 옆에 커피숍을 차렸다. 부부가 키워 낸 결실이 아들 손에서 맛있는 음료로 재탄생한다. 음료에 결들일 와플과 쿠키는 매장에서 직접 굽고, 와플 위엔 블루베리잼과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올려 풍미를 더한다. 부석사에서 차로 5분이면 닿는다.

☞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74-1 ☎ 070-8811-4888



좋아서.

지난해 12월 영주역 근방 학사골목에 '좋아서.'라고 쓰고 '좋아서점'이라 읽는 동네 책방이 문을 열었다. 책방지기가 고심해서 고른 인문학 도서가 가득한 서점이자 커피 한잔 마시며 쉬어 가는 북 카페이면서 북 토크 같은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책이 좋아 책방지기가 된 손수진 대표의 애정이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곳이다. 하얀 봉투에 추천 메시지를 적고 봉투에 담아 정체를 숨긴 '시크릿 북'은 책 고르는 설렘을 배가한다.

☞ 영주시 대학로78번길 3 ☎ 010-9951-0214





YEONGJU TRAVEL SPECIAL

교통 정보



KTX-이음

지난 1월 5일 개통한 KTX-이음 덕분에 영주 여행이 한결 편해졌다.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KTX-이음에 탑승하면 1시간 40여 분 만에 영주역에 도착한다. 이로써 영주는 서울에서 편도 1시간대에 이동하는 일일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량리와 영주를 오가는 KTX-이음의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7~8회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영주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 준다.

📍 영주시 선비로 64(영주역) ☎ 1544-7788



영주 관광택시

KTX-이음을 타고 영주역에 편안하게 도착했다면 영주 관광택시에 몸을 맡길 차례다.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영주 관광택시는 기본 4시간에 일정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 절반을 영주시가 지원해 준다. 지역의 지리, 문화, 역사는 물론 맛집 정보에 해박한 기사가 함께해 더욱 든든하다. 택시 한 대에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여행 5일 전까지 영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 www.yeongju.go.kr

